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89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5월 21일)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非종교인 62% "불교 믿을까" 유입 위한 '넥스트 스텝' 필요

탈종교 현상 뚜렷한 가운데
불교 향한 대중 호감도 상승
템플스테이, 명상, 채식 등
MZ세대 신문화 소비가 요인

반짝 관심 넘어 정착 위해선
계층 신도 · 청년 거점 사찰 등
지원으로 포교 공백 메꿔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종교를 믿는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탈종교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불교를 향한 대중들의 호감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기관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5월 13일~17일 나흘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5%가 '최근 저연령층을 중심으로 불교가 떠오르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20대 응답자 66.8%와 30대 응답자 70.4%가 불교의 인기가 '체감된다'고 응답했다.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 역시 불교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현재 종교를 갖지 않는 비종교인 62%가 '향후 믿어볼 의향이 있는 종교'로 불교를 꼽았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자가 감소하는 다른 종교와 달리 불교는 믿는 인구도 증가세다. 이에 따르면 불교 신자는 2016년 25.2%에서 2024년 30.6%까지 치솟았다. 천주교가 2016년 24.5%에서 2024년 18.7%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수치다.

불교가 인기를 끄는 배경에는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대하다. 불교계는 최근 들어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꾸준히 변화를 주고 있다. MZ세대들에게 고리타분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경전을 읊는 것에서 벗어나 직관적으로 종교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작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변화가 확인된 것은 지난 4월 4~7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이곳은 2030세대의 관심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불교박람회는 사전등록자가 4배, 현장을 방문한 관람객은 전년대비 3배 증가했으며, 이중 80%가 2030세대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청년리더 500인의 세대공감 토크쇼 '담마토크'는 현장관람객 만석을 기록했으며, 개그맨 윤성호 씨가 '부캐'인 '뉴진 스님'으로 등장해 진행한 디제잉 쇼는 MZ세대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는 평가다. 덕분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불교가 이렇게 힙할 줄 몰랐다"는 이미지와 '유연한 종교'라는 인식을 얻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템플스테이와 명상, 채식위주의 식단이 MZ세대들에게 신문화로 소비되면서, 활력이 된 것도 이유다. 이전에는 '사찰은 지루하고 고리타분하다'는 통념이 지배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싱싱하고 신선한 매력이 있다" "쉼과 재미가 함께 한다"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엠브레인 측은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종교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는 인식이 적지 않고, 우리나라 종교계의 위상이 앞으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불교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새로운 방식으로 종교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들어 갑작스레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부는 불교 열풍이 반짝 관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착할 수 있도록 허들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어떤 종교가 더 인기가 있냐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단순 재미로 관심을 끄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미와 관심을 넘어서 실질적인 불자로 유입시키고 신행활동을 유지시키는 방안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사찰 법회와 스님들의 설법, 사찰의 신행체계 등이 젊은 세대가 선호할만한 시스템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사찰별로 다양한 연령층의 스님이 본인 연령에 맞는 신도를 상대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출가자 감소로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신행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층별 신도를 발굴, 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종단에서도 젊은 세대를 핵심 신도로 만들기 위해 지원, 포교 공백을 메꿔가야 한다고 강조한 김 교수는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가 활동하기 좋은 사찰을 선정, 청년층 거점 사찰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절로'가 미혼남녀 응원합니다 미혼남녀들 사이에서 인연맛집으로 입소문 난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의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연일 화제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6월 15~16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된 '나는 절로'에서는 7커플이 성사, 역대 최대 커플이 탄생했다. 미혼남녀 각 15인, 총 30인이 참가한 이번 만남템플스테이에는 총 248명이 신청, 남자 10:1, 여자 8:1의 경쟁률을 보였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송현공원 이승만기념관 목숨 걸고 막겠다"

태고종 총무원이 송현공원 내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강행 시에는 "전쟁도 불사하겠다"고도 경고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6월 19일 서울 종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황식, 이하 추진위)의 예방을 받고 송현공원 내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비공개로 진행된 예방에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재홍 스님과 총무원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 불교문예예술원장 지허 스님이 배석했다. 추진위 측에서는 김황식 추진위 이사장과 손병두 추진위 건축위원장, 김군기 추진위원이 참석했다.

상진 스님은 송현공원 내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반대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스님은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도 불교는 훌륭하게 명맥을 유지해 왔다. 이처럼 한국스님들이 훌륭하다보니 한반도를 침탈한 일제는 스님들을 결혼시키며 수행을 방해했다"면서 "광복 이후에는 미군이 불교를 탄압했고,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해 불교가 분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 시절 가장 많이 탄압을 당한 것이 현재의 태고종이다. 그런 상황에서 태고종 총본산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옆에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송현공원 내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절대 불가하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건립 추진을 막아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만, 상진 스님은 "기념관 건립을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 중심에, 송현광장에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다른 곳에서 건립되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태고종, 기념관추진위 예방서 천명
상진스님 "송현공원 內 건립 불가"
추진위 "이승만 때문에 흔들렸다면
불교 자체가 문제 아닌가" 망발도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달한 정화유시가 헌법 상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됨을 꼬집었다. 능해 스님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것이 현재의 민주주의 국가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불교의 내부 문제에 대해 관여를 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적 의지가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부터가 잘못이고 과오"라고 질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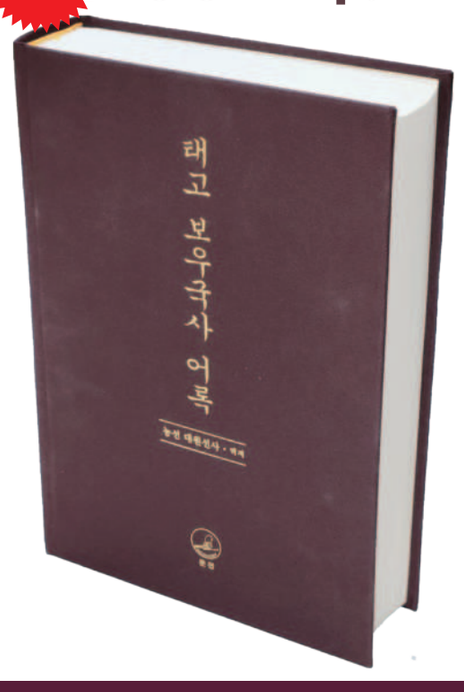
이어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불교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태고종 총본산 옆에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것인가. 이는 태고종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건립을 추진하려면 추진하라. 이후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추진위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추진위 측은 "36년의 일제강점기를 거쳤지만, 현재 일본과 화해하고 교류하고 있다. 태고종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감정을 풀어달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음 아니겠냐"고 읍소하면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 탄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추진위 측은 "이승만 대통령이 불교를 탄압했다는 주장은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평가들이 각각 다르다. 이런 내용을 갖고 스님들을 설득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서 수천년 한국불교 정신이 흔들리지 않지 않는가.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해) 흔들렸다면 불교 자체도 문제"라고 망발을 이어갔다.

이에 "부처님은 자비만 베푸시지 않았다. 악한들이 있으면 몸을 낮춰 호법신장(護法神將)으로 나투어 물리치셨다"고 밝힌 상진 스님은 "태고종에는 분쟁의 역할을 담당했던 스님들이 아직 살아 계시다. 그분들에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송현공원 내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태고종과는 합의점이 없다. 강행 시에는 전쟁임을 알라. 현 사안은 합의될 내용이 아니다"라고 재차 천명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신간 992쪽!


농선 대원선사의
〈태고 보우국사 어록〉
〈태고화상어록〉은 불교 배척 운동의 핵심 인물인 이색과 정몽주가 서문과 발문을 쓴 책이다 보니 안타깝게도 확철대오한 선(禪)법문은 다 걸러지고 대신들에게 지어준 당호에 쓴 송(頌)들로 엮어져 있다.

농선 대원선사는 그 송(頌)들 속에 스며있는
태고 보우국사의 깨달음의 경지를 '도움말'로 드러내어
본 〈태고 보우국사 어록〉을 출간하였다.
각 송에 부연한 농선 대원선사의 도움말은 선(禪)법문을 바로 보는 안목을 갖추게 하는 참 교과서와 같은 지표가 될 것이다.
한국 불자들의 소원인
〈해동전등록〉 결집!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정맥은
마조 도일선사의 제자들에 의해
해동 신라로 전해져 '구산선문'으로 계승되었고
57조 태고 보우국사에게 이어졌습니다.
중국 선(禪)사상에 못지않은 이런 해동의
선(禪)이 지금 결집되지 않으면 사장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농선 대원선사께서 90의 연세에
〈해동전등록〉을 결집하고자 하시니
모든 불제자님들께서 자신의 일로
생각하시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구산선문'의 법문집이나 게송집을 보내주시면
화엄경81권, 전등록30권, 선문염송30권 중
한 질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농선 대원선사 역저/992쪽/값 38,000원
도서출판 문젠
문젠 교무부 : 010-8670-1445

원각사, 520년 만에 재건불사 추진한다

무료 급식소 사회복지원각
원각사 건립위해 부지 마련
4층 규모 건립…12월 입주
원경 스님 "불사 동참" 당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탑골공원 앞에 재건될 조계종 원각사 조감도.

국가유산 국보인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인근에서 30년간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원각이 원각사 재건 불사에 나섰다. 더욱 쾌적한 공간에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함은 물론 잃어버린 불도량의 재건을 위해서다.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주지 원경 스님)는 6월 18일 무료 급식소 원각사 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각사 재건 불사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원각사 재건은 부처님 자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원각사지인 서울 탑골공원 담장 옆에서 30년째 무료급식을 이어온 사회복지원각 무료급식소의 간절한 염원에서 시작됐다. 1994년 무료급식을 시작한 보리 스님의 뜻을 2015년 이어받은 원경 스님(전 조계종 사회부장)은 안정된 급식을 위해 부지 마련을 발원했고, 올해 2월 원각사지 인근(낙원동 213-7번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원경 스님은 새로운 터전을 불교, 복지, 문화 복합 공간으로 변모시켜 누구나 부처님 가르침과 불교문화를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연면적 257㎡(78평) 규모로 지하에 주방(33㎡)을 마련하고 1층에는 무료급식소(66㎡) 2층 법당(66㎡) 3층 사무실 및 접견실(46㎡) 4층 음식 박물관과 차실(46㎡) 등 지층과 지상 4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원경 스님은 "문화재와 국가공원 등으로 원각사지에 불사는 불가능하지만, 향후 주변 담이 헐리면 새로 마련한 법당에서 탑신을 첨안 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경할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면서 "향후 주변 건물도 매입, 낙원동을 극락정토로 변모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경 스님은 그간의 마음고생도 털어놨다.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놓인 무료 급식소를 2015년 4월 인계받아 9년째 이끌고 있는 원경 스님은 "무료 급식소는 주변 상권에서 환영받는 공간이 아니고, 임대로 인한 불안한 상황에서 급식이 끊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항상 가져야 했다"면서 "터전을 마련했다는 것은 무료급식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개무량하다. 봉사자들과 십시일반 함께한 후원자들의 힘 덕분"이라고 말했다.

원각사 불사는 9월 초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 12월에 개원될 예정이다. 8월 10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안 원각사 10층 석탑 앞에서 고불식을 봉행한다.

원경 스님은 "더 많은 취약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서원과 함께 잃어버린 불도량의 520년만의 재귀환, 환지본처의 시절 인연을 이뤄내겠다는 발원으로 시작된 불사"라면서 "많은 불자들의 동참으로 대원력 불사가 성취되고 밝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각사는 고려 때부터 흥복사라는 이름으로 전승돼왔던 사찰로 세종이 불교 종파를 선교양종으로 통합한 뒤 조계종 본사가 됐다. 1504년(연산군 10년) 연산군이 이 절을 '연방원(聯芳院)'이라는 기방(妓房)으로 만들고 스님들을 내몰아 폐사됐다. 이후 서양식 공원으로 조성돼 대중에 개방됐고 독립만세운동의 발상지로 역사적 장소가 됐다. 현재 원각사지에는 십층석탑(국보)와 대원각사비만 남았다.

후원계좌 : 농협 301-0242-6472-21
원각사공덕회 : 02-762-4044

상진 스님 "파리올림픽 한국선수단 응원"

6월 14일 응원메시지 발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사진〉이 '제33회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발표했다.

상진 스님은 6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그간 쏟아낸 땀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스님은 "이 시간에도 비지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을 대한민국 선수단은 무한불성(無汗不成)이란 말처럼 쏟아낸 땀만큼 개인의 기록 달성뿐 아니라 국민에게 큰 기쁨을 안겨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대한민국 선수단이 파리올림픽에서 마음껏 기량을 뽐내고 실력을 발휘해 훌륭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태고종 전 종도와 함께 응원과 지지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자는 목적 아래 개최되는 것이 올림픽"이라며 "이번 파리올림픽도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선수단이 앞장서 페어플레이에 입각한 선의의 경쟁을 펼침으로써 화합과 평화의 지구촌을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33회 파리올림픽은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진우 스님 "국민 생명 살리는 상생 지혜 필요"

6월 14일, 의료현장 정상화 호소
"상생 방안 위해 지혜 모아줄 것"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휴진과 진료 거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의료현장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상생하자"고 호소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14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더 이상의 의료 공백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우 스님은 "의료 개혁을 향한 갈등과 진통이 거듭되면서 국민의 불안과 고통이 극심하다"면서 "단 한사람의 생명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빠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의사들은 정부와의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집단 휴업이라는 극한적인 방편은 생명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주길 바란다"면서 "의료 현장을 빨리 정상화하고 국민 건강을 위하는 마음을 견지할 때 종교계와 국민들은 그 진심에 존경과 지지를 보낼 것이니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임은호 기자

진우 스님, 민주당 불교특위에 "전통유산 보존 계승"

6월 20일, 김영배 위원장 등 15명 예방
"국민 건강 위한 선명상 보급에 관심"


진우 스님을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 · 불교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불교문화의 체계적 계승과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불교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배) 위원들이 6월 2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불교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배 위원장을 필두로 한 위원 15명의 예방을 받은 진우 스님은 이날 전통문화 계승 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활동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진우 스님은 "덕분에 그동안 숙원 사업이었던 관람료 폐지와 전통사찰 자부담 면제, 전기료 지원 등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22대에 처음 입성한 여러 의원들도 선배 의원들의 활동을 잘 이어 받아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배 위원장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불교계와 전통문화에 대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잘 챙길 테니 많은 가르침을 달라"고 말했다. 선명상센터에도 큰 관심을 표한 김 위원장은 "명상이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지역과 조직적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종단과 긴밀하게 협의, 불교특위가 종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국민들의 건강과 마음 행복을 위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불교 용어보다는 보편적이고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전국 템플스테이 150여 곳과 명상센터 등에 보급하고 지도자들에게 전달해 국민들이 스스로 내공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 28일 봉행될 '국제 선명상 대회'에도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예방에는 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김병주, 민병덕, 이수진, 윤건영, 곽상언, 김동아, 염태영, 이광희, 정준호, 전진숙, 박희승, 문대림, 박홍배, 노욱선 의원이 참석했다.

임은호 기자

수경 스님, 중앙종회의원 당선

6월 19일, 만장일치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사진〉이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종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수경 스님은 6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진행된 직능대표 선출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이날 회의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범해 스님, 포교원장 선업 스님,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 등 위원 총 9명 중 8명이 참석했다.

법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수경 스님은 1980년 수계했다. 조계종 문화부장을 비롯해 고시위원회 실무위원, 동국대 강사 및 삼선불학승가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소임을 맡고 있다.

임은호 기자

공 고

종단명칭 변경

■ 종 단 명 : 대한국불교 조계종
■ 총무원장 : 응 천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21길 52

상기 종단은 2024년 5월 28일부로 대한불교 호국종(총무원장 응천)으로 종단명칭이 변경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불기2568년(2024) 6월 15일

대한불교 호국종 총무원장 응천

대한불교 호국종

입종 및 사암등록 모집안내

부처님의 일불제자로써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여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정신으로 대한불교 호국종을 이끌어 나갈 종도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입종 서류
1.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 1통
2. 주민등록증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 3매
4. 법당 사진 내 외(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5.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모든 개인(寺, 庵)의 자산은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본 종단은 종헌, 종법으로 보호하며 사암의 운영권에 대해서는 창건주(주지)가 전적으로 운영하며, 본 종단 총무원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한불교 호국종
등록번호 : 101-82-68274

■ 총무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21길 52
010-5826-0108 / (02)379-5502 / 팩스 : (02)395-0510

“좋고 싫음 늘 똑같아…항상 감정 살펴야”

진우 스님, 6월 15일 용문사서
자립준비청년 13명에 가르침
“내 마음구조 알아야 미움 없어”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6월 15일 양평 용문사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마음의 평화,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을 설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간략하게 조계종단을 소개한 후 청년들이 사전에 제출한 질문지에 일일이 답을 했다. 청년들은 스님들 일상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평소 자신의 고민들을 토로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가족들의 잔소리를 점점 견디기 힘들어하는 심정, 학교 또는 직장생활을 하며 이간질 당하는 고통 등을 호소하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스님에게 조언을 구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좋고 싫은 분별에서 벗어나 좋지도 싫지도 않은 중도심을 통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며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 청년에게 진우 스님은 “왜 미운 마음이 생길까” 하고 질문하며 “사람이 나빠서 미워하기보다, 마음의 구조로 인해서이기도 하다”며 “마음 구조를 알아야 왜 미움이 생기는지 안다”고 설명했다.

이날 스님은 청년들에게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내 감정을 살피라”고 강조했다. “이 일이 좋고 싫고,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할 수 있으나 그 때 내 감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야 한다”며 “감정은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싫고 기분 나쁜 감정, 괴로운 감정은 내가 과거에 또는 전생에 행복했고 기뻤고 좋았던 질량만큼, 괴롭고 기분 나쁘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일문일답 후 스님은 청년들과 서원지를 쓴 후 용문사 은행나무로 장소를 옮겨 서원지를 달고 기념촬영을 했다.

자립준비센터를 통해 템플스테이 소식을 접한 20대 중반의 두 청년은 1박2일 동안 사찰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범종체험에서 울림을 느낄 수 있어 좋았고 캠프파이어에서 주지스님과 나눈 이야기가 특별했다“면서 “행사 후에 템플스테이 체험권을 선물 받았는데 친구와 함께 오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원장스님이 감정 조절을 잘 하면 어떤 상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 말씀이 정말 와닿았다”며 평소 고민하던 것들과 부합하는 내용이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청년은 “사찰에 오니 정말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 시간 되면 또 오고 싶다”며 “특히 108배를 시작할 때만 해도 다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럿이 함께 해서 그런지 결국엔 108배를 다 해서 성취감을 느꼈다”고 했다.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 운영 종료

사노위 등 4대종교 추모의식
499일 만에 ‘별들의 집’으로 이전



서울광장에 있던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가 설치 499일 만에 운영을 종료하고 새로운 장소로 이전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국내 4대 종교 관계자 등은 6월 16일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에서 ‘4대종교 추모 의식’으로 운영 종료를 알리고, 서울 중구 부림빌딩 1층에 새로 마련된 ‘별들의 집’으로 분향소를 옮겼다.〈사진〉 별들의 집은 오는 11월 2일까지 한시적 운영에 들어간다.

추모 의식은 희생자 159명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됐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불리자 그리움에 유가족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개신교, 원불교, 가톨릭, 불교 순으로 기도 의식이 진행됐다. 기도에는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진상규명을 발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사노위원 고금 스님은 “억울한 죽음에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다”며 “비록 시청 분향소는 옮기지만 국민과 저희는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알고 가족들의 고통을 알기에 책임자를 밝히고, 진상을 밝혀 조금이나마 그 한을 푸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진흥원, ‘대원상’ 등 4대 공모사업 실시

시대 맞는 불교 진흥 목표로
학술 · 콘텐츠, 청년불자상 등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 진흥을 위해 2024년 하반기 4대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2023년 제정돼 매년 시상하는 ‘대원상’을 비롯해 청년불교 활성화와 불교 관련 학술·콘텐츠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대원청년 불자상·동아리상’과 ‘대원불교 학술·콘텐츠’ 공모, 풀뿌리 불교 중흥을 위한 ‘불교 기관·단체 지원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21회차를 맞은 ‘대원상’ 공모는 사회활동, 강연, 콘텐츠 제작, 저술 등을 통해 효율적인 포교 활동을 펼치는 출가자와 재가자 개인·단체를 시상해 현대 사회에 적합한 포교 방법을 창출하기 위해 해마다 열고 있다. 출가부문(개인/단체), 재가부문(개인/단체), 특별 정진상(조계종 소속 해외 유학승 2명) 부문으로 공모하며, 상금은 대상 3000만원, 특별상 1500만원, 장려상 1000만원, 특별 정진상 각 1000만원을 수여한다. 접수 기간은 9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진흥원으로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9기 불교 기관·단체 지원사업 공모’는 전국 곳곳에서 불교 진흥을 위해 큰 원력을 펼치고 있는 단체를 발굴해, 꾸준히 불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각 기관·단체에는 200~50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이메일(kbpf2606@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 초·중·고·대학·대학원 불교 동아리를 대상으로 장학금 및 활동비를 지원, 불교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9기 대원청년 불자상·동아리상 공모’는 7월 1부터 26일까지 이메일(kbpf2606@daum.net)로 접수받는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개인에게는 300만원 장학금이, 초등 불교동아리에 50만원, 중·고등 불교 동아리에 150만원, 대학·대학원생 불교 동아리에 150만원이 지급된다. 불교동아리 지도교수(교사)에게도 50만원을 별도 지원한다.

‘제10기 대원불교 학술·콘텐츠 공모’는 불교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단체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불교 학술 저서’ 부문에는 500~1200만원을, ‘번역서’ 부문에는 300~1000만원을 지원한다. 만화, 동화, 불교 다큐멘터리, 수행 프로그램 개발 등 불교 콘텐츠 부문에는 500~1000만원이 지급된다. 공모 희망자는 7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이메일(kbpf2606@daum.net)로 제출하면 된다. 김내영 기자

서울시의회 화엄회 “부처님 법 수호” 다짐

6월 17일, 조계사서 정기법회
20여 명 참석…우봉 스님 지도법사
“선업으로 서울 발전 기여해달라”


정기법회에서는 지도법사 우봉 스님 집전으로 천수경 봉독과 관세음보살 정근이 진행됐다.

서울시의회 불자회인 화엄회가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수호할 것을 서원했다.

화엄회(회장 남창진)는 6월 17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불자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지도법사 우봉 스님의 집전으로 열린 이날 정기법회는 천수경 봉독과 관세음보살 정근 등 30여 분간 진행됐다.

지도법사 우봉 스님은 법문을 통해 ‘업장 소멸을 위한 선업’을 강조했다. 우봉 스님은 “줄기차게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부처님 가피가 따를 것”이라며 “공직에 있는 여러분이 세세생생 보살도를 행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죄업을 줄이고 선업을 강조한 스님은 “서울시 의원으로서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선업”이라면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 사심 없이 보살도를 행해 자랑스러운 서울시의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불자의원들은 부처님 가르침 수호로 불법홍포에 앞장서며 선업을 쌓아나갈 것을 다짐했다.

서울시의회 부의장 남창진 회장은 “함께 뭉쳐 자주 모이고 하나하나 배워나가며 정진하자”면서 “부처님 법을 수호하며 선업을 쌓아가자”고 강조했다. 불자회 고문 최기찬 의원은 이날 법회에 대해 “선업을 쌓으라는 지도법사 스님 말씀을 가르침으로 삼아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야겠다는 다짐을 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홍국표 의원은 “매일 아침 일어나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서 “부처님 가피 덕분에 잘 살고 있다고 생한다. 항상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잘 전하는 불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2021년 창립한 화엄회는 서울시의회 불자의원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신심과 원력으로 정기법회와 템플스테이 등을 이어오고 있다. 임은호 기자





장애 시인과 협업으로 특별한 디퓨저 탄생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뇌성마비 근로자와 시인의 협업으로 특별한 디퓨저가 탄생됐다. 중증 뇌성마비인들이 만든 디퓨저를 감싼 포장지에 장애 시인들의 시구(詩句)를 넣어 만든 패키지 상품으로, 문화예술 방면에서 활동하는 장애 시인들의 창작 활동 확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장애인불자모임 보리수아래(대표 최명숙)는 6월 18일 오뚜기직업재활센터(원장 황철희),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회장 김정우)와 '뇌성마비 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오뚜기직업재활센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인 '시의 향[香] 사쉐 디퓨저' 포장지에 뇌성마비 시인들이 제품 향기를 표현한 시구를 사용하고, 시인들은 소정의 저작 사용료를 받게 된다.

오뚜기직업재활센터는 뇌성마비인들에게 직업 활동의 기회를 제공,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디퓨저 사업을 시작했다. 이어 각 디퓨저의 향에 어울리는 뇌성마비 시인의 시를 제품에 접목해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디퓨저의 향마다 다른 글귀를 제품에서 볼 수 있어 타 제품과는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뚜기직업재활센터 측의 설명이다.



최유진 시인이 쓴 글귀가 담긴 디퓨저 패키지.



보리수아래가 오뚜기직업재활센터,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뇌성마비 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뇌성마비 근로자 생산 '디퓨저'에
장애시인이 향기 표현 시구 담겨
창작 확대·일자리 창출 모델 기대

1차로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와 최유진 시인이 동참, '향기로와서(자몽)' '봄길(플라워샵)' '사람이 사람에게로 가 서면(가드니아)' 등 3종이 출시된 상태다.

'시의 향[香]' 사쉐 디퓨저 3종 중 '향기로와서(자몽향)'의 패키지 작업에 참여한 최유진 시인은 "좋은 기회를 얻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좋은 시를 쓰는 시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는 "근래 들어 장애예술인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활동과 지원이 늘어나고 자신의 활동 분야를 직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음악 등 타 장애 예술인에 비해 혜택이 미미한 문학을 하는 장애작가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갖게 된 만큼 일반 사회에서도 직업에 대한 인식 전환에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의 향(香) 사쉐 디퓨저'는 3종으로 제작되며 오뚜기직업재활센터 공식 홈페이지(otgvr.or.kr)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모든 디퓨저 수익금은 뇌성마비 근로자 임금과 뇌성마비 시인의 활동에 쓰인다.

불교환경연대, 생물 다양성 보존 '생태지도' 만든다

'2024 상반기 녹색사찰 간담회' 활동 평가 · 향후 계획 등 소개
녹색사찰 활성화 방안 모색도

불교환경연대가 올해 생태 다양성 보존과 사찰 숲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생태지도' 만들기에 나선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는 6월 19일 불교환경연대 교육장에서 '2024 상반기 녹색사찰 간담회'를 열고 그간 활동 평가와 하반기 활동 계획을 소개했다. 하반기에는 △녹색사찰 생태지도 만들기 △복날 채식 캠페인 △기후정의행진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공동대표 원경 스님, 불교기후행동 상임대표 일문 스님, 상불사 주지 동효 스님, 정릉 보현사 주지 일원 스님, 춘천 봉덕사 혜오 스님, 김병주 녹색사찰위원장 등이 동참했다.


불교환경연대가 녹색사찰 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활동계획을 소개했다.

하반기 사업 가운데 '생태지도' 만들기는 숲해설가들과 사찰 숲을 탐방하면서 만난 다양한 나무와 생물 자료를 그림으로 담아낸 것을 말한다. 사찰 주변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체험하면서 생명존중의 가치를 일깨워주기 위함이다.

이에 앞서 불교환경연대는 올해 4월 9일부터 5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생물 다양성을 위한 사찰 숲 생태지도 만들기 지도자 교육'을 실시, 총 1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지도자 교육을 수료한 숲해설가들은 향후 녹색사찰 및 후원사찰에서 생태지도 만들기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현재 선운사, 상불사, 월정사, 전등사에서 프로그램 기획을 준비 중이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은 "사찰 숲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직접 관찰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확산시킬 기회를 제공하고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복날 채식 캠페인'도 올해 지속된다. 캠페인은 초복인 7월 15일부터 말복인 8월 14일까지 △하루 한 끼 채식하기 △빈 그릇 운동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률 줄이기 △지속 가능한 지구생태계를 위해 일회용품과 비닐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에 동참하는 것이다. 제철 채소와 나물로 만들 수 있는 채개장, 들깨감자탕 조리법도 일러줘 육류 대신 채식을 권장한다.

이날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일상에서 너무 많은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목도하며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며 "가장 불교적 해법으로 생명과 미래를 지키고 생명의 길,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봉선사, 청년연합법회…선명상으로 '힐링'

김민준 학생에 100만원 장학금
경내 연꽃밭 걷기 명상 체험도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가 6월 16일 경내 청풍루에서 '교구장 스님과 함께하는 선명상'을 주제로 청년연합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경동대·서정대·경복대·신한대·김포대 불교동아리 회원 50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에 앞서 최근 진접아파트 화재 시 1층부터 50층을 일일이 돌며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린 김민준(광동고2) 학생을 위해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호산 스님과 광동학원 이사장 인묵 스님은 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김민석 학생에게 전달하며 응원과 격려를 전했다.

호산 스님이 명상의 목적과 방법, 효과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호산 스님은 "수행을 시작하는 올바른 자세와 호흡만으로도 집중력이 향상돼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매순간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알고 차분히 살필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산 스님과 참석 학생들이 경내 연꽃밭을 걷는 명상 체험으로 힐링의 시간도 가졌다.

김내영 기자

교정교화전법단, 수용자 대상 수계법회

6월 18일, 수용자 100명 동참
"죄업 씻고 올바른 다짐 하길"



조계종 포교원 교정교화전법단(단장 혜원 스님)이 6월 18일 강원북부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길 발원하며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수계법회에는 교정교화전법단장 혜원 스님과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 신흥사 호법국장 각일 스님, 원각사 주지 설혜 스님, 명주사 주지 설주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수계를 받은 수용자 100여 명은 참회진언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살겠다고 서원했다.

전법단장 혜원 스님은 "수계법회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죄업을 씻고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은평구 불교계 '호국기원대법회'

은평구사원연 등 6월 14일



서울 은평구 지역 불교계가 호국영령을 위로하고 나라와 은평구민의 안녕을 염원하는 야단법석을 마련했다.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성운 대종사·삼천사 회주)와 조계종은평구협의회(회장 보관 스님·수국사 주지), 은평구청불심회(회장 위선옥)는 6월 14일 서울 진관사에서 '제33회 호국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서는 삼천사 성운장학재단(이사장 성운 대종사)과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가 함께 마련한 장학금을 보훈단체 유가족 자녀 등 총 51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5100만원을 전달했다.

성운 대종사는 "충혼이시어! 그대들이 곧 하늘이시고, 밝은 땅이로소이다! 온 세상이 한 떨기 장미로소이다"라고 추모했다.

김내영 기자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다양한 백중 용품 할인행사중!! 상시대기
최고급 제품&착한가격&친절상담&빠른배송
전품목 10%~30%/승복, 가방 50%/가구, 병풍 30% 할인
최고급 합장주 할인
합장주 ····· 100개 55,000원
어린이합장주 ····· 100개 50,000원
백중 제품 할인
인등 신제품 출시, 주문제작 가능
충전 전기초 출시 (1회 충전시 30일 지속, 5종류)
반야심경/산신/용왕/연꽃 일부품목은 제외됩니다 85,000원
● 보시 용품 염줄
● 각종 연등 탄생불 관욕단
● 각종 미니 만월등 100개 ····· 140,000원
● 만월등 사업등 할인가
● 연잎 리본 100개 23,000원
● 방수전선 전구엘리드국산
● 등 승강기 설치
2024년 동호불교 백중 물품 행사 품목
※ 택배비 포함, 부가세 별도 가격입니다.
2024년 7월 30일 물품 소진시 마감 예정
조상옷
쟈가드 100벌 이상 250,000원
천연펄프 100벌 이상 250,000원
추가옵션
버선 300원
양말 300원
세면도구 100개 이상 150,000원
메리야스 100개 이상 160,000원
베네저고리 100개 이상 150,000원
종이짚신 150개 1BOX 195,000원
종이신발 50족 1BOX 60,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55,000원
돈타래 40개 65,000원
원백 20개 65,000원
홈초원백 20개 70,000원
식물성 양초 국산 최고급
7일초 20개 95,000원
5일초 24개 100,000원
3일초 40개 100,000원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홈초원백 20개 80,000원
홈초돈타래 40개 80,000원
파라핀 1BOX 55,000원
지옷 200개(한박스) 140,000원
수자 100개 60,000원
동자동녀 100개 70,000원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칠보 개금 할인해드립니다.(기존 불상 가능)
※불상 조각 조성합니다.
(소불7치 500불이상 1불당 12000원)
백중 용품 미리 준비하세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달력도 7월 10일부터 주문받습니다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대표번호 054-762-8200 / 문의전화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새마을금고 9003-2562-87257 (임건순)
■ 오시는 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사각지대 존재…다나 지원 큰 도움됐어요”

소외계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나눔 캠페인 소녀에게 응원을

① 다나 나눔 현장 가다

진해구 18개 아동센터에 매달 생리대, 쌀 등 지원
관내 80명 생리대 혜택
센터장들 “스님에게 감사”
탄경스님 “창원까지 확대”

진해=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6월 14일 진해군청에서 진행된 (사)다나와 진해 지역아동센터장과의 간담회 직후 이뤄진 기념촬영 모습.

(사)다나 회장 탄경 스님의 한 주는 빠르게 지나간다. 화요일에 서울 종로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밥차 배식을 마치면, 차를 몰고 지방을 다니며 각종 지원 물품들을 수령한다. 그리고 수령물품들을 필요한 곳에 나눠준다. 다시 금요일에는 서울로 올라와서 노숙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인 ‘동네한바퀴’를 진행한다.

매달 한 번씩은 창원특례시 진해구를 찾는다. 진해 지역 아동센터에 쌀과 간식, 생리대를 나눠주기 위해서다. 6월 14일, 특별한 자리가 마련된다고 해서 탄경 스님과 함께 진해구청을 찾았다. (사)다나의 지원을 받는 진해구 18개 아동센터장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사)다나와 진해 지역 아동센터들과의 인연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장영남 경화지역아동센터장은 “센터를 운영한지 10년이 됐는데, 포도와 수박부터 떡국까지 다양한 물품을 지원해주고 있다”면서 “아이들도 다나에서 지원해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스스로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한다.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생리대 나눔 사업은 지난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으로 인해 ‘생리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다나 역시 관심을 갖게 됐다. 사회적으로는 2021년 4월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여성가족부의 ‘저소득층 대상 선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보편 지원 사업이 없는 상황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조손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제대로 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탄경 스님이 지역아동센터에 쌀을 가져다 주고 있다.


다나가 지원한 쌀을 들고 즐거워하는 센터 아이들.


탄경 스님과 센터장들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생리대의 비싼 가격은 청소년들이 구입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국가별 생리대 개당 평균 가격에 따르면 한국은 개당 331원인데 반해 미국·일본은 181원, 덴마크는 156원, 캐나다 202원으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서울시 여성청소년 중 ‘월경용품 구입을 비싸서 망설인 적 있다’는 응답이 74%에 달하기도 했다.

생리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여성청소년들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적지 않은 종교 및 민간단체들이 이들을 후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단체 중 불교단체는 ‘다나’가 유일하며, 진해 지역에서도 유일한 단체다.

다나는 아동센터마다 필요한 생리대 수량을 조사해 매달 관내 대상 여성 청소년 약 80여 명에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다. 수량도 넉넉히 잡아 100명은 사용할 수 있는 양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지원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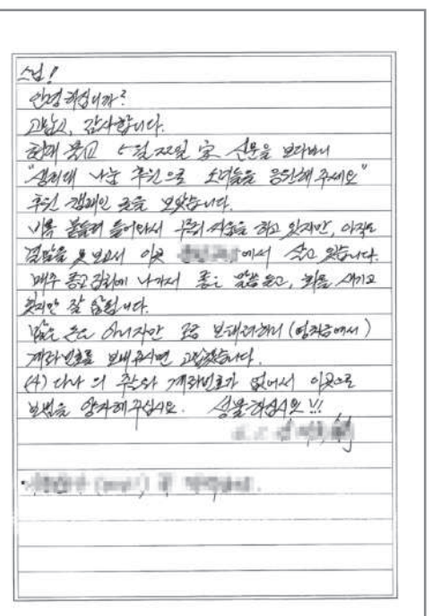
김다혜 샘바위 지역아동센터장은 “시설 이용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생리대 구입이 막상 쉽지 않다는 고충이 많았다”며 “사람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생리대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각지대는 어디나 있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다나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생리대가 기초수급 가정 등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미혜 꿈나무지역아동센터장은 “우리 센터의 경우 중학교 여학생들이 많다. 아이마다 월경의 양이 다른데, 다나는 생리대를 대·중·소로 나눠 세심하게 지원해준다. 이에 감사함을 느끼는 학생이 많다”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지원해주시니 다나를 모르는 아이들이 없다. 스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탄경 스님은 “우리 단체명 다나는 사실 한국어가 아니다. ‘보시’를 산스크리트어로 ‘다나(dāna)’라고 한다. 보시는 주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며 “우리 단체는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계획은 창원으로 나눔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경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당장 군승 선후배 도반들을 통해 받았던 생리대 지원이 어렵게 됐지만, 항상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어왔다. 앞으로도 열심히 나누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탄경 스님은 지역 아동센터를 돌며 직접 쌀과 국수, 간식을 전했다. 이른 더위에 맺힌 스님의 땀방울은 누구보다 값졌다.


소님!
안녕 계셨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추위에 굶고 수정 못한 날, 신문을 보다가
"경제에 나눔 주인으로 소녀들을 응원해 주세요"
후원 캠페인 공고 보았습니다.
이불 홑솔려 들어와서 무죄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결말을 보고서 이곳 ○○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주 종교 집회에 나가서 좋은 말씀 듣고, 화를 새기고 있지만 잘 안됩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영치금에서 조금 보태서 보내려고 합니다. 계좌번호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적지만 영치금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사)다나의 캠페인 체결 기사(5월 22일자)를 보고 한 재소자가 편지를 보내와 일부를 게재한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현대불교신문 5월 22일자 신문을 보다보니 ‘생리대 나눔 후원으로 소녀들을 응원해주세요’ 후원 캠페인을 봤습니다.

비록 붙들려 들어와서 무죄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결말을 못 보고 이곳 교도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주 종교 집회에 나가서 좋은 말씀 듣고, 화를 새기고 있지만 잘 안됩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영치금에서 조금 보태서 보내려고 합니다. 계좌번호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창간 30주년 현대불교·(사)다나 공동 후원 캠페인

소외계층청소년 여성위생용품 나눔사업

소녀에게 응원을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6001-04-342006 (사단법인 다나)

후원문의 | 010-5347-4178 (대표 탄경 스님)



“호국영령 극락왕생 발원합니다”

통도사, 제3회 호국영령 법요식 및 위령재

6월 15일 설법전 및 경내 일원서
제31육군병원 분원 ‘국가현충시설’
숭고한 희생들 깊이 새기는 계기

이도경 부산지사장 yongjang88@naver.com



영축총림 통도사가 6월 15일 경내 설법전에서 제3회 호국영령 법요식 및 위령재를 봉행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6월 15일 경내 설법전에서 ‘제3회 호국영령 법요식 및 위령재’를 봉행했다.

통도사는 6·25 한국전쟁 당시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으로 헌신해 국가현충시설로 지정받았다. 통도사는 이를 기념하며 위령재를 봉행하고 한국전쟁 중 희생한 수많은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매년 마련하고 있다.

행사는 명종 5타를 시작으로 △개회 △삼귀의 △국민의례 △애국가제창 △묵념 △반야심경 △경과보고 △헌향 △헌다 △헌화 △봉행사 △추모사 △법어 △추모노래 △추모공연 △사홍서원 순으로 이어졌다.

행사에는 통도사 수좌 명신 스님, 주지 현덕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 불교신문 사장 오심 스님을 비롯해 나동연 양산시장, 윤영석 국회의원, 이종희 양산시의회 의장, 이순희 울산보훈지청장과 유족 및 보훈관계자와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통도사는 한국전쟁 당시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이 설치되어 수많은 부상 장병들을 치료하는 시설로 사용되었으며 매일 수십명에 이르는 전사자들의 장례를 치르기도 했다”며 “오늘 의미 있는 법석에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들을 추모한다면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고 지금도 어디선가 국가를 지키고 있을 이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봉행사를 전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오늘 우리는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자 한다”면서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기억하고 추모해야 하며, 국가와 국민들도 천년 넘는 역사 동안 국가의 큰 국란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았던 호국불교의 정신 또한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추모의 메시지를 밝혔다.

통도사 수좌 명신 스님은 “6.25전쟁 당시 통도사는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으로 부상당한 상이군인들을 치료하는 야전병원이었으며 그때 통도사를 지키던 대중들에게는 부상병을 돌보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오늘을 살고있는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 되었다”며 “국가를 지키기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부처님 전에 발원한다”며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통도사는 호국영령 법요식에 이어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호국영령위령재 의식을 봉행했으며, 이어 삼성반월교 옆에 설치한 특설무대에서 추모음악회를 개최하며 행사를 회향했다.

한편, 통도사에서는 그간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육군병원 분원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 2020년 1월 17일 국방부와 육군본부, 국군의무사령부에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같은 해 3월 증언과 자료를 취합한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로써 같은 해 12월 17일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로부터 ‘분원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받았다. 2021년에는 국방부로부터 해당 사실을 확인받았으며, 10월 심의 과정을 거쳐 11월 1일 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 지정 통보(지정서 별첨)를 받았다.

“영환 대종사시여, 다시 꽃피는 소식 전해주소서”

범어사 6월 17일 총림장 엄수


금정총림 범어사 원로 일여당 영환 대종사의 영결식이 6월 17일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엄수됐다.

후학 양성에 앞장서 온 금정총림 범어사 원로 일여당 영환 대종사의 영결식이 6월 17일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엄수됐다.

총림장으로 엄수된 이날 영결식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 주지 정오 스님, 율주 수불 스님, 문도대표 화랑 스님,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대종사 등 산중 어른스님들과 범어사 본·말사 주지스님, 신도 등이 참석했다.

영결식은 명종 5타를 시작으로 개식, 삼귀의, 헌향 및 헌다, 영결법요 의식, 내빈 헌화 등이 이어졌으며 행장소개, 추도입정, 법어, 추도사, 문도대표 인사말이 이어졌다.

방장 정여 대종사는 법어에서 “언제나 자상하시어 올곧은 소리로 후학을 바르게 이끌어 주신 대종사님의 크나큰 자비심에 마음 깊이 감사한다”며 “속환 사바하시어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젊은 시절에는 수행과 행정을 겸비한 능력으로 본사의 기틀을 바로 세워주셨고 이후 다함이 없는 애정으로 늘 저희 후학들의 사표가 되어주셨다”며 “한 송이 꽃이 피고 졌다. 향기는 남아 천지를 진동하오나, 향기마저 사라지기 전에 속환사바하시어 다시 꽃피는 소식을 전해주시옵서”라고 추모했다.

상좌대표 화랑 스님은 “안거 중에도 저희 은사스님의 영결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스님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수행정진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영결식 후 만장 행렬을 따라 스님의 법구는 연화대로 이운됐다. 연화대에 안치 후 거화 의식이 진행됐으며 스님은 지수화풍이 되어 금정산 녹음 속으로 흩어졌다.

영환 대종사는 1948년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나 1964년 17세에 동산 대종사를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강원에서 공부를 마친 후 1969년 22세에 석암 대율사를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범어사에서 별좌 도감 원주 등 여러 소임을 두루 거치며 사중 산림을 지켜나가는데 능력을 발휘했다. 스님은 1983~84년 고경사 주지를, 1985~86년 동명불원 주지를 역임했으며, 금정중 이사를 맡아 도반들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인재불사에도 앞장섰다. 1987~2001년에는 금정중 이사장으로 소임을 다했으며, 1994~98년 조계종 제11대 중앙종회의원, 1997~2008년 창원 성흥사 주지, 2001년 범어사 부주지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6월 15일 오전 8시경 세수 77세, 법랍 61세로 창원 성흥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일여당 영환 대종사의 49재는 6월 21일 초재를 시작으로 28일 2재, 7월 5일 3재, 12일 4재는 창원 성흥사에서 봉행된다. 19일 5재와 26일 6재는 김해 흥부암에서 엄수되며 막재는 8월 2일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태고종 세종충남교구 지방종회의원회의

6월 18일 공주 광명사서

태고종 세종충남교구종무원(원장 원철 스님)은 6월 18일 공주 광명사에서 종회의원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이날은 종무회의에서는 세종충남교구종무위원으로 △세종지역 보길 스님 △천안·아산지역 능엄 스님 △공주·아산·예산지역 대성 스님 △홍성·태안·서산·당진지역 지원 스님 △청양·보령·서천지역 천명 스님의 임명을 동의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삼태리마애불 보존 위해 휴양림 정비 필요”

천안 태학사, 마애불 관리 점검
엄기표 문화유산전문위원 조사


삼태리마애불을 점검하고 기념촬영을 한 이정문 의원, 법연 스님, 엄기표 교수(사진 왼쪽부터).

천안 태학사(주지 법연 스님)는 6월 14일 천안시 동남구 소재 삼태리마애불의 보존 및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태학사는 60년 전 삼태리마애불이 보물 지정 당시 명예관리사찰로 지정돼 꾸준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점검에는 천안 태학사 주지 법연 스님, 이정문 국회의원(천안 병), 엄기표 단국대 교수(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전문위원)이 참여했다.

마애불의 상태를 살핀 엄기표 교수는 “주위 조성된 휴양림이 차단한 햇빛과 그로 인한 습기가 형성돼 이끼가 형성되고 탈락되는 것이 확인했다”며 “주변의 휴양림을 정비해 마애불에 그늘을 줄이는 등 마애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주변 경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연 스님은 “마애불은 오래전엔 태학산 밑에서도 잘 보여 근동의 주민들이 예경하는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높게 자란 나무들로 인하여 친견하기 힘들어졌다”면서 “태학산 휴양림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더불어 불교문화유산인 삼태리 마애불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사회복지법인 혜원, 제27회 혜원백일장

6월 16일 혜원정사 일원서



사회복지법인 혜원(대표이사 원허 스님)은 6월 15일 혜원정사 경내에서 ‘제27회 혜원백일장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사회복지법인 혜원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예 창작 재능을 발휘하고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매년 백일장을 개최하고 있다.

대표이사 원허 스님은 “평소 내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고 진솔하게 잘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진여원, 제26회 진여호국영령위령재

6월 14일, 화명동 현충공원서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은 6월 14일 화명동 신도시 현충공원 내 호국추모탑에서 제26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봉행했다.〈사진〉

조계종 전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호국영령 당신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후대에 길이 길이 보전되기를 저희들은 노력할 것”이라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추도법문을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생명나눔 부산, 제16회 명상걷기대회 성료

6월 16일 부산시민공원 일원서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 이하 부산생명나눔)가 6월 16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제16회 희망세상만들기 생명나눔 명상걷기대회’를 개최했다.〈사진〉

부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생명나눔은 장기기증의 의미와 생명 존중을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알려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 충북포교사단 분야별 연수회

6월 16일 능인교육관서



조계종 포교사단 충북지역단(단장 신학균)은 6월 16일 법주사 능인교육관에서 분야별 연수회를 개최했다.〈사진〉

입재식에는 법주사 사리각 장산 스님, 포교국장 보적 스님을 비롯해 신학균 충북지역단장과 120여 회원들이 동참했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장산 스님의 법문과 하용수 부단장의 리플레이 특강, 충북지역단 군포교1팀과 남부지역봉사1팀 등이 각각 활동사례를 발표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부산불교연합회, ‘부산연등회 평가회’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가 6월 19일 더스타뷔페 시그너스홀에서 ‘2568부산연등회 실무자 평가회’를 개최했다.〈사진〉

평가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석산 스님을 비롯해 사무부총장 정수 스님, 동암 스님 등 부산불교연합회 집행부 스님들과 각 신행단체 및 사찰 실무자가 동참했다.

사무총장 석산 스님은 “앞으로 부산불교가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해가야 할지 함께 생각하고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진주 약사정사, 지역 어르신 도시락 나눔

무료 도시락 200여 개 전달



진주 약사정사(주지 진여 스님)가 6월 16일 진주 상봉동 일원에서 지역 어르신 위한 무료 도시락 나눔을 전개했다.〈사진〉

사회복지법인 원명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진여 스님을 비롯한 신도들은 무료 도시락 200여 개를 마련해 전달했다. 약사정사 진여 스님은 “어르신들의 노후가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다”며 “마음에 따라 극락도 만들어진다. 부처님의 법을 따라 마음의 평안을 찾고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종 78주년 법화종 "종도 단결·협력" 발원

6월 15일 대전 청사서 기념법회
종단 주요기관장 등 50여 명 참석
종정스님 "진정한 정상화" 당부해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법화종 총무원은 6월 15일 대전 총무원 청사에서 '창종 7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화종 창종 78주년 기념법회는 대전 총무원 청사에서 종도의 단결과 협력을 통해 종단 발전을 발원하는 법석이었다. 종단 방침에 따라 규모는 예년보다 축소됐지만 종정 도선 스님, 총무원장 관효 스님을 비롯한 종단 기관장과 전국 지역교구원장 스님을 비롯한 주요소임자 스님들이 한자리에 결집했다.

법화종 총무원(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6월 15일 대전 총무원 청사에서 '창종 7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도선 스님과 총무원장 관효 스님, 원로원 의장 보명 스님, 부의장 근파 스님, 의원 혜각 스님, 진덕 스님, 진파 스님, 중앙종회의장 서안 스님과 의원 도광 스님 외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참석했다.

전국 지역교구에서도 부산교구종무원장 법경 스님과 경북교구종무원장 해월 스님, 충북교구종무원장 지성 스님, 강원교구종무원장 승일 스님과 교구종회의장 지우 스님, 마산교구종무원장 현진 스님, 김창교구종무원장 송열 스님, 경주교구종무원장 혜문 스님, 전라교구종무원장 정각 스님과 소임자 스님들, 또 직할교구를 비롯한 각 사암 주지 스님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종정 도선 스님은 "우리 종단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총본산을 지켜냈고, 해종세력을 몰아내는 등 정상화를 일궜지만, 여전히 진정한 정상화는 멀고도 멀다"며 "진정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과거 잘못을 고쳐야 한다. 소수가 아닌 종도 모두의 협력으로 진정한 정상화를 완성하자"고 재차 당부했다.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지난 2년 해종세력을 완전히 정리하고 종단 정상화는 이뤘지만 그들의 파렴치한 불법행위들이 작은 불씨들로 남아 종단 재정을 궁핍하게 만드는 어려움이 되고 있다"며 "보상이 없어도 미래의 희망으로 다져온 애종심도 여전히 도출되지 않은 결과에 지쳐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스님은 이날 종도에게 4가지 집행부의 다짐을 전하며 "집행부와 주요소임자들이 조금 더 인내하고 정진해 지난 2년간 속도를 내지 못했던 정책들을 실현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4가지 다짐은 △화합과 단결 △포교와 교육 강화 △효율적인 종무행정 △총본산 안정사의 재건 등이다. 스님은 이러한 과제를 이뤄내기 위해 종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

표창패와 위촉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관효 스님은 종단 정상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치하해 강원교구원장 승일 스님과 경북교구원장 해월 스님에게 표창패를 전달했다. 이어 비구니회 준비위원장 현진 스님과 교구종무원장협의회장 법경 스님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한편 법화종은 11월 본종 종조 의천국사 다례재에 기하여 통일가사 점안법회를 봉행할 방침이다.

"대종사 강조한 목우가풍 선양 힘쓰겠다"

조계총림 송광사 남은당 현봉 대종사 49재 봉행

6월 18일…2000여 명 동참
"부단히 정진하겠다" 다짐


조계총림 방장 남은당 현봉 대종사의 49재에는 2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추모했다.

목우가풍(牧牛家風)으로 조계총림 사부대중의 수행을 이끌다 올해 5월 1일 원적에 든 조계총림 방장 남은당 현봉 대종사의 49재가 6월 18일 조계종 제21교구본사 송광사에서 봉행됐다.

전국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49재는 대종 5타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대중 삼배, 생전육성 청취, 추모입정, 종사영반, 헌향, 헌공, 헌다, 헌화, 조사, 추모사, 주지스님 인사말, 문도대표 인사말, 음성공양, 대중삼배, 사홍서원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은 조사를 통해 "남은당 현봉 대종사는 행자에게도 도반이었고 학인 납자에게도 도반이며 조계총림을 찾는 모든 이를 도반의 마음으로 맞이한 만인의 도반이자 스승이었다"며 "대종사께서는 이사불이 귀재원융의 삶 그 자체였기에 스님이 가신 뒷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고 회고했다.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 스님도 "이 자리에 오기 전 스님이 복원하신 광원암을 둘러보고 선교의 행으로서 법답게 흐트러짐 없이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은 열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를 만들어준 남은당 현봉 스님의 그 깊은 뜻을 새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광사 이경연 신도회장은 추모사에서 "스님은 이제 저희 곁을 떠나셨지만, 예나 지금이나 조계산 계곡의 물은 흐르고 계절마다 피고지는 꽃처럼 그 가르침은 영원할 것"이라며 "이제 슬픔의 눈물은 거두고 당장 스님의 환한 미소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은 "비록 방장스님께서는 적멸에 드셨지만, 오늘 49재에 운집한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스님께서 그렇게도 강조하시던 보조국사 목우가풍을 선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일붕존자 가르침 이어 희망 법음 전하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존자 제28주기 추모다례재

전국 종도 300여명 운집
각지에서 추모동참 후원도



"우리들의 큰 스승이신 일붕존자께서는 세계불교법왕청 설립을 제안하시고 세계불교초대법왕으로 봉대받아 불교사에 길이 남길 업적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이어 일붕선교종 전 종도는 불교포교와 중흥, 그리고 인류에 구원과 희망의 법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 나갑시다."

세계 곳곳에서 불교포교에 전념한 세계초대법왕 일붕존사 서경보 스님의 제28주기 추모다례재가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본산인 서울 일붕선원에서 열렸다.〈사진〉

일붕선교종(총무원장 혜일 스님)이 6월 14일 개최한 제28주기 추모다례재에는 종정 대륜 스님, 총무원장 혜일 스님, 종회의장 도정 스님, 호계원장 동청 스님, 교육원장 지언 스님, 재단이사장 일명 스님, 원로의원 경원 스님 등 300여 종도가 함께해 일붕존자의 가르침을 기렸다.

종정 대륜 스님은 "미국에서 한국스님으로 최초로 설법하신 일붕 서경보 스님을 본받아 종도들이 더욱 노력해 불법을 널리 펴고 보다 많은 중생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자. 종단의 소임을 맡은 스님들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아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혜일 스님은 "바쁜 일정에도 동참해주신 원로 대덕스님들과 사부대중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전 종도는 힘을 모아 개종조이신 큰스님의 뜻과 정신을 계승하고 계속 발전시켜 전 인류에게 구원과 희망의 법음을 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법인 일붕선교종은 9월 23일과 24일 천안 아산연수원에서 '종도 하계연수'를 열고 종단 역량을 결집시킬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창원 구룡사 우담바라합창단 정기연주회

6월 15일 성산아트홀 소극장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제로



통도사 창원포교당 구룡사(주지 무성 스님) 우담바라합창단이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사진〉

6월 15일 창원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열린 정기연주회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주제로 찬불가, 불교무용, 난타장구를 선보였다. 또 퓨전 국악팀 '가이야'의 공연과 BTN불교TV 남성중창단이 찬조 출연해 음악회의 품격을 한층 더 높였다.

우담바라합창단은 추현철 지휘자와 임태린 피아노 연주자의 반주에 맞춰 풍경소리, 부처님의 진리길, 마음고요 등의 찬불가를 연주했다. 또 우담바라합창단의 난타 장구 탑돌이, 몰라몰라, 귀의하는 마음을 연주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통도사 창원 포교당 주지 무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찬불가는 음악으로써 부처님을 예경하고 찬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음성공양을 통한 불교 포교의 한 방편"이라며 "구룡사 우담바라합창단의 음성은 듣는 이로 하여금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예술로 승화시킨 법음"이라고 격려했다.

전영숙 우담바라합창단장도 "정기연주회의 주제인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사랑을 나누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공감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안아주고, 기쁨을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밀양 삼봉사 삼존불 개금점안법회

6월 15일, 경내 대웅전서



밀양 삼봉사(주지 녹원 스님.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는 6월 15일 경내 대웅전 삼존불 개금불사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삼봉사 신도회 정경선 거사가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거룩하신 불보살의 가피로, 사부대중 모두가 지극한 신심과 원력행으로 세간의 복락을 성취하고, 중도실상의 도리를 체득해 지극한 복락 증득을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존불 개금불사에 공로가 큰 정현규·정경상·이상복·유소희·한지창·황정민·정금순 불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삼봉사 주지 녹원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삼봉사 삼존불 개금불사 점안법회를 통해 동참한 인연공덕으로 종도들은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희망과 감동을 주는 종단으로 그 위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러한 모습은 만 중생의 복전이 되어 불교중흥을 이루어내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일붕문도중앙회, 일붕존자 추모법회

일붕평화대상에 대우 스님 수상



세계법왕 일붕 서경보 스님의 탄신 110주년 및 원적 28주기를 맞아 추모대법회가 열렸다.〈사진〉

세계법왕 일붕문도중앙회(문장 혜운 스님)는 6월 14일 의령 봉황대 일붕사에서 '세계법왕 일붕 존자 탄신 110주년 및 원적 28주기 추모대법회'를 봉행했다.

문장 혜운 스님(일붕사 회주)은 "봉황대 일붕사는 일붕 존자님께서 생전에 자주 오셔서 기도했던 일붕 존자의 성지도량으로, 2018년에 일붕 존자님 법보대전을 개관하고 일붕 존자님 유품 보관하고 있다"며 "일붕 존자의 흔적과 사상을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제자의 한 사람으로써 긍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 월인 스님과 배경화 이사장 등 일붕문도회 발전에 수고한 스님들에 대한 공로패가 전달됐다. 일붕평화대상에는 승려시인으로 유명한 내장사 회주 대우 스님이 수상했다. 혜명 스님 등 일붕문도회 지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이어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교종단총연합진흥회, 호국영령 위령재

6월 17일 국립현충원서 봉행



(사)한국불교종단총연합진흥회(이사장 연화 스님)는 6월 17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순국선열 및 전몰군경 등 호국영령들을 위한 합동위령재를 개최했다.〈사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열린 이날 합동위령재는 (사)한국불교종단총연합진흥회가 주최, 세계불교승왕청, 대한호국불교승병단, CBS108TV연합불교방송이 공동주관했다.

합동위령재에는 한국불교종단총연합진흥회 이사장이자 세계불교승왕청 종정 연화 스님을 비롯해 한국불교종단총연합진흥회 회장 법성 스님, 부회장 법붕 스님, 원로위원 효진 스님, 운영위원장 소운 스님, 사무총장 월암 스님 등 스님들과 칠불회, 월남참전국가유공자원로회, 고려다도회, 전국의용소방연합, 나라사랑국민연합, 국조선무회, 일월무연구회, (사)한국민속예술연구원 등에서 온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연화 스님은 "바쁜 와중에도 함께 해주신 월남전참전 유공자 및 유가족들을 비롯해서 소방지원자 등 사회 곳곳의 시민들에게 감사하다.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이 호국영령의 왕생극락에 마음을 모아달라"고 격려사에서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전북불교대학 한마음단합대회 개최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열려



전북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김인석)가 동문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한마음 단합대회를 개최했다.〈사진〉

6월 15일 전주 덕진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한마음 단합대회는 백준기 부처님세상 이사장을 비롯해 광법사 주지 명각 스님, 이창구 전북불교대학장, 이지복 부학장, 김인석 전북불교대학총동문회장, 박팔만 부회장, 장순금 전북불교대학 전법사회장, 송재면 화엄불교대학총동문회장, 국주영은 전북특별자도의회 의장 등 150여 명이 동참했다.

개회식에 이어 몸풀기체조, 가위바위보, 제기차기, 줄다리기, 컵 전달하기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각설이 장훈과 가수 조미량의 공연, 장기자랑과 행운권 추첨으로 동문과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석 총동문회장은 "오직 재가자들의 힘으로 자립해 운영하는 우리 대학의 힘은 동문 여러분의 원력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며 "오늘 단합대회의 주인은 여러분이니 마음 편하게 즐기는 하루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印 불교, 진흥 정책으로 다시 일어서다

동남부 위치 안드라 프라데시주
주도 아마라바티에 행정 집중해
불교유적 중심 도시 브랜드 설정
주지사 임기 첫날부터 예불 드려
불교 정책에 핵심 두겠다는 상징

박영빈 객원기자


아마라바티 사가라 호수공원에 세워진 대불. 사진출처=글루트 닷컴

인도 동남부에 위치한 안드라 프라데시주(Andhra Pradesh)가 최근 불교를 주도인 아마라바티(Amaravati)의 주요한 브랜드로 내세우는 정책을 일으킬 전망이다. 6월 15일, 인도의 '사우스 퍼스트' '글루트 닷컴' 등은 안드라 프라데시주에 부는 새로운 바람에 대해 집중보도했다.

2014년 안드라 프라데시주가 텔랑가나주와 분리되면서 기존의 주도였던 하이데라바드시가 텔랑가나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아마라바티가 안드라 프라데시주의 새로운 주도로 선정됐다. 당시 주지사인 찬드라 바부 나이두는 아마라바티를 주 제일의 도시로 선언하고 모든 행정과 인프라를 집중시켰다. 이때 나이두 주지사는 아마라바티 불교유적군을 주 브랜드로 지정하고 다양한 도시 브랜드 정책을 펼쳤다.

현지 언론들은 "당시 주정부는 일본, 중국 등 불교가 성행한 국가의 투자를 유치하고, 불교라는 소프트 에너지를 이용하여 아마라바티를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정력적으로 펼쳤다"고 전했다.

아마라바티는 아소카왕의 통치기간이었던 기원전 3세기경부터 고대 불교의 중심지였다. 이미 그 당시에 불탑과 불교 사원들이 건립됐으며, 서기 2세기경 사타바하나(Satavahanas) 왕조땐 대승불교의 요람으로 용수보살도 이곳에 머물며 제자들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당시에는 인도와 주변 국가에서 많은 구법승들과 상인들이 이곳에 몰려들어 거대한 국제도시로 번성한 역사를 자랑한다.

특히 아마리바티 불교유적군의 중심에 해당하는 아마라바티 스투파(Amaravati Stupa)는 인도에서 가장 큰 사리탑 중 하나로, 본래 산치대탑보다 더 크고 화려했던 것으로 전한다. 19세기 초 영국 고고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발굴 작업에서 수많은 불교유물들이 출토됐으며 이 유물들의 대다수는 현재 대영박물관의 아마라바티 갤러리에 소장돼있다.

그러나 2019년 주지사 선거에서 나이두 주지사가 재선에 실패하고, 뒤를 이은 자간 모한 레디 주지사는 정치적인 이유로 아마라바티의 국제도시 브랜딩을 포기하면서 불교 진흥정책이 모두 중단됐다. 현지 언론들은 나이두의 재선 실패에 대해 "급진적인 불교 브랜딩이 대중의 반발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레디 주지사의 임기 동안 아마라바티의 인프라가 극도로 낙후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지난 6월 12일 진행된 2024 주지사 총선에서 다시 재선에 성공한 나이두 주지사는 당선 후 주지사 사무실 벽에 걸린 불화에 예배하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불교 진흥 정책을 다시 일으킬 것을 암시했다.

현지 언론들은 "나이두 주지사가 임기 첫날부터 예불을 드리는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불교를 주요 핵심으로 한 정책들이 다시 한 번 펼쳐질 것"이라며 "부처님께서 아마라바티에서 다시 한 번 깨어나셨다"고 평가했다.

泰 스님들, 평화 기원 3000km 미국 도보순례

스님 11명 3월 29일 플로리다 출발
6월 29일 나이아가라 폭포서 회향


세계평화를 위한 도보순례 중인 태국 스님들. 사진출처=더 프레더릭 뉴스 포스트

주황빛 가사를 수한 11명의 태국 스님들이 평화와 축복의 인사말을 전하며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더릭시를 걷고 있다. 6월 11일 미국의 '더 프레더릭 뉴스 포스트'는 세계 평화를 위해 미국 동부 해안선을 따라 도보 순례 중인 스님들을 소개했다.

플로리다 주에 소재한 태국불교 사원인 왓 플로리다 담마람(Wat Florida Dhammaram) 사원의 프라 위짓 담마파니 스님은 "스님들은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올해 3월 29일 플로리다 주의 키웨스트에서 도보 순례를 시작했다. 순례의 마지막 목표는 뉴욕주의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소개했다. 전체 3000Km를 넘는 이 도보순례길에서 스님들은 현재 약 500km만을 남겨두고 있다. 담마파니 스님은 "이 순례는 단순한 걷기가 아니다. 걷는 것이 곧 명상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통해 세계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행선을 통한 순례의 공덕을 설명했다.

순례 중인 스님들은 올해 6월 4일 미국 국회의사당에 있는 플로리다 하원의원 대런 소토 사무실을 방문해 세계 평화를 위해 내면의 평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세계 평화를 위한 걷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매년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며 매년 다른 경로와 다른 목적지로 행진한다. 순례단의 스님들은 네팔,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 태국 등 전 세계 각국에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님들이다.

순례단은 현재 프레더릭시 중심부를 통과했으며 며칠 안에 펜실베니아주로 계속 이동할 계획이다. 오는 6월 25일이나 26일경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도착할 예정이며 6월 29일 나이아가라 폭포 주립공원에서 회향을 위한 법요식을 봉행한다.

지난 3년간 도보순례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프라닛 트릭젠은 "이전 순례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심지어는 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순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트릭젠은 "스님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 다른 도시에서 시간과 경로를 맞춰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통 스님들께 먹거리를 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들이 평화를 위해 걷는 모습을 보고 매우 감동을 받거나 기뻐하는 등 항상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도 밝혔다.

프레더릭시 아시아계 미국인 센터의 전무이사인 엘리자베스 청은 순례단의 도시 방문과 편의를 제공하면서 순례단의 방문을 환영했다. 청 이사는 "세계적으로 전쟁과 갈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세계 평화를 이루려는 노력은 내면의 평화를 강조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스님들의 방문과 도보 순례는 우리 내면의 평화를 성장시킬 수 있는 움직이는 예시"라며 순례단의 방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캄보디아 동자승, 엄마와 눈물의 생이별

해외 이주노동자와 동진 출가 증가
사회 문제로 대두…정부 관심 촉구


동자승 리티(10세)가 태국 이주 노동을 결정한 어머니와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더 프놈펜 포스트

경제적 기회를 찾아 인근 국가로 이주하는 캄보디아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캄보디아 불교 사찰에 맡겨지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14일 캄보디아의 '더 프놈펜 포스트'는 캄보디아의 동자승 증가와 부모의 해외 이주에 대해 보도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동자승과 어머니가 작별하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의 눈시울을 붉혔다. 영상 속 동자승은 니 리티(10세)로 그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태국 이주노동자로 지내고 있으며 어머니도 가계를 위해 태국 이주를 결정하고 사찰에 아이를 맡겼다. 리티 가족의 생이별 소식을 접한 현지 시민사회단체(NGO)는 리티의 어머니에게 캄보디아 내 일자리를 제공해 생이별 걱정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왔다.

캄보디아 세레이 바타나람 사원의 릴 나이 주지스님은 "우리 사원에는 리티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6명의 동자승이 있다. 아이들은 오전에 초등학교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부처님 가르침과 영어를 공부한다. 아이들의 의식주는 불자들의 공양과 보시로 영위하고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다케오 주 네앙차마오 사원도 동진 출가 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 415명의 동자승이 거주하고 있으며 38명이 추가로 출가할 예정이다. 해당 사원의 탄 분송 스님은 "동진출가자 대부분은 고아거나 해외 이주노동자의 자녀이다. 아이들은 낙후된 지역 출신으로 공부할 기회가 없는 가난한 가정의 출신이다. 부모들은 돈벌이를 위해 해외로 떠나며 자녀는 교육과 보육을 위해 사찰로 보낸다. 사실상 사찰은 보육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왕립 아카데미 연구원은 "현대의 캄보디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찰이 희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찰의 부담을 덜어주고 캄보디아 아동 보호를 위해 정부의 담당 부처 출범과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中, '신장의 역사와 미래' 국제포럼

고대 실크로드 거점 모어 사원 발굴 및 연구 공유 목적



사진출처=차이나데일리

지난 6월 11일 중국 일간 영자신문 '중국일보'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카슈가르에서 열린 국제포럼 개막 소식을 전했다. 해당 포럼은 중국 국내외 전문가 170여 명이 모여 '신장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모어사원의 고고학적 발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사진〉 '모어'(mo'er)사원은 올해 4월 발굴된 고대 사원으로 측천무후가 설립한 대운사였을 것으로 추론한다.

시진핑 주석은 "우리를 하나로 모은 이유 중 하나는 모어사원의 발굴과 연구를 공유하기 위함"이라며 "신장의 독특한 역사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실크로드의 마지막 거점인 카슈가르의 고고학 발굴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둔황학원의 닐 슈미드 교수는 둔황 막고굴 98호에서 발굴된 호탄국(우전국)왕 이성천(재위 912~966년)의 초상화 연구를 발표했다.

절강대 석좌교수이자 케임브릿지대 아시아·중동학부 명예교수 임레 갈람보스 교수는 중세 중국어와 탕구트 필사본 연구를 발표했다.

중국 국내외 전문가들이 국제 포럼 폐막 후 추가 연구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신장의 다양한 문화유적지 방문이 예정돼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마음여행 해외성지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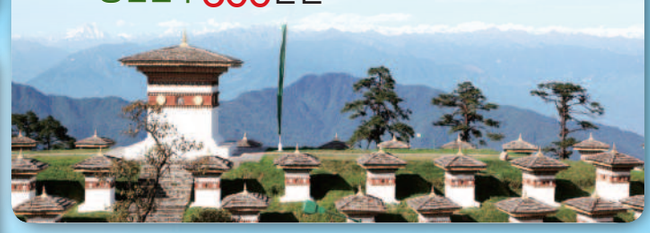
인도,네팔 성지순례
실크로드의 인도성지순례는 깊이 있고 아름다운 순례입니다.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280만원~300만원
▶1차 9월 26일 출발~10월 5일 도착 (10일 일정)
▶2차 10월 20일 출발~10월 29일 도착 (10일 일정)
▶3차 11월 17일 출발~11월 26일 도착 (10일 일정)
▶4차 12월 5일 출발~12월 15일 도착 (11일 일정)
▶5차 1월 4일 출발~ 1월 14일 도착 (11일 일정)
▶6차 1월 9일 출발~ 1월 19일 도착 (11일 일정)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발리 7일
8월 27일 출발~9월 2일 도착(7일간)
세계 7대 불가사의중 하나로 불리우는 보로부두르 대탑은 1,300여 년전 인도네시아에서 불교가 찬란한 빛을 내던 시기에 조성된 세계최대의 불탑으로 부처님의 생애가 462개의 커다란 벽면에 상세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또한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54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을 조성한 화엄경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신들의 섬이라 불리는 발리는 현대문명에 때 묻지 않은 자연의 보고입니다.
동참금 | 269만원

부탄,네팔 성지순례 8일
출발일: 9월 21일~28일(6박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특히 카트만두에서 부탄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좌 중에서 에베레스트를
비롯해서 5개의 봉우리를 볼 수 있는 최상의 코스입니다.
일 정 |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동참금 | 399만원

티베트 성지순례 8일
영혼의 고향이라는 티베트,
그곳에서 불교의 깊이와 신심을 느껴 볼 수 있습니다.
출발일 : 8월 20일~27일
동참금 | 299만원
일 정 | 인천–성도–라싸–갼체–시가체–샤캬–시가체–체탕–삼예–인천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카일라스(수미산)는 신화를 창조하게 된 모티브를 부여해준 신비로운 산으로 불교 경전상의 수미산의 모델로 지칭되는 성지입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성스러움에의 열망과 영감의 근원을 찾아서 순례하는 성산입니다.
출발일정 : 2차 7월 20일~8월 4일(16일간)
3차 8월 24일~9월 8일(16일간)
동참금 | 539만원
일 정 | 일정: 인천–성도–라싸–갼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순례 신청하신 분에게는 티베트 성지순례를 기록한 우주의 중심 카일라스(수미산)책을 드립니다.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韓中 불교회화 정수를 만나다

동국대 · 항저우불학원, 불교회화 교류전 '불법동원' 개막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6월 18일, 교내 문화관 동국갤러리
한·중 작가 35명, 50여 점 선보여
7월 1일까지 진행, 12월 中서 전시
우호 증진 업무협약…공동 연구 등

한국과 중국 불교회화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됐다.

동국대와 항저우불학원은 6월 18일 동국대 문화관 지하 1층 동국갤러리에서 양국의 불교문화 교류·협력을 기원하는 특별전 '불법동원(佛法同源)' 개막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이수예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교수, 항저우불학원 총장 광천 법사, 전시 참여 작가 등이 함께했다.

이번 특별전은 동국대 불교미술전공과 항저우불학원 불교예술전공 간 상호교류 협약 체결을 기념하는 한중 교류전시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조계종, 동국대, 항저우불학원, 절강성불교협회, 영은사, 주한중국대사관이 후원했다.

전시에는 한국작가 18명과 중국작가 17명이 동참해 전통불화, 응용불화 등 총 50여 점을 선보였다. 특히 전통회화 재료만으로 불교 속 여성을 표현한 김현주 작가의 'Buddha-Nature' 등 개성 넘치는 다수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

이수예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교수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교리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불교예술은 지혜와 미학을 담고 있다"며 "이 전시회가 한·중 두 나라의 불교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동국대 총장, 항저우불학원 총장 광천 법사 등 내빈이 작품을 둘러보며 작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전시는 7월 1일까지 이어지며, 올해 12월에는 중국에서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작가들에게 각각 작품에 대한 제작 과정과 해설을 듣고 활동을 격려했다. 돈관 스님은 "불교문화와 예술적 전통을 수호하며 불심으로 정진하는 동국대 불교미술전공과 항저우불학원 예술원 여러분이 주축이 돼 개최하는 이번 전시는 참으로 의미가 깊다"며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문화에는 민족문화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불교미술이 있다. 불교미술 발전을 위해 계속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불교미술은 민족의 예술성을 구현하는 한국문화의 꽃이다. 특히 전통예술 분야와 종교예술 분야에 있어 그 독창성과 감화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며 "이러한 가치와 미덕이 이번 전시에서 잘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정각원장 제정 스님도 특별전 개막을 축하하며 "이번 전시회가 양국 불교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불교예술로 화합하는 평화로운 동북아시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항저우불학원장 광천 법사는 "예술은 국경, 문화, 언어를 초월하는 가교로서 독특한 방식으로 다른 문명 간의 교류와 이해를 촉진한다"며 "이번 전시에서도 두 나라 예술가의 뛰어난 기량과 깊은 사유를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중 문화의 오랜 유산과 독특한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천 법사는 이어 "이번 전시를 계기로 서로의 이해를 증진하고 우정을 더 깊이 형성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항저우불학원은 중국 절강성 항저우에 위치한 불교대학이다. 1998년 광천 스님의 제안과 항저우불교협회의 승인을 받아 항저우불교승가진수반(杭州佛教僧伽進修班)을 설립했다. 2005년 중국 국가종교청의 승인으로 '항저우불학원'으로 개칭됐다.

2010년에는 사찰 경영자와 불교 이론·예술을 연구하는 스님을 양성하기 위해 불교예술원을 설립, 중국 유일의 불교예술을 교육하는 종합 불교대학으로 거듭났다. 불교예술원에는 불교서예, 불교 회화, 불교 조각 등 3개 전공으로 구분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항저우불학원은 현재 한국, 일본, 대만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 관계를 유지에 힘쓰고 있다.

한편, '불법동원' 개막식에 앞서 동국대와 항저우불학원은 동국대 총장실에서 양 기관의 우호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 및 교수 교류 △공동 전시회, 공동 연구 실시 △학술 답사 △장기 혹은 단기 교환 학생 프로그램 △기타 교류 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불교상담학회 제5회 상담학술상 공모

10월 23일까지 논문 제출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가 제5회 '불교상담학술상'을 공모한다.

논문 주제는 '불교상담심리' 및 '불교심리치유'에 관한 자유 주제이다. 응모는 불교상담심리 관련 전공자 혹은, 관련 종사자 모두 가능하다. 논문은 10월 23일까지 학회 이메일(kbca08@hanmail.net)로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다. 단, 이미 발표되었거나 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제외한다.

대상·우수상·장려상 각 1명씩이다. 대상은 300만원, 우수상은 200만원, 장려상은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은 11월 예정이며, 수상작은 한국불교상담학회지 〈불교상담학연구〉에 게재된다.

이번 학술상은 한국불교상담학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금강명상문화원 주관으로 진행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자현 스님 "불교학 대중화 견인하겠다"

한국불교학회 회장 취임법회
후원금 1억 4500만원 모연

제26대 한국불교학회장으로 취임한 자현 스님이 불교학 대중화와 종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불교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자현 스님은 6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동안 불교학 발표 현장은 대중의 관심이 괴리된 부분이 있다. 여성, 낙태 등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와 사회현상과 밀접한 불교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와 함께 조계종 불학연구소, 포교원 포교연구실 등 기관들과 협력을 공고히 하여 출가자 감소와 탈종교화 문제 등도 풀어가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비혼 독신자들이 늘지만 출가자가 줄어드는 것은 소통과 관점의 문제"라며 "한국불교학회가 대중과의 소통 고리가 되는데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현 스님은 취임사에서 대중과의 소통에 불교학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현 스님은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로 있으며 7개 박사학위와 65권의 저서 및 공저, 논문 190여 편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구독자 25만명의 유튜브 '자현 스님의 쏘댕기기'를 운영하며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자현 스님은 한국불교학회장 취임과 함께 학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의 2000만원을 비롯해 월정사에서 5000만원이,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이 2500만원 등 총 1억 4500만원의 후원금이 모연됐다.

취임식에도 포교원장 선업 스님, 교육부장 덕림 스님,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철우 스님, 불광사 주지 동명 스님 등 사부대중 700여 명이 참석하여 행사 이후에도 불교학 발전을 위한 후원에 동참했다.

한편, 자현 스님의 임기는 2026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교수불자들 탈종교시대 해법 모색한다

7월 2~4일 교수불자대회 개최
'한국불교가 가야 할 길' 주제

시대 변화에 맞춘 전법 콘텐츠 개발과 운용으로 포교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상훈·대전대 교수, 교불련)는 7월 2~4일 서울 동국대 일대에서 '탈종교 시대의 종교 정체성과 한국불교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2024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입재식을 시작으로 2박 3일간 열리는 대회에서는 총 20개 학술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특히 첫날은 불교계의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는 '시사 특별세션'이 마련됐다. 특별세션에서는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이 '이승만 정부가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과 그 극복 방안'을, 민순의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연구원이 '불교역사 왜곡 현황과 실태-주어사·천진암을 중심으로'를, 김학로 당진역사문화연구소장이 '천주교 성역화에 가려진 내포지방 민중사'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를 통해 불교 역사 왜곡과 편향 행위에 대해 해법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삼성경제연구원·서울대·KAIST·불교TV 등에서 우주와 자연, 뇌와 생각을 주제로 강연해 온 박문호 美텍사스 A&M대 공학박사의 '인공지능 시대의 탈종교 경향과 한국불교의 정체성' 기조 강연과 사단법인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 초청 자비명상 체험도 준비돼 있다.

'전법'을 중심으로 한 발제도 주목된다. 대회 이튿날 저녁에는 '불교동아리 창립 및 운영 모델 정립을 위한 사례 연구'를 주제로 50여 개 대학 불교동아리 지도법사와 지도교수, 대학생들이 참여해 창립 준비와 운영 과정을 소개한다.

이상훈 교불련 회장은 "탈종교의 새로운 환경을 맞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청년·대학생 전법을 위한 사부대중의 새로운 역할 모색을 통해 탄탄한 불교중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술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700년 고찰 봉국사 불교미술 살피다

한국미술사硏 제62회 학술대회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6월 29일 오후 1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700년의 고찰 봉국사의 불교미술'을 주제로 제62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의 '봉국사 목조석가불좌상의 종합적 연구' 기조발제로 시작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봉국사의 불상, 불화 전반을 살피는 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수완 우석대 교수는 '봉국사 석조약사불좌상의 연구'를, 심주완 불교중앙박물관 행정관은 '봉국사 명부전 지장시왕상 연구'를 발표한다.

봉국사 명부전 지장시왕도에 대해서는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가 연구논문을 발표하며 고승희 동국대 교수가 봉국사 괘불도에 대한 최신 연구에 대해 소개한다. 문무왕 동국대 외래교수는 '봉국사의 역사'를 발표한다.

신중일 기자

석굴암·반구대 기증 사진 400점 추가 공개

강우방 · 故 한석홍 기증 사진
2021년 1차 공개 이후 추가로

원로학자와 문화유산 전문 사진가가 기증한 경주 석굴암과 반구대 암각화를 기록한 사진들이 추가로 공개됐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원장 김연수)은 "원로학자 강우방 씨가 기증한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 108점과 국가유산 사진작가 고(故) 한석홍 씨가 기증한 '경주 석굴암 석굴' 사진 295점을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6월 19일 밝혔다.

연구원은 2019년 강우방 씨 본인과 한석홍 작가의 유족으로부터 평생을 바쳐 활동해 온 개인 소장 기록물 약 7만여 점(강우방 6만여 점, 한석홍 1172점)을 기증받은 바 있다. 이들 기록물은 개인 연구를 위해 촬영한 각종 사진과 필름을 비롯해 해외 유명 전시와 도록, 연구서에 수록된 사진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유산 전문 사진작가 한석흥 씨가 촬영한 석굴암 본존불.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추가로 공개했다.

연구원은 그 중 '경주 석굴암 석굴' 사진 69점을 고화질 디지털로 변환해 2021년 공개했으며, 현재까지 해당 자료의 누적 내려받기(다운로드) 건수는 총 3만 2000회를 넘는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한국문화정보원과 '디지털 전환 구축사업' 협업을 통해 고화질 디지털화를 완료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정·복원을 완료한 사진 약 400여 점이다.

강우방 씨가 1990년대에 촬영한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촬영 사진은 당시 암각화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한석홍 작가의 '경주 석굴암 석굴' 사진은 본존불과 여러 조각상들의 모습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경주 석굴암 석굴' 사진의 경우 2021년에 공개됐던 〈석굴암 그 사진〉(2020) 도록 수록 사진들의 컬러·흑백 촬영본과 추가 보정본을 함께 공개해 학술연구와 자유로운 활용이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이번에 공개되는 기증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에 따라 공공누리 1유형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누구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며 "이번 공개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통도사 佛母 후학들 작품 '한자리에'

통도사 성보博 불화반 전시
7월 7일까지 기획전시실서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진응 스님)이 제14회 불화반 작품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이며 통도사 성보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전시에서는 불화반 수강생들이 출품한 34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석가모니후불탱, 아미타여래불, 문수·보현보살 등 불화반 수강생들이 그린 작품 40여 점과 송판에 불화를 그린 작품 40여 점 등 약 80여 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옻칠 일엽관음', 불화강사 조해종 '8곡 팔금강', 정병국 교수 '미륵삼존', 이승규 '잠발라보살' 등 초대작가의 작품 10점도 감상할 수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불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화폭에 담아 청정세계의 불보살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며,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를 넘어 불교의 세계를 이해하고 종교적 신심을 담아내야 한다. 그렇기에 불모에게 불화는 끊임없는 자기 수행과 정진이 요구된다"며 "그동안 산사에서 마음을 닦으며 우리의 삶과 불교의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 정진해 온 불화반 수강생들의 아름다운 결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작가 성파 대종사 작품 '옻칠 일엽관음(一葉觀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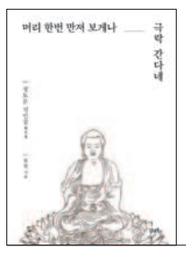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9~6/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늘바라는대로이루고있다:선지식의크신사랑(개정판)	김원수 지음	청우당	6	네가지마음챙기는공부*대념처경과그주석서(초기불전001)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3	이와같이살았으면(무비스님의보현행원품해설)	여천 무비 풀어씀	염화실	8	불교문화와상식(만화불교이야기5)	김정빈/최병용	솔바람
4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개정판)	김원수 지음	청우당	9	윤회(대원불교학술총서15)불교의마음업우주에대한길잡이	로저 잭슨	운주사
5	티베트사자의서(그림으로풀어낸삶과죽음의안내서)	파드마삼바바/장홍스	김영사	10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책세상

선승은 왜 '정토의 종지기' 자처했나



머리 한번 만져 보게나, 극락 간다네
함현 스님 지음
담앤북스/ 1만8000원

평생 참선 매진했던 함현 스님
어느 날, '정토수행 정진' 공표
"아미타불 본원 믿고 염불하면
우리는 모두 극락왕생 이르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나는 공성(空性)의 오두막인 극락정토를 장엄하는 살림꾼, 아미타부처님의 본원(本願)을 깊이 믿고 널리 권하는 정토의 종지기가 될 것입니다."

조계종 종립선원 문경 봉암사 주지를 지낸 함현 스님은 출가 후 참선 수행만을 정진했던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승이다. 그런 스님이 갑자기 '정토행자'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뭇 중생들을 정토신앙으로 이끌 염불수행 지침서를 펴냈다.

정토신앙은 아미타불의 본원(本願)을 믿고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면 내세에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선(禪) 수행을 중시하는 한국불교에서 정토신앙은 오랜 세월 타력신앙 혹은 하근기 수행법으로 치부되어 왔다.

하지만 중국 영명 연수 선사는 "참선만 하고 정토수행을 하지 않으면 열에 아홉이 길을 잃는다"고 경계했고, 운서주굉 스님은 "한결같이 산란하지 않은 마음으로 염불만 하면 그가 지은 공덕의 크고 작음에 따라 결정코 구품연화대에 왕생하리라"고 설했다. 신라 원효 대사 역시 "십념(十念)의 염불로도 극락에 왕생한다"는 가르침을 전하는 등 역대 동아시아의 수많은 선승들은 염불수행을 병행해 왔다.



2022년 펴낸 책의 증보판인 〈머리 한번 만져 보게나, 극락 간다네〉에서 함현 스님은 참선이 아닌 염불수행에 매진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스님은 "정토법문은 그 실천이 쉽고 일상적이기에 이 시대의 삶들에게 크나큰 위안과 은혜로운 빛을 주는 최적의 법문"이라며 "물러남 없는 신심으로 앉으나 서나 오직 아미타불만을 염(念)하면 생각이 아미타불이 되어, 붉은 지혜의 해가 솟아올라 보배나무와 보배 연못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연한 각오를 이 같이 밝힌다.

"이보게 함현!/ 이제 머리나 한번 만져 보세나./ 머리를 돌려 스스로를 보아야 하네./ 눈빛을 되돌려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네./ 그래야 출가의 첫 뜻을 저버리지 않고/ 진정으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지 않겠는가."

– 1장 함현자계(涵玄自戒)
'머리 한번 만져 보게나' 중에서

스님의 책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1장 '함현자계(涵玄自戒)'에는 함현 스님이 부처님께 올린 참회·발원문과 아미타불 게송이 담겨 있다. 출가의 첫 뜻을 버리지 말자는 다짐과 그간의 수행에 대한 냉철한 성찰, 염불하고 염불해 긴 윤회의 굴택을 벗어나고자 하는 비상한 각오를 읽을 수 있다.

2장 '연문수경(蓮門手鏡)'과 3장 '권수정토문(勸修淨土文)'에서는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의 '정토삼부경'과 〈여산연종보감〉 〈삼시계념의범〉 〈십주비바사론〉 등 정토문헌, 운서주굉·영명연수·중봉명본·원효 등 선지식들의 어록에서 찾아낸 정토문 성언(聖言)을 소개한다. 더불어 염불수행 방법, 염불의 공덕, 염불행자의 마음가짐, 정토수행의 바른 길 등을 제시한다. 부록으로는 정토신앙과 실천의 연원을 밝힌 논문 두 편을 실어 염불과 정토수행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지난 40여 년간 올곧은 선승의 본분을 지켰던 함현 스님이 이젠 정토행자의 길 위에 섰다.

그렇기에 스님은 시작도 끝도 없이 언제나 지금으로 흐르는 극락세계 아미타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실감한다. 이는 물러남 없는 신심으로 오직 아미타불만을 염하기에 가능하다.

"생각 생각이 아미타불이 되어, 아미타불 밖에 이 마음이 없고, 이 마음 밖에 아미타불이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백만 리 번뇌의 구름이 홀연히 사라지면, 붉은 지혜의 해가 솟아올라 보배나무와 보배 연못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저자 **함현 스님**은?

속리산 법주사에서 월암당 이두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송광사, 백양사, 극락선원, 대승사, 동화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종립특별선원 문경 봉암사 주지, 지리산 선화사 주지를 역임했다. 북한산 도솔원에서 수행정진을 마치고 현재 충청북도 청주 관음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시대·지역별 대장경 변천 살피다



새로 쓰는 대장경의 성립과 변천
교토불교각종학교연합회 지음
박용진 · 최종남 번역/ 운주사/ 2만5000원

〈새로 쓰는 대장경의 성립과 변천〉의 출간 역사는 좀 길다. 교토불교각종학교연합회(京都佛教各宗學校連合會)는 창립 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류코쿠대학(龍谷大學)이 중심이 되어 〈대장경(大藏經)-성립과 변천(成立と變遷)〉(1964)을 출간했다. 이는 당시 불교학계 전체에서 처음 발표된 대장경 관련 연구 전문 서적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연합회에서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신편(新編) 대장경-성립과 변천〉의 출판을 기획하고, 크게 진전한 최신의 대장경 연구를 기반으로 해 2020년 12월에 간행했다.

이렇게 대장경에 대한 총체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이 이번에 불교문헌 연구의 전문가인 최종남 교수와 박용진 교수에 의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다. 이로써 인도에서의 불교경전 성립에서부터 각지로의 전래, 그리고 그 각 지역에서의 불교경전 수용과 변용의 전체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이 책은 인도에서의 불교경전 성립부터 각 나라로의 전래, 각 지역에서의 경전 수용과 번역 과정에 대해 고찰해 불교학 연구에 있어 탄탄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몸·마음 작용 유식으로 보다



유식학으로 보는 몸과 마음
안환기 지음
운주사/ 2만 3000원

인간의 삶 속에서 건강한 '정서(emotion)'와 '인지(cognition)' 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감정 곧 정서를 건강하게 표출하고, 제대로 된 사고 작용(인지작용)을 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 또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가 몸과 마음의 관계를 중심으로 심리학, 생리학, 인지과학, 뇌과학 등에서 꾸준히 진행돼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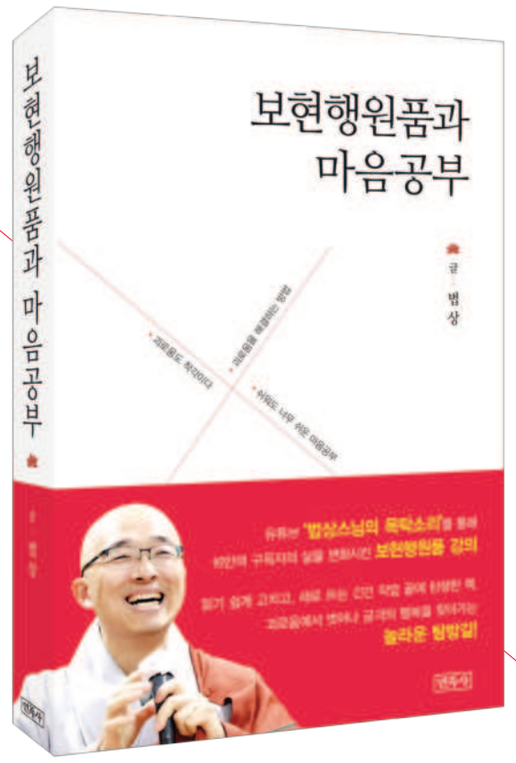
〈유식학으로 보는 몸과 마음〉은 '정서'와 '인지' 작용을 대승불교 유식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유식학은 고대 인도의 수행자들이 마음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체계적으로 만든 것으로서 중관학과 더불어 대승불교의 큰 흐름을 형성했다.

이 책은 유식에서 마음의 양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100가지로 분석하고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한 5위100법을 현대어로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 학문인 심리학 및 뇌과학의 개념과 비교·분석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정서'와 '인지' 작용에 대한 유식학의 사상들을 세밀하게 분석해 현대어로 풀어 해석함과 더불어 이를 현대인과 친숙한 서양 심리학과 비교하여 재조명한다. 신중일 기자

억지로 실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행복의 여정으로 안내하는 법상 스님의 말씀을 통해
저절로 공명하고, 감동하면서 체화될 것이다.



『화엄경』「보현행원품」은 생활 속에서
마음공부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경전입니다.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쉽고도 직접적인 가르침을 전합니다.
매우 깊은 불교의 가르침을 이토록 쉬운 방식으로
실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법상 스님의 머리말–



•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 •
• 불변증을 통한 마음공부 •

보현행원품과 마음공부 | 글 법상 | 432쪽 | 23,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위기의 현대 인류, 사람답게 변모해야”



진짜 나를 찾아라
법정 스님 지음
샘터 펴냄/ 1만8천원

법정 스님 육성 강연 책으로 엮어
입적 14년 만에 처음 대중에 공개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과 위로 담겨
맑고 향기롭게 창립 30주년 기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무소유’라는 단 세 글자로 한 시대를 깨웠던 법정 스님(1932~2010·사진). 스님의 또 다른 이름 ‘무소유’는 종교와 세대, 이념 등 많은 경계를 넘어선 어른의 ‘말씀’이었다. 스님이 입적한 지 14년이 흐른 지금도 대중은 한 시대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그 문장들로 스님을 기억하고 있다. 더 이상 스님의 새로운 문장을 볼 수 없는 오늘, 그 아쉬움을 달래줄 책이 나왔다. 스님의 생전 육성 강연을 글로 풀어 엮은 〈진짜 나를 찾아라〉이다.

책은 샘터가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발간했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이 1994년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라는 실천 덕목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책 〈진짜 나를 찾아라〉는 법정 스님이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부산, 춘천, 대구, 창원, 광주, 청도 등 전국에서 진행했던 강연을 글로 풀어 엮은 것이다. 이번에 소개되는 책 속의 강연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늘날처럼 사람의 가치가 추락한 때가 있었는지 생각해보곤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처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답게 변모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변모한다는 것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기 변혁을 통해 거듭거듭 스스로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스님이 발표했던 문학은 선지식의 깊은 사유에서 비롯된 가르침이라는 가치와 더불어 스님만의 ‘글맛’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대중에겐 큰 즐거움이었다. 그간의 저서들이 스님의 그런 글맛을 느끼고 즐길 수 있었던 것이었다면 이번에 출간된 〈진짜 나를 찾아라〉는 법정 스님의 ‘말맛’을 경험하는 책이다. 스님의 말맛은 스님의 글맛 못지않다는 것이 이번 책의 이유다.

스님의 강연은 말이자 글이다. 그대로 받아적으면 훌륭한 한 편의 글이 된다. 교훈과 유머, 위로와 격려까지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 책을 읽다보면 나지막이, 때로는 격하게 말씀하시는 법정 스님의 생생한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더구나 강연 내용이 20~30년 전의 말씀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의 대중에게도 크나큰 가르침과 위안을 준다. 어쩌면 점점 더 진짜 나의 모습을 잃고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준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시간이나 공간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법정 스님은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른다.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근원적인 물음 앞에 마주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아성찰을 위한 고독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

책 〈진짜 나를 찾아라〉는 인간, 삶의 본질, 시대의 어려움, 선(禪), 불법(佛法), 인간과 자연의 관계, 환경, 인연, 가족의 의미 등 여러 방편들로 한 시대의 대중을 다시 깨운다.

책 〈진짜 나를 찾아라〉는 AI(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또 다른 인류를 낳은 오늘의 인류에게 난초 두 분에서 시작된 ‘무소유’라는 사유의 아포리즘이 여전히 유의미한 가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여전한 가치를 삶 속 깊이 들여놓지 못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스님의 육성은 또 한 번 경책의 죽비로 다가온다.

기도, 왜 하는 걸까?



기도의 이유
중현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펴냄/ 2만2천원

기도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부터
기도의 핵심, 〈천수경〉 해설 다뤄
지식 · 정보보다 핵심적 개념 소개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사찰에서는 많은 불자들이 관음기도, 신중기도, 수능기도 등 다양한 기도를 하고 있다. 기도, 왜 하는 것일까.

책 〈기도의 이유〉는 기도를 하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부터 불교 기도의 핵심 요소, 기도하거나 불공을 드릴 때 가장 많이 독송하는 〈천수경〉의 해설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관음기도 등 불교 속의 기도는 물론, 민간신앙과 결합된 칠성기도, 산신기도 등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책은 불자들이 일상적인 신행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기보다 불교의 핵심사상에 입각해 자기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소소한 지식이나 정보보다 핵심적인 개념을 소개한다.

저자 중현 스님은 “이 책을 읽다보면 자신과 주변의 이익만을 위해 기도하던 순간을 뛰어넘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잠재우고,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으로서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1장 ‘우리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에서는 고통과 불안을 피할 수 없는 중생들의 삶을 살펴본다.

2장 ‘종교적 믿음과 불교의 믿음’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기존 종교의 위상을 다루고, 이어서 믿음을 종교적 신앙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하게 이해한다.

3장 ‘〈천수경〉 해설 – 귀의, 참회, 발원은 기도의 모든 것’에서는 〈천수경〉을 해설한다. 〈천수경〉의 특징을 살펴보고, ‘찬탄 – 귀의 – 주력 – 참회 – 발원’으로 이어지는 〈천수경〉의 기본 구성이 지닌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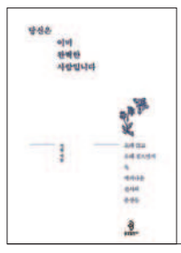
4장 ‘불교의 기도와 수행’에서는 불교에서의 기도, 예불, 불공이 결국 모두 수행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5장 ‘이런 기도 저런 기도’에서는 관음기도, 아미타기도, 신중기도 등 다양한 기도에 대해 알아본다.

6장 ‘불교와 민간 신앙’에서는 산신신앙, 칠성신앙 등 불교 속으로 들어온 민간신앙들에 대해 살펴본다.

중현 스님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는 여전히 전통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불교가 일상화되려면 우선 불자들의 일상 속에 불교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가고, 불자들의 삶에 불교의 수행이 녹아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불교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비로소 우리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재완 기자

지혜 필요한 순간에 만나는 선사의 문장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입니다
지범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펴냄/ 1만7천원

“요즘 너무 많은 지식과 정보가 흘러넘친다. 그러한 정보가 기회와 지혜를 충만하게 제공해줄 것 같지만, 오히려 혼란스러움만 부추긴다. 이런 혼란과 혼돈 속에서는 오히려 내 안에 정답이 있다.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우고 익혔던 모든 인식과 업을 내려놓고, 내면의 울림에서 맑고 청량한 나를 만나야 한다.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고,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며, 충분히 완벽한 사람이다.”

세상은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지만 각자의 삶이 세상의 속도와 똑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속도의 차이에서 개인의 고민은 깊어진다. 세상의 속도에서 멀어지는 자신을 바라보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겪어야 하는 힘겨움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다.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다.

지범 스님의 수필집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입니다〉는 스님이 직접 경험하고 체득한 지혜의 문장으로 가득하다.

1장은 스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치열했던 삶의 기록, 2장은 흥미롭고 감동적으로 펼쳐지는 선가의 이야기, 3장은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진리의 가르침, 4장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깨달음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책은 지범 스님이 펼쳐놓은 따뜻한 이불 같은 수필집이다. 어느 글을 골라 읽어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다시 힘차게 살아갈 용기를 불어넣어준다. 이사(理事)를 겸비한 스님만의 탁월한 안목과 포용력이 고단한 삶에 지혜의 빛을 밝혀준다.

지범 스님이 담백하게 풀어놓는 이야기 속으로 빠지다 보면, 어느덧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지혜에 다가가게 된다. 세상살이가 한결 쉬워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그렇게 모자라고 불편하게 느껴졌던 자신이 어느덧 든든하고 대견스럽게 느껴진다. 여기까지 잘 견디며 꿋꿋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나 자신이 이미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도 놓치지 않으면 될 뿐이다.

지범 스님은 말한다. “아직도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본래 완벽한 부처이다. 새가 나무에 앉을 때 나뭇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오직 자신의 날개를 믿을 뿐이다.” 박재완 기자



대장경 연구에 대한 독보적인 책!
새로 쓰는 대장경의 성립과 변천
인도에서의 불교경전 성립에서부터 티베트, 중국, 한반도, 일본으로의 전래와 그들 지역에서의 경전 수용과 번역, 변용의 과정을 상세하게 고찰하였다!
교토불교각종학교연합회 편/박용진 · 최종남 역/신국판/388쪽/값 25,000원

마음에 관한 가장 깊고 치밀한 탐구!
유식학으로 보는 몸과 마음
현대 심리학의 개념인 인간의 ‘정서’와 ‘인지’를 유식학의 관점에서 논하고, 나아가 양자를 비교 분석하여 몸과 마음의 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안환기 지음/신국판/340쪽/값 23,000원

‘클래식’과 ‘불교’를 융합하는 독창적 시도!
클래식, 경계를 넘어
‘보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클래식과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는 붓다의 가르침이 만나 엮어내는 심포니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과 행복으로 이끌어준다!
김준희 지음/국판변형/240쪽/값 20,000원/자유문고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지상백고좌

서울 도안사 회주 선묵 혜자 대종사

“기도하고 수행하라…삶이 행복해진다”



선묵 혜자 대종사는… 1964년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통도사 강원에서 경학을 연찬하고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수료했다. 서울 도선사 주지와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 사서실장, 불교신문 사장, 중앙종회의원, 군종특별교구장 등을 역임했다. 2006년 ‘108산사순례기도회’를 결성한 뒤 현대한국불교사에 전무후무한 불교신행문화를 이끌었다. 서울 도안사 회주로서 지금도 대중들과 함께 기도정진하고 있다.

충북 충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자란 어린 소년은 스님이 된 사촌 형님의 추천으로 수행자의 길에 나섰다. 부모님 곁을 떠나 절로 가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스님이 되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설레는 마음도 컸다.

버스와 기차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서울은 엄청났다. 전에 보지 못한 도시 풍경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서울에 도착해 또 버스를 몇 번 더 탄 끝에 삼각산 도선사에 도착했다. 1964년의 일이다.

곧바로 행자생활이 시작됐다. 행자를 잘하면 ‘도인(道人)’을 만날 수 있다는 선배스님들의 격려에 힘을 냈지만 고된 생활에 수시로 코피를 쏟았다. 밥 짓고, 밭 매고, 나무를 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저물었다. 녹초가 되어 새우잠을 자고 나면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부모님이 그리워졌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팔만사천 번씩 들었다.

어린 나이에 출가한 행자가 안쓰러웠는지 ‘도인’ 은사스님은 격려 법문을 자주 해줬다. 특히나 〈부모은중경〉에 대한 말씀은 가슴으로 다가왔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공부에 집중했다.

환갑이 넘은 은사스님은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예불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어린 제자에게 “어서 일어나 예불 올리자. 부처님 밥 먹고 부처님 제자 되려면 조석예불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가끔씩 공양으로 올라온 과일을 남겨 어린 행자가 먹을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행에 있어서는 좀처럼 틈을 주지 않았다. “모름지기 수행자가 먹는 죽이란 하늘이 보이고 별이 보일 정도가 돼야 한다”고 시주밥의 은혜를 누차 강조하기도 했다.

행자생활이 익숙해질 즈음부터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 은사스님에게 참선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참선하고 싶은 이놈이 누구인고? 그걸 찾아라”고 했다. 어디엔가 있을 ‘이놈’을 찾기 위해 공부하고 또 공부했다.

그렇게 수행하고 정진한 어린 행자는 어느덧 출가 60년을 맞이했고 한국불교 신행 문화의 역사를 바꿔놨다. 사람들이 “순례문화는 선묵 혜자 대종사 전과 후로 나뉜다”고 입을 모을 정도다.

어린 행자를 올곧은 수행자로 키워내기 위해 진력한 그 스승은 현대 한국불교의 중흥조로 존경받는 청담 스님. 설명이 필요 없는 선지식이다.

법을 구하는 피안처, 道安寺

수락산이 봄을 내려 보내고 여름을 맞이할 즈음 도안사(道安寺)를 찾았다. 아침부터 세찬 비가 내렸지만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불자들의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워 보였다. 가파른 길을 헐떡거리며 올라가니 이미 수많은 대중들이 33관음기도를 올리고 있다. 대중들이 기도를 하는 사이 경내를 둘러봤다.

도안사는 선묵 혜자 대종사가 1976년부터 불사를 시작해 대웅전과 미타전, 천불전, 범종각 등을 여법하게 조성했다. ‘108 평화보궁 근본도량’이자 부처님 탄생성지 네팔 룸비니에서 모셔온 ‘평화의 불 시원도량’답게 대한민국 유일의 108산사순례 벽비와 평화의 불 등화대도 있다. 대웅전 바로 옆에는 33관세음보살과 18나한을 모신 일심광명각이 자리 잡고 있다.

불교는 ‘실천’ 중시… 수행정진 기본
기도 · 절 · 참선 등 자기 수행 필요
“정진하면 업장소멸…미래가 달라져”

108산사순례 ‘韓순례문화’ 새장 열어
평화 기원하며 룸비니에 범종 불사도
“부처님 평화 사상, 세계에 전해지길”

‘어리석은 중생은 홀로 있으면 외로워하고, 함께 있으면 귀찮아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수행자는 홀로 있어도 외로워하지 않고, 함께 있어도 귀찮아하지 않는다. 마치, 산봉우리의 소나무가 홀로 있어도 외로워하지 않고, 저 숲의 소나무가 함께 있어도 귀찮아하지 않듯이….’

불자들의 쉼터에 걸린 글귀를 눈에 담고 가슴에 넣었다. 곳곳을 둘러보니 소문대로 도안사는 수많은 대중이 법을 구하는 피안처였다.

오전부터 시작된 관음기도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계속됐다. 매월 둘째 주 금·토·일요일 3일간 진행되는 관음기도에는 연인원 약 1000여 명의 불자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린다. 이날도 400여 명의 대중들이 경내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기도가 끝나고 평화의 불이 봉안된 ‘평화의 진신보탑’ 앞에서 혜자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기도의 모든 과정을 직접 주관했다. 신심(信心)과 원력(願力)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다.

“불교는 실천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든지, 참회의 절을 하든지, 주력이나 염불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도안사에서는 관음기도뿐만 아니라 매월 초하루부터 초삼일까지는 신중기도, 매월 음력 8일에는 약사기도 및 방생, 매월 음력 18일에는 지장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108산사 영상순례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고 뜻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 얼마나 더 노력을 하고 진실되게 열심히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염불로 우리는 나쁜 운명을 좋은 삶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기도정진에 대한 혜자 스님의 관점은 확고했다. 스스로 기도하고 정진해야 보다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한 관음기도는 3년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갖가지 고뇌를 받는 무량 백천만억의 중생이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기도하면 관세음보살님은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원을 들어주시고 모두 성불케 한다’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사에서는 현세에서 괴로움을 겪는 중생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중생의 소리를 마음으로 포용하는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부르며 모시고자 관음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자 스님은 지난해까지 광명진언(光明眞言) 1080독송기도도 진행한 바 있다. 스님은 광명진언 기도에 대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광명진언은 가피를 주시는 부처님의 진언이요, 모든 불보살님의 총주(總呪)이며, 부처님의 대광명으로 모든 소구소망을 얻게 하는 신령한 힘이 있습니다. 원효 대사가 지은 〈안심락도〉에 광명진언을 외우는 소리를 들으면 중생들의 모든 죄가 소멸하고, 무덤이나 혼백 앞에서 108번 외우면 죽음의 주인공이 죄를 벗고 극락왕생하게 되며, 환자 앞에서 1080번 외우면 과거에 의한 질병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원효 대사는 흙모래를 앞에 놓고 광명진언을 108번 외운 뒤, 이 모래를 죽은 자의 시신이나 무덤 위에 뿌려주면 이 흙모래를 맞은 영혼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한다고 하였습니다.

13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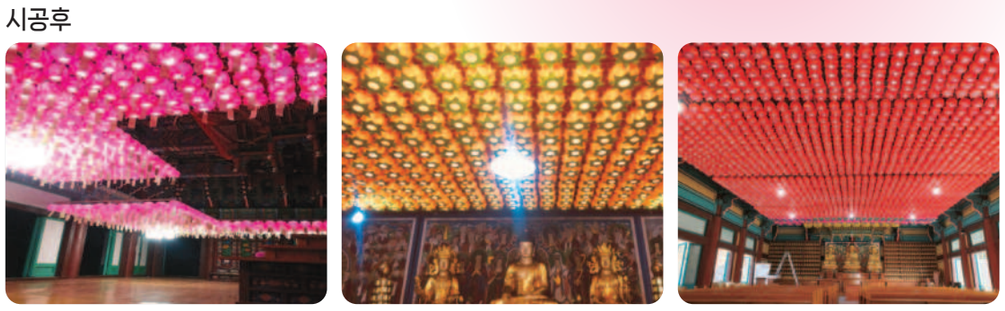
2024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설치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자동 승 하강 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설치하여 연등을 편리하게 위 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비연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칼라연등



황금등



광명연등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 및 안내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

지상백고좌

서울 도안사 회주 선묵 혜자 대종사

“인욕보살 되세요…적이 없어집니다”

12면에 이어

광명진언은 여의주와 같아서 일체 지혜와 행복과 유형무형의 모든 광명을 불러오는 보배의 다라니진언입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광명진언 독송기도도 좋고 관음기도도 좋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시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관세음보살 귀명문’의 구절이 더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향로에 향을 사르니 법계에 향기가 진동하고/ 부처님 회상에 퍼지어 가는 곳마다 상서로운 구름/ 저희 뜻 간절하오니 부처님 강림하옵소서.

역사의 역사가 된 ‘108산사순례’

혜자 스님이 대중들과 함께 기도를 올리는 이유는 자명했다. 기도하고 수행해야 삶을 바꿀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광명기도와 관음기도 전에는 한국불교 순례문화의 역사를 바꾼 108산사 순례와 53기도도량 순례가 있었다.

‘108산사를 찾아 108불공을 올리며 108선행을 통해 108공덕 짓고 108배하며 108번뇌를 소멸하고 108염주를 만들어가는 인연공덕을 쌓아가는 선묵 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는 남북의 평화적 통일과 지구촌은 하나라는 모토와 부처님의 평화사상을 전한다는 취지로 2006년 9월 첫발을 내딛었다. 2015년 10월 9년간의 여정을 마친 뒤에도 2차 108산사순례와 53기도도량순례도 계속됐다.

108산사순례기도회는 서울 도선사와 양산 통도사를 시작으로 매달 5000여 명이 참여해 전국의 사찰을 순례하며 기도와 수행, 나눔과 봉사를 실천했다. 9년 동안 연인원 약 54만명이 동참해 지구를 204바퀴나 돌았고 여기에는 1만 2000여 대의 버스가 동원됐다. 또 순례하는 사찰마다 회원들이 십시일반 쌀을 보시해 총 3000여 가마의 쌀을 공양했고, 군 장병들에게 415만개의 초코파이를 보시했으며, 순례지에서 농어촌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회원들이 30억원 어치의 농특산물을 구매하는 등 각종 진기록을 세웠다.

혜자 스님이 진행한 순례는 ‘혁명’이었고 ‘역사의 역사’가 되었다.

“108산사순례가 ‘바른 마음, 자비로운 실천,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목표에 따라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순례였다면 53기도도량순례는 발원과 기도, 수행이라는 신행·수행문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선지식은 앉은 자리에서는 만나지지 않습니다. 오직 보리심을 발하여 찾아 나설 때만이 비로소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결코 주저앉거나 물러나지 않겠다는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의 발심으로 마침내 성불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정진해야 합니다.

전 총무원장 지관 스님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108산사를 순례하기는 한국불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하시며 저를 격려해주셨습니다. 그 오랜시간 동안 사고 한번 없이 순례를 진행한 것은 많은 대중들이 마음을 모아준 결과이고 또 불보살님들께서 가피를 내려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많은 힘을 받아 순례기도를 진행했고 뒤이어 광명진언기도와 관음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음기도가 끝날 때가 108산사순례 20주년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시는 모든 대중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이룬 성과들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래도 굳이 하나 의미 있는 일을 꼽는다면 지난해 네팔 룸비니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한국의 종’을 세계에 울린 것이다.

룸비니에 조성한 한국의 종은 무게가 1.5t이다. 충북 진천에서 제작해 부산항으로 이운한 뒤 다시 배에 싣고 싱가포르를 거쳐 인도 콜카타로 옮겼다. 콜카타에서 트럭에 싣고 육로를 통해 네팔 룸비니로 오는 데만 꼬박 5일, 총 53일이 걸렸다. 종 이운과정보다 그전 과정은 더 드라마틱했다.



지난해 11월 네팔 룸비니에 조성한 한국의 종을 선혜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타종하고 있는 선묵 혜자 스님.

수행은 기본… 수행돼야 기도도 가능
마음공부 함께 인욕하는 마음 가져야
“인욕하면 더 큰 행복 느낄 수 있어”

“2008년 네팔은 정부군과 반군의 전쟁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해외의 관광객이나 히말라야에 가고 싶은 등산객들도 네팔 방문을 꺼릴 정도였어요. 네팔 정부로서도 여러가지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108산사순례기도회원 300명을 이끌고 전세기를 이용해 룸비니 순례를 갔습니다. 네팔 정부로선 우리 순례기도회가 그저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우리 순례단이 네팔에 머무는 1주일간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는 평화 휴전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우리 순례단의 방문이 협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네팔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네팔 정부는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못해 저에게 룸비니 동산에 있는 땅 2000평을 통 크게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2000평 부지 내에 부처님 탄생불을 모셨습니다. 탄생불의 발바닥에는 인도 쿠시나가르에서 받은 진신사리를 모셨습니다. 탄생불을 조성하고 한국의 종을 바로 조성하려 했는데, 코로나가 찾아와 진행하지 못하다가 작년에서야 한국의 종을 건립했습니다.”

혜자 스님은 “룸비니 동산을 찾는 모든 세계인들이 한국의 종을 칠 수 있도록 개방했다”며 “한국의 종이 룸비니에 울릴 때마다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평화사상이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전해지길 바라고 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갈등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조만간 도안사에 조성된 평화의 진신보탑과 똑같은 탑을 룸비니에도 조성해 성역화 불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마음공부와 忍辱이 필요한 때

수많은 신화를 써낸 스님은 “그래도 수행자의 본분은 수행”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수행이 바탕이 되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불사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청담 스님과의 이야기를 한 구절 들려줬다. 출가하고 세월이 좀 흐른 어느 날 청담 스님이 혜자 스님을 불렀다.

“나는 고등학교 때 길에서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다가 어떤 스님이 ‘마음이 타는 것을 물로 식힐 수는 없다’고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발심해 출가를 했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출가를 했느냐?”

“큰스님! 저는 아직 수행이 부족해서 지금도 그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모르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 깨달음을 구해 보아라.”

청담 스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혜자 스님은 ‘모르는 마음’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정진했다.

“저의 모든 기도와 수행의 여정은 이때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중과 함께하며 저도 성장하고 우리 불자들도 좀 더 성숙한 수행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은사스님께서는 ‘마음’에 대해 ‘이 마음, 생명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 마음은 곧 우주의 핵심이며, 만물의 생명인 것이다. 영원한 실재인 이 생명, 이 마음을 떠나서 어느 곳에 인생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그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인생이며, 문자 그대로 신비이며 무사의(無邪疑)한 이 생명을, 이 마음을, 이 나를 바로만 깨닫고 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모조리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있습니다.”

혜자 스님은 마음공부와 함께 인욕(忍辱)의 중요성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욕을 하게 되면 적이 없습니다. 인욕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인욕을 실천하다 보면 언젠가는 제 은사스님처럼 ‘인욕보살’이 되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더 확신하게 됐다. 혜자 스님이 만든 엄청난 성과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며, 절실한 기도와 수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6월 관음기도의 둘째 날에 이어 마지막 날에도 도안사를 찾았다. 성큼 다가온 초여름의 더위가 괴롭혔지만 대중들의 기도는 여법하고 여법했다.

기도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때 하늘에는 일심광명 무지개가 떠올랐다. 혜자 스님과 같이 기도하고 정진하는 대중들에게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유철주** / 작가

불광출판사·월간 불광

2024 서울국제도서전 참가!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6. 26.(수) - 6. 30.(일)

코엑스 C&D1홀 (부스 번호 I 10)




서울국제도서전은 전국도서전시회로 시작했던
1954년부터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출판사, 저자, 독자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책 축제입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저자와의 만남


아주 오래된 시에서 찾아낸 삶의 해답

일시
6. 27.(목) 2시
원철 스님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일시
6. 28.(금) 2시
원영 스님




전현수 박사의 불교정신치료 강의

일시
6. 30.(일) 2시
전현수 원장



무진 스님의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⑬ 두 번의 기적 열암곡 석불좌상과 마애불상(2)

▶한줄 요약
2007년 열암곡 사지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박소희 · 채무기 연구원이 발견한 열암곡 마애불은 넘어졌음에도 호상이 지면과 5cm정도만 이격돼 있어 '5cm의 기적'으로 불렸다.



넘어진 열암곡 마애불, 다시 세상에 나투다

2010년 발행한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열암곡 석불좌상 보수·정비 보고서'를 보면 열암곡 석불좌상에 있던 전각은 정면은 1.9m이고 측면은 1.8m이다. 열암곡 사지의 금당이라 생각하면 된다. 또한 초석이 남아있는 건물지에서 회랑의 흔적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한국불교 문화유산을 이해할 때 상식 하나. 지금의 한국불교 모든 전각 중앙에는 불상을 모신 불단이 있고, 스님이 불단 앞에 서거나 앉아서 설법한다. 이러한 모습은 빨리 잡아도 고려 중기 이후 선종 사찰에서 시작된 모습이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사찰에는 금당 뒤에 강당이라는 건물을 세워서 스님이 설법을 하였다. 불상 앞에서 스님이 설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8세기 신라에 선종이 들어오고 고려시대가 되면 금당 옆에 법당을 세우기 시작한다. 선종의 스님들은 깨달으면 부처님과 동격의 지위가 주어진다고 생각했기에 금당 옆에 법당을 세워 법을 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찰은 금당 옆에 법당이 있는 여주 고달사가 대표적이다. 고달사는 구산선문 중 하나인 봉림산문의 중심 사찰로, 법당은 빠르면 고려 건국 직후인 10세기 중엽 늦으면 13세기에 세워졌다. 이후 조선 중기가 되면 금당이 법당과 합쳐지면서 금당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대웅전 등의 전각의 이름만 남게 된다. 이후 어느 때부터 불단 앞에서 스님이 설법을 하게 된다.

2007년 열암곡 사지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열암곡 석불좌상에서 남동쪽으로 30m 정도 떨어진 바위들이 모여 있는 경사진 산 사면에 마애불상이 엎어진 상태로 발견된다. 열암곡 석불좌상의 불두가 발견되어 복원이 이루어진 이후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조사단이 열암곡 제3사지 사찰 터의 출입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주위를 조사하던 중 박소희·채무기 연구원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열암곡 사지의 출입 동선을 파악하던 박소희 연구원의 눈에 길쭉하게 엎어져 있던 바위에서 인공적인 다듬어진 흔적이 보였다. 전문 연구인이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온 것이다. 바위 주위에 쌓여 있던 나뭇잎과 가지들은 치우고 손으로 더듬으니 가공된 흔적을 느꼈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확인 작업을 한 결과 가슴과 어깨 그리고 다리와 대좌가 눈에 보이게 된다. 이후 흙에 덮인 마애불상의 얼굴이 나타난다. 무엇보다 불가사의한 모습은 위에서 밑으로 거꾸로 땅을 보고 누워있는데 코가 5cm 남기고 땅 위 바위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 열암곡 사지 조사 과정서 발견된 열암곡 마애불. 발견 당시 '5cm의 기적' 으로 불리며 화제가 됐다.

5cm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넘어진 무게 80t의 바위는 높이 6.20m, 두께 1.90m이고 폭은 2.50m이다. 이러한 크기의 바위에 고부조의 마애불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머리에서 발까지 4.60m이며 발아래의 연화대좌는 1m로 40도 가까운 경사면에 엎어져 있다. 어느 때 지진의 영향으로 추정되는데, 위에서 밑으로 정면이 땅으로 곤두박질치며 넘어져 있던 마애불상이 발견된 것이다. 어찌 보면 땅을 향해 넘어져 있었기에 처음 조성한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었을 것이다. 또한 조성된 모습 그대로인 국내 유일의 불상이란 점은 열암곡 마애불상이 한국불교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이유가 된다.

경주 남산의 다른 석불좌상과 마애불상은 세월과 인위적 훼손 때문에 얼굴의 원형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열암곡 마애불은 조성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넘어지며 정면 얼굴 면이 땅에 묻혀 보존되었기에 조성 당시의 얼굴을 그 모습 그대로 지니고 있다. 코의 오뚝함은 통일신라 불상의 콧날을 예상하게 해준다. 거의 모든 전문가는 통일신라 불상의 콧날은 지금의 한국인처럼 뭉툭하게 조성되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불상의 콧날이 빼죽하고 오뚝한 모습이 원형이란 확인은 예상치 못한 새로움의 사실을 선물해 주었다.

나발이 없는 민머리에 육계는 높게 솟아 있다. 눈은 아래를 향해 내리뜨고 있으며 입술은

2007년 열암곡 사지 조사 과정서 박소희 · 채무기 연구원이 발견해 넘어졌음에도 호상에는 손상 없어 "1050년 지진으로 넘어져" 추정

도톰하다. 특히나 귀는 어깨에 닿은 정도로 매우 크게 조각되어 있으며 어깨가 넓어서 가슴을 활짝 편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 마애불상은 시무외인과 여원인의 수인을 하고 있다.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은 밑을 향하고 있는데 모두 손등을 보이는 아주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법의는 오른쪽 어깨를 보이고 왼쪽 어깨를 감싼 편단우견의 모습인데, 발목까지 내려온 옷주름은 9단으로 접혀있다. 발은 바깥을 향하여 벌려져 있고, 연화좌대는 5장의 연꽃이 위로 향한 앙련이다.

마애불상은 몸통에 비해 머리가 크고 발이 짧은 4등신의 비율을 보이는데, 이것은 참배자가 마애불상의 밑에서 우러러볼 때의 시각처리를 위한 계획된 조형미다. 고부조로 조각되어 볼륨이 강한 상호를 보이며 눈매의 날카로움과 어깨의 당당함은 통일신라 8세기 후반 불상의 특징을 보인다. 미술사적으로도 경주 남산의 삼화령 삼존불과 배리 삼존불 그리고 석굴암 본존불상의 조형미를 잇고 있는 중요한 불상이다. 또한 손등을 보이는 수인은 경주 남산 왕정골 석조여래좌상 등 극히 드물게 확인되는 특이한 수인이다.

마애불상이 서 있던 원래의 자리는 지금의 자리로 판단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애불상의 바닥에 닿은 부분은 당시의 손상이 보이고, 땅에 닿지 않은 조각 부분은 손상이 전혀 없다. 이것은 넘어진 그 상태에서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넘어지면서 움직이게 되었다면 현재 보이는 조각 면에 긁히고 까인 자국이 남아있을 것인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마애불상은 넘어진 그 상태로 발견된 것이며, 지금 자리가 원래 세워져 있던 자리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마애불상이 넘어진 이유는 지진 때문으로 추정된다. 서 있던 마애불상이 앞으로 넘어진 것인데, 뒤 바위들을 보면 지진의 흔들림에 의해 앞으로 밀쳐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힘은 지진밖에 없다. 그런데 넘어진 시기는 확정하기 힘들다.

문헌상 지진의 기록으로는 〈삼국사기〉에 64년을 시작으로 932년까지 총 53차례 나오는데, 779년의 지진이 눈에 띈다. 혜공왕 15년(779)의 기록은 집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백여 명에 이르는 심각한 지진이었다. 만약 이때 지진으로 마애불상이 무너진 것이 맞는다면 8세기 후반의 조형미를 보이는 마애불상은 조성하자마자 넘어진 것이 된다.

하지만 779년에 넘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 8세기 후반이라면 통일신라 전역에서 불사가 이루어지는 불교문화가 최고로 꽃이 피던 시기이다. 〈삼국유사〉를 보면 경주 인구는 100만 명에 육박하는 도시였다. 35채의 금을 입힌 호화로운 주택이 있었다고 할 정도였으니 어찌 보면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였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최고의 경제력과 힘이 있던 불교국가 통일신라에서 조성된 지 얼마 안 된 열암곡 마애불상이 넘어졌다면 그냥 놔뒀을까 싶다. 80t의 육중한 무게로 인해 바로 세우지 못했다면 주위에 또 다른 마애불을 조성하여 세우지 않았을까 추정도 해 본다. 통일신라 불교문화와 경제력의 최전성기였던 8세기 중후반 열암곡 마애불상이 조성되자마자 넘어졌다면 그냥 놔두진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고려사〉를 보면 1012년부터 1015년 사이 집중적으로 경주에 지진이 6번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1012년 음력 3월 3일에 지진이 있었는데 같은 연도인 1012년 음력 5월 2일에 황룡사 구층목탑을 수리하고 있다. 1966년 석가탑 해체 수리를 하던 중 사리외함 밑에서 발견된 응고된 상태의 '묵서편'에 고려 현종 14년(1024)과 정종 4년(1038)에 석가탑을 중수한 기록이 확인됐다. 여기서 발견된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에는 1022~1024년에 지금의 석가탑인 무구정광탑을 중수한 기록이 있으며,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에는 1036년과 1038년에 지진이 발생해 탑이 상하게 되어 보수한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1012년과 1038년 사이에 큰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2018년 건설기술연구원의 조사보고서에는 주변 암석의 노출에 따른 연도 측정을 한 결과 1550년 무렵 주변의 암석이 노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7월 25일 '열암곡 마애석불입상 보존관리방안 최종보고'에서 연구원의 '4-2 전도시기 추정'에는 암석 표면 노출 연대를 측정하여 1050년 전후 317년의 측정값으로 발표하였다. 마애불상 부조의 완벽함과 1012~1038년 지진의 피해를 본다면 1050년 전후 넘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만 지금의 완벽한 형상이 이해되기 때문이다. 1550년대라면 조선이 건국된 이후이기에 유학자들에 의해 훼손됐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열암곡 마애불상은 황룡사 구층목탑과 불국사 삼층석탑이 지진에 피해를 본 1050년 전후에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 · 조계종 교육아사리〉

세시간 염불도 거뜬하던 내 체력!
이제는 30분 염불에도 무리가 오니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

그러나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마이크와 2m 멀리서 작은 염불에도 장엄하고 신명 넘치는 염불소리가 법당과 사찰을 휘감는 특수염불마이크를 지금 소개합니다.

마이크 : 이태리 성악전문 수입품(Schoeps Martin) (마이크소리 테스트비용 한잔!)

본품은 주문 및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귀 법당시설 마이크와 본사 견본 마이크 양손 비교시 장난감 수준차이 반드시 확인! 현장서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영혼의 세계 빙의

◉ 전생 빙의 퇴마 ◉

전생을 알아야 실마리가 풀린다

본인들 입으로 빙의된 영가가 누구인지 말하게 됩니다

신비의 약손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임신이 안되는 분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상담 가능 천광암 H.P 010-8673-4426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89호 | 15 | 전면광고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지혜롭게 중도를 지켜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잡보장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200평 • 법당 : 60평, 외 • 요사 : 70평 • 매가 : 35억
- 위치 : 경북 • 부지 : 300평 • 법당 : 60평 • 요사:60평 • 매가 : 6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채권 인수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암 자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2387, 화룡사
- 가액 : 3천 2백만원

기타 문의는 전화로 알려 드립니다.

010-6688-9946

포 교 당 안 내

- 위 치 : 경북 청도군 소재
- 대구 1시간, 경산 팔공산 갓바위 30분 거리
- 경치좋고 물좋은 곳으로 고찰이 많은 불자동네
- 5분 거리내 대형마트 3곳
- 법당 · 주방 · 방2 · 화장실2 실평수 약 45평
- 비품시설 1800만원, 보증금 500/40
- 사주 방편으로 포교 하실 분

010-7942-9015

사찰토지 안내

- 위치 : 충주시 주덕읍 (국도 4차선 접)
- 대지 : 631평
- 금액 : 2억 5천

010-2136-9889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새고개2길 47
- 대지 : 종교부지 265평 (삼천포)
- 법당 : 20평 (동향)
- 요사 : 30평 (남향) 방3개
- 특징 : 50년된 우물, 수도
- 가액 : 3억

010-8868-70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3억 8500만원

010-5316-5669

사 찰 안 내(토굴)

- 위치 : 경북 영덕 동해안
- 대지 : 326평, 40평 건물 2채
- 법당 15평, 공양간 17평, 방 7개, 목욕탕 3, 외부화장실 2
- 용궁당 노천산신 야외석불 지장입불
- 편리한 아파트식
- 가액 : 2억 (절충 가능)

010-2008-0377

사찰(급)안내

- 위 치 : 부산 연산동
- 땅값만 받고 양도 합니다
- 대지 124평
- 법당 삼성각 용왕당 호심불(소불)
- 공양간 종무소 스님방
- 가격은 절충

010-7785-5577

사 찰 안 내

- 매매가 6500만원
- 영천 북안면 약 60평
- 약사불, 조용한 기도처

010-9667-489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5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0억원

010-5421-1536

사 찰 안 내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포항시 남구
- 대지 : 200평
- 건물, 법당, 산신각, 용왕당, 요사채 2동,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함

※가액 : 보증금 3백만원 월세 20만원 (계약기간 5년이상 해드림)
※권리금 : 1천5백만원
※동시주차 15대 가능
※비구니 스님 원합니다.

010-7788-3320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 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 2억 5천만원 (절충 가능)

010-4835-1739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 2억 3천만원(절충가능)

건강상의 이유로 시세 이하로 계산합니다.

010-3007-561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5분
- 법당 : 약 23평, 단청필
- 요사체, 친견실, 산신각 각 1동
- 주차장 : 넓음
- 가액 : 3억

010-5550-9725
010-4001-8476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근교 IC에서 3분 거리
- 대지 : 230평,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용왕당, 노천미륵불, 석물다수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오억(5억) 절충가능

010-3540-843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 종교용지, 대지 218평, 시유지 포함 500평 사용, 주차10대, 건평 68평 중 1층 요사 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 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심야전기, 지하석수 1일 150톤 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집기 일체 포함, 즉시 법회 가능
- 시가이하로 7억5천에 양도함 (절충가능)

010-6425-8274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선암다리 5분, 김해공항 15분
- 건평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7억 5천만원

010-6898-91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 1길 33-12
- 대지 : 320평 법당15평 요사40평 별채15평(건물 미등기)
- 난방 : 가스
- 가격 : 1억 내린 2억9천(급매)

010-2369-338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산청원지
- 대지 : 약 530평 건물 3동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저온창고 5평
- 공양간 30평, 방 5개, 화장실 5개 스님 접견실, 주차공간 20대
- 가액 : 3억 3500만원

010-7364-86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1억(대출 2천만원 포함)

010-2807-05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천수 감로수를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투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천수관세음보살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89호 | 16 | 전면광고

여러 강물도 바다에 들어가면 모두 짠맛이 되듯이 여러 가지 일을 통해 쌓은 보살의 선행도 중생의 깨달음에 회향 되면 해탈의 한 맛이 된다.



부처님 말씀 읽기 -《보적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제주 무료숙박 안내 (2박3일, 3박4일)

제주 풍차와 석양이 아름다운 절경
한경면 신창리에 **요사채를 무료개방**합니다.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림하시는 하루는 재능기부나 농어촌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신도님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주도 한경면 신창리 62번지 / 대한불교 칠보사 주지 일허 합장
백년여행사 010-6236-1135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010-5270-8260
010-6785-113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범음·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사물 법고, 정근북, 송주북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 금륜사 법현 . 대진합장
- 주소 :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010-7579-8200

억불사 창건 권한 위임 무효

- 서담 스님(허창환)은 약속 불이행으로 창건 권한 무효임.
- 위임할 때 제자로 함.

대한불교조계종 22교구 말사 억불사(사설)
전남 광양시 진상면 구황길 57-12

억불사 무각 합장
010-4585-5580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상속 · 증여 · 세금
보장자산
(밀착관리/비밀유지)

삼성생명 팀장 오은정
문의 010-9573-418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밀양 재악산 영산재 학인모집

의식 및 사물. 대금. 태평소
전통의식에 관심있으신분 많은동참바랍니다.
★강의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2시★
밀양시 초동면 영원사

010-3156-2211

구합니다

60대 비구입니다.
남은여생, 수행 정진할
조용한 암자를 구합니다.

010-5929-3217

불교무량법계종 (종교법인)

도반 수행자 모집
종도 모집
함께 모여 정진하실 분 찾습니다
위치: 대구시 동구 파계로 22길 7

010-4766-6358

민불종 무료장학대학원

기초에서 천문신공까지 02-903-5858

9월 개강, 재택, 재, 사, 암 모바일교육
접수 즉시 교재 필도구 배송, 예습 가능 시험도

*장학위원 교수 후원인도 기다림 02-904-3375
모든 문의 총무원 010-2693-771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NEW "식물성 연꽃향 양초"

오랜 시간 완벽한 배합 비율을 연구, 개발하여
2024년 향긋한 연꽃향 양초를 출시하게 되었으며, 다년간의 개발 및 연구를 통해
완성된 "식물성 연꽃향 양초"를 스님과 불자 여러분들께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신제품 "식물성 연꽃향 육각초"는 연소시 중앙부만 연소되는 단점을 완전히 보완하여 전부 연소시킵니다.

연꽃향양초 샘플이 필요한신 분은 전화번호, 성함, 주소를 010-5265-5118로 문자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식물성 연꽃향 육각초



특 大(대) 7.5Φ×41㎝ 16개 120,000원
大(대) 8.5Φ×33㎝ 20개 140,000원

식물성 연꽃향 양초



〈원기둥〉 7.4Φ×29㎝ 20개 120,000원
〈돈타레〉 5.6Φ×26㎝ 30개 105,000원
〈밀대〉 4.7Φ×24㎝ 40개 92,000원

「해광양초는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를 제조 판매합니다.」

신제품 반야심경 디퓨져

한글로 새겨진 반야심경 디퓨져는 오랜 잔향을 남기어 일상생활 속 귀한 기운을 갖게 도와줍니다.



연꽃디퓨져

연꽃디퓨져 연꽃처럼 예쁜 향기로 깨끗하고 맑은 기운을 선사합니다.
침향디퓨져 뇌를 깨우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여 고요한 기운을 전합니다.

침향디퓨져
100㎖ 디퓨져 29,000원
200㎖ 디퓨져 39,000원

신제품 도자기 (초)받침

*기존 촛대 안에 넣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양초의 기울어짐을 방지하고 청소가 간편합니다.



NAVER 해광양초

해광산업 상담문의 010-5265-5118 / 031-333-024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416-8 (이일로 112-6)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리얼리즘은 '꽃가루' 말고 '콩가루'



이안의
Media In Buddha
㊷ 연극 〈벗꽃동산〉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는 가르침으로 종교의 경계를 넘어 대중의 존경을 받은 법정스님이 원적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더는 출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자 생전에 출판된 책값이 오르고 올라 1976년 280원에 발간된 〈무소유〉 초판본이 100만원이 넘었고, 그 책을 소유했다는 자랑이 기사로 퍼져나가니 아무리 큰스님이라도 대중들 소유욕을 다스리긴 어렵거니 싶다.

태생이 가난한 사람이 기를 쓰고 부자가 되려는 이야기, 드라마나 영화에서 파고 또 파도 마르지 않는 이야기의 샘이랄까? OTT 채널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는 K-드라마, 그 드라마들의 원천이 되는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면 죄다 재벌 흥하는 이야기다. 최근만 하더라도 〈눈물의 여왕〉이나 〈재벌집 막내아들〉이 그렇고, 좀 돌이켜봐도 〈상속자들〉이나 〈파리의 연인〉이 그렇다. 부자가 풍파를 겪고 재산을 잃는 걸 대중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 한다. 아니 왜?

그런데 영화는 또 재벌에 대한 풍자나 도전을 다룬 작품들에 관객이 몰린다. 〈베테랑〉(유승완 감독, 2015년)이나 〈기생충〉(봉준호 감독, 2019년)처럼. 재벌이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가고, 파국을 맞는 장면에 대중들은 환호한다. 이건 또 왜?

이렇듯 '부자'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문화적으로 아주 양가적이다. '부자 삼대 못 간다'며 안 부러운 척해도 사실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 속 외침에 혹하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를 믿으면서도 '부자 되게 해 주십사' 기도를 한다.

이게 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계급이 곧 빈부를 가늠하던 중세까지는 불교든 다른 종교든 '다음 생에는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소서'나 '죽은 뒤에 천국에 들어 더 이상 가난으로 고통 받지 않게 해주소서'라는 기원이 간절했었다. 그러나 '자본이 곧 권력'이 된 근대 이후, 타고난 신분이 아니라 '소유한 자산'이 계급을 가르는 세상이 되었으니 기도도, 염원도, 욕망도 달라질 수밖에.

이런 시대적 변화를 무대에 올린 극작가 안톤 체호프(1860~1904)는 부와 권력의 무상함과 변화를 극적으로 겪는 시대를 살았다. 황실과 귀족이 몰락하고, 타고난 신분 못지않게 지식이나 자본이 권력을 다투고, 체제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을 다양한 인간 군상과 글로벌한 욕망의 경합의 드라마를 입체적으로 빚어낸 체호프의 작품들은 당대 러시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연극계의 경전으로 사랑받고 있다.

'리얼리즘 연극의 아버지' 안톤 체호프가 러시아



안톤 체호프 유작, 사이먼 스톤 연출 맡아
허영과 몰락, 결핍과 욕망의 드라마 '눈길'

혁명 직전 불안한 기운이 가득하던 1904년의 러시아 사회의 변화를 담은 유작 〈벚꽃 동산〉이 요즘 '세계에서 가장 핫한' 영국 연출가 사이먼 스톤의 다듬질을 거치고,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배우 전도연'이 27년만의 연극 나들이로 가장 호사스러운 공간인 LG아트센터 무대에 오르면서 연극계의 화제작이 되었다.

스스로가 K콘텐츠 마니아라고 밝힌 사이먼 스톤은 원작의 길고 어려운 러시아식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바꾼 정도가 아니라 혁명적 시기였던 체호프의 세계를 요즘 한국에 맞게 K패치하면 딱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연출의 재미를 뽐낸다. 인물과 무대와 대사의 조합의 묘를 찾아내고, 심지어 한국어로만 가능한 대사의 말맛, 역사적 사실과 현실의 갈등, 시대적 현상에 더해진 대중의 욕망까지 효과적으로 무대의 요소가 된다.

재벌 3세 송도영(전도연)이 5년 만에 돌아오는 집, 그 무대가 벚꽃 동산에 지어진 저택이다. 일본인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이 저택은 송도영이 생일 선물로 받은 집이란다. 일제 강점기 친일 논쟁이 아직도 정치적 논쟁거리고, 부동산이 모름지기 최고의 자산 가치가 되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나타내는 이 저택은 마치 에셔가 그려낸 끝없이 오르면서 끝없이 내려오는 계단처럼 입체적인 무대에 2차원 평면처럼 전면을 향해 있다.

통창을 통해 지하철 한번 타본 적 없는 재벌 가족들과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이 빚어내는 허영과 몰락, 애증과 연민, 결핍과 욕망의 드라마를 들여다보는 이 저택의 조형성은 이 집의 형상은 봉준호 감독의 팬이라는 사이먼 스톤이 〈기생충〉의 주무대가 되었던 집에 대해 바치는 오마주처럼 보인다.

이 집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도영 일가만이 아니다. 성공한 기업가가 된 운전수의 자식 황두식(박해수)과 실천없는 비판으로 둘째 딸 해나(이지혜)를 사로잡는 '입진보' 가정교사 변동림(남윤호), 숨김없는 욕망을 드러내는 가정부와 애욕을 주고받는 운전기사와 비서 같은 사용인들이 상속신분 말고는 아무런 능력도 없이 회사를 엉망으로 경영해서 파산 직전인 재영(손상규)이나 입양 자식으로서 집안에 대한 헌신으로 인정받으려 하지만 놀고먹으며 빌붙어 사는 사촌 김영호(유병훈) 만큼도 여유가 없는 큰딸(최희서) 모두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집안에서 계급의 사다리를 오르내린다.

인권 변호사였던 남편과 불임인줄 알고 딸을 입양한 다음 낳게 된 아들을 잃고, 애인들과 술에 빠져 재산과 애정을 탕진하는 도영은 현실적으로 경제관념을 가지라는 큰딸이나 이성적으로 현실을 직시하라는 둘째 딸보다 아들을 잃은 결핍을 향락으로 상쇄할 만큼의 매력이 있다. 큰딸의 애인과는 썸을 타고 작은 딸의 애인과는 입을 맞추고도 그 딸들이 연인들과 몸이든 미래든 관계를 맺으라고 응원할 정도로 개방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집안은 '아름다운 콩가루 가족'인 것이다.

이 몰락해가는 부자에 대한 사용인들의 태도는 부자들에 대한 한국 대중의 태도처럼 양가적이다. 예전 운전기사의 아들로 성공한 글로벌 기업가가 된 두식은 도영을 동경하면서도 그 몰락을 통해 계급의 사다리의 승리자가 된다. 체호프의 원작에서 농노의 아들이 벚꽃 동산을 사들였듯이 두식은 도영과 재영에게서 저택 뿐 아니라 기업까지 사들이고, 오직 자본의 논리로 개발을 밀어붙인다.

도영과 재영 남매의 집안이 누리던 가문의 영광과 친일의 흔적 같은 전근대적 유산은 두식의 불도저 앞에서 무력하게 해체된다. 계급의 사다리는 끝없이 올라가면서도 내려가야 하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영화나 드라마에 형상화되고 있다. 〈오징어 게임〉에서도 (두식 배역의 박해수 배우가 시작한) 경쟁의 극한을 펼치던 공간으로 무한의 계단이 등장했듯이 올라가도 올라가도 또 내려가는 계단으로 이루어진 집을 개발공화국 한국의 건설업자 두식은 혼자만 안전모를 쓰고 부숴 버린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회사를 말아먹은 재영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되는 가치'라고 애지중지하는 턴테이블이 1954년산, 그 해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국제적으로 남북이 분단국가로 공인된 해였다. 두식의 시대는 돌고 도는 턴테이블이 아니라 EDM의 시대다. 대중적으로 안전하고 상업적으로 효율적인. 현대 한국사회의 불안을 벚꽃 잎 대신 검은 눈으로 흩뿌리고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 무대에 어울리는 엔딩은 '벚꽃 엔딩'이 아니라 '파괴와 욕망의 엔딩'인 것이다.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㉕

1. 제법무아(諸法無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없다.
②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인연이 다하면 소멸할 수밖에 없다.
③ 모든 것은 변하므로 현재의 삶을 즐기며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④ 어떤 경우든 집착과 분별심을 떠나 자기를 비우고 살아야 한다.
⑤ 불교의 공(空)사상은 무아(無我), 연기(緣起)를 확대한 개념이다.

해설 : 제법무아는 내가 없다고 해서 윤리적인 주체가 없다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삶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 속에서 나라고 할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즉 제법무아라 해서 무분별하게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고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즐겁고 자유롭기 위해서 진정한 가치(열반)의 추구(수행)를 하여야 한다.

2. 사법인(四法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모든 변하는 것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② 모든 것은 고정됨이 없고 끝없이 변한다.
③ 모든 것은 신의 뜻에 따라 몸과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④ 모든 것이 변하는데도 변하지 않는다고 집착하기에 고통이 발생한다.
⑤ 집착을 내려놓으면 모든 번뇌가 사라져 고요한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다.

해설 : 사법인(四法印)이란 모든 것은 고정됨이 없고 끝없이 변한다는 제행무상(諸行無常), 모든 변하는 것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제법무아(諸法無我), 모든 것이 변하는데도 변하지 않는다고 집착하기에 고통이 발생한다는 일체개고(一切皆苦), 집착을 내려놓으면 모든 번뇌가 사라져 고요한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다는 열반적정(涅槃寂靜)의 네 가지를 말한다. 불교에서 만물의 주재자와 같은 신은 상정하지 않는다.

3. 사법인(四法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제행무상(諸行無常)
② 제법무아(諸法無我)
③ 십이연기(十二緣起)
④ 일체개고(一切皆苦)
⑤ 열반적정(涅槃寂靜)

해설 : 2번의 설명을 참조. 십이연기는 연기에서 인연과 결과를 각 12지분으로 관찰하는 것으로 이 십이연기의 생멸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제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개고와 관련되며, 이 십이연기를 잘 관찰(순관, 역관)하면 열반적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4. 팔정도(八正道)의 덕목 중, '폭력을 쓰지 않고, 바른 행동으로 자신과 남에게 이롭게 행함'을 의미하는 것은?
① 정견(正見) ② 정정(正定) ③ 정명(正命)
④ 정업(正業) ⑤ 정사유(正思惟)

해설 : 폭력을 쓰지 않고, 바른 행동으로 자신과 남에게 이롭게 행함은 정업이다. 정업 이외에 팔정도는 바른 관찰인 정견(正見), 바른 생각인 정사유(正思惟), 바른 언어생활인 정어(正語), 바른 생활인 정명(正命), 바른 노력인 정정진(正精進), 바른 기억인 정념(正念), 바른 집중인 정정(正定)으로 이루어져 있다.

5. 불교에서'아집을 버린다, 나를 버린다'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② 있지도 않은 나를 있다고 생각하는 집착의 마음을 버려라.
③ 모든 것은 끝없이 변화하므로 모든 것을 빨리 체념하는 것이 좋다.
④ 나와 내 경험이라는 고집을 버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⑤ 끝없이 변화하는 육체, 감정, 생각, 의지, 의식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알라.

해설 : 아집(我執)은 말 그대로 나에 대한 집착이다. 나라는 작은 소견에 집착함으로 이를 버리면 허공과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있지도 않은 신기루와 같은 자신에도 집착하지 않게 된다.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데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으며, 진실로 육체 등의 나라고 착각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진실로 나이지 않음 또한 알 수 있다. 다만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다.

정답 : 1. ③ 2. ③ 3. ③ 4. ④ 5. ③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출시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베이지

어싱슈즈
특판가 (무료배송)
65,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이미령의
스토리텔링 경전에세이 ⑬ 니까야 ①



▶한줄 요약
은사 고익진 교수님께서 애송이 제자에게 제시한 방향은 불교경전 '아함경'이었다. 점치고 부적 쓰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던 불교가 알고 보니 '나란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내게 길을 알려주는 종교였다.

니까야, 진리 가르침 담아낸 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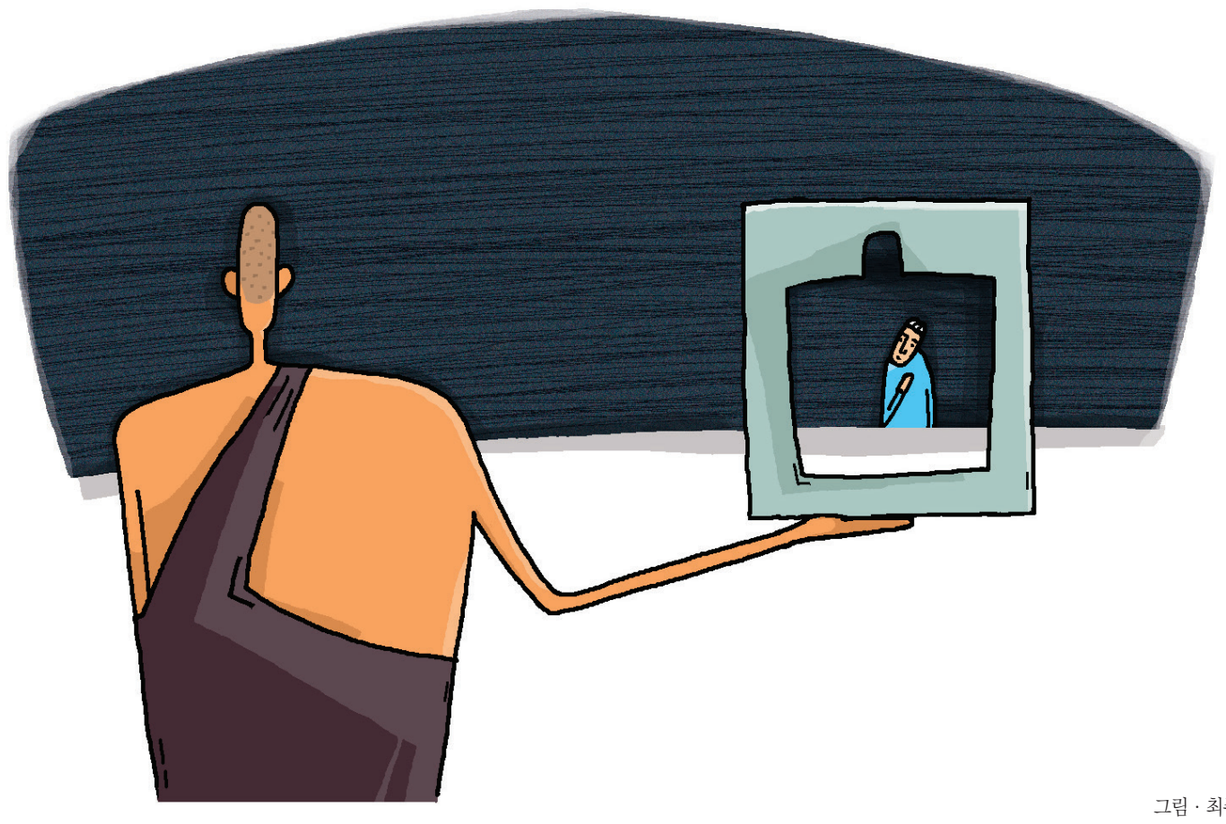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불교는 액운 없애는 종교인 줄 알던
20살 애송이 제자에게 건넨 '니까야'
그 안엔 '나란 무엇인가' 사유 담겨

옛날 옛적 갠지스강 근처서

옛날 옛적 우리나라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인도 땅에서의 일입니다. 인도 북쪽 히말라야 산자락이 길게 내려오고 갠지스강이 조금 아래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곳, 바로 그곳에서 어느 스승 한 사람이 삶을 마치려는 참입니다.

왕자였던 스승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참으로 덧없고 괴로운 것을 보고, 덧없고 괴롭다면서도 벗어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저냥 살아가는 것을 보고 조금 더 온전하고 완전한 삶의 의미는 없을까, 그걸 찾으려고 성을 나왔지요. 성을 나와서 무려 50년 가까운 세월을 길 위에서 지내며 처음에는 이런저런 수행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길을 묻고 그들이 일러주는 방법으로 수행을 하다가 자신이 추구하는 길이 아님을 알고 결국은 홀로 독자적인 수행법으로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에 스승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노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스승은 길 위에서 30대를 보냈고, 40대, 50대, 60대, 70대를 보낸 뒤 80세가 되던 해에 이승의 삶을 마칠 시간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황망한 마음에 간절하게 청했지요.

"스승님, 저희를 두고 떠나지 마십시오. 오래오래 사세요. 저희 공부가 완성될 때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스승님은 계속 저희 곁에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스승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지금 내 몸은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의지해서 억지로 이끌려 가는 것과 같다.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없고, 만난 것은 헤어지게 마련이다."

"스승님께서 이렇게 떠나시면 저희 제자는 앞으로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도 스승님은 저희에게 긴히 당부하실 말씀을 남겨두고 떠나시겠지요?"

스승은 또다시 낮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말해야 할 것은 다 말했고, 일러줄 것은 다 일러주었다. 마지막까지 아끼려고 주먹 속에 꼭 감춰두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내게는 '내가 제자들을 이끈다'라거나 '제자들은 내게 지시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 그런 내가 이승을 떠난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길 것인가?"

심지어 제자들이 스승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지를 물었을 때도 "너희가 왜 그런 것을 걱정하지? 내 장례식은 세상 사람들이 아주 훌륭하게 잘 치러줄 것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스승은 떠나셨지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뒤늦게 화장터에 도착한 제자들 가운데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 말이지, 난 이제 좀 살 것 같아. 스승님께서 우리를 좀 힘들게 했냔 말이야. 이제부터 우리는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이러면서 편안하게 지내보자구."

이 말을 들은 또 다른 제자들은 깊이 탄식합니다. 스승의 화장이 끝나기도 전에 이런 목소리가 제자들 사이에서 나오니 어쩌면 지금부터 1년, 10년, 100년이 지나면 갠지스강 근처에 훌륭한 스승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심어주고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었다는 사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인정할 만큼 수행을 한 제자들이 모였고 그들은 스승께서 생전에 날마다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가르침을 하나씩 기억해내며 외우고 그리고 합창을 하듯이 합송을 했습니다. 연필도 볼펜도 없고 종이도 책도 없던 시절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자꾸 기억하고 외는 일뿐이요, 혼자서가 아니라 수행을 많이 한 제자들이 뜻을 모아 함께 외운다면 문자로 기록하는 것 이상으로 스승의 가르침은 단단하게 살아 숨 쉬며 먼 훗날까지 전해지리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백 년이 흐르고 이백 년이 흐르고 그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스승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도 세상을 떠났고 그들의 제자 수행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외고 또 외며 그저 문자로 외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깊이 참선을 하면서 가르침을 온몸으로 체득하였지요. 제자들은 인도땅 여러 곳으로 '따로 또 같이' 흩어지거나 뭉쳐지거나 하면서 수행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두 줄기로 크게 나뉘어 인도땅 너머 전해져서 한 줄기는 스리랑카로, 다른 한 줄기는 실크로드를 지나 중국으로 흘러듭니다.

스리랑카로 전해진 스승의 가르침은 스님들의 암송으로 전통을 이어가다가 '니까야'라는 이름으로 문자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문자로 기록된 부처님 말씀이 중국으로 전해져서는 '아함경'이라는 이름의 경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인도에서는 스승의 제자들이 가르침을 더욱 증폭시켜서 수많은 경전들을 써내게 되었지요. 스승의 본뜻에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더 크게 꽃과 열매를 피워냈지요. 니까야와 아함경을 초기경전이라 부르고, 그 이후에 쓰인 경전들은 대승경전이라 부릅니다.

그날 고익진 교수님께서

1982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한 나는 불교가 궁금하고 불교를 공부하려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불교라는 건 내게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이따금 엄마가 부처님오신날 등을 달러 절에 가시는 것 같았지만 내 고향 강원도에서 절의 역할은 아주 미미했지요. 불교는 부적을 써주고 길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뿐이고, 근처의 교회는 대놓고 전도활동을 하고 멋지게 크리스마스 행사들을 하는 것에 비해 절에 다니는 아낙네들은 조용히 내색하지 않고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절에 다니는 것을 가족들 몰래 '해치우기'까지 했습니다. 불교는 액난을 막아주는 기도처이지만,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절에 다닌다고 하기에는 민망한 종교, 어린 내게 불교는 딱 그 정도였습니다.

이런 내가 불교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외삼촌의 권유 때문이었는데, 고등학생 시절 나는 좀 특별한 문제에 사로잡혀서 골똘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누구인지 물음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궁금한 이 녀석을 나라고 불러도 되는 것인지, 왜 이것을 나라고 불러야 하는지, 이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또 다른 어떤 녀석이 이런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녀석이 나인지….

이런 문제에 휘말리기 시작한 조카를 지켜보시던 외삼촌이 "네가 갈만한 대학은 한 군데밖에 없다"면서 동국대를 추천하신 것이지요. 사실 처음에는 인도철학과를 마음에 두었지만 어떻게 하다보니 불교학과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내 인생인데 다른 이의 추천에 내맡기고 그냥저냥 대학생활을 시작한 것이 무책임해 보이지만 그 당시 내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휘감겨서 이 책 저 책을 뒤적였고 나는 여전히 길을 찾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내가 만난 분이 고익진 교수님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석사학위논문인 〈아함법상의 체계성연구〉라는, 어렵고 딱딱한 내용을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나가면 나의 답답함이 풀릴 것 같았지요. 그러다 선배의 권유로 고익진 교수님 댁을 찾아갔고, 병약한 교수님께서 강의를 마친 뒤 귀가해 누워서 쉬고 있는데도 무작정 들어가서 내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깡마른 얼굴의 교수님은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때까지 내 답답함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기에 겁이 났습니다. 철딱서니 없는 어린 여자아이가 괜히 교수님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해서 말이지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하고 같이 공부해보자."

힘이 하나도 없어 나직했지만 또랑또랑하게 내 귀에 꽂혔습니다. 불교 속에 정답이 있다거나 이런 경전 읽어보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신하고 같이 방향을 잡아서 사색을 진행해보자는 권유였습니다. 나의 스무 살 시절은 그렇게 시작됐고, '나를 찾아 나선 애송이 제자'에게 교수님께서 제시한 방향은 불교경전에 담겨 있었지요. 그것이 '아함경'입니다.

점치고 부적 쓰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던 불교가 알고 보니 '나란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내게 길을 알려주는 종교였습니다. 액난을 막고 복을 비는 것이 종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인생의 궁극적인 물음에 공감하고 답을 찾아나선 자들이 갈구하는 복음(福音)이 종교였습니다. 그 복음을 진리라 부르고 법이라 부르고 '담마'라 부르겠습니다. 그것이 한가득 담겨 있는 경전이 바로 '아함경'이요 '니까야'입니다.

〈경전이야기꾼, 불교강사〉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한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일일이 따지다 보면 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즈음 장마가 들어서 또 비가 오면 어쩌나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깐 비가 오고 있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 덕분으로 이렇게 비는 안 맞게 되나 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스님께서는 왜 용(用)만 가르칩니까?"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이라는 것은 용이라는 이름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발전을 하든 발전을 안 하든 우주와 더불어 같이 우리 세상이 그대로 시공을 초월해서 그대로 움죽거리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움죽거리고 하는 자체가 바로 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움죽거리고 살고 있는 그것 빼놓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내 마음으로써 다스리고 해 나가는 그런 것이 모두가 발전이요, 보고 듣고 발전을 시키는 것도 발전이요, 모두가 용이 아니라면 발전이 없습니다. 목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배우느냐 하면은, 이 움죽거림이 없이 움죽거린다 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게 있죠, 고정됨이 없다는 거. '색(色)이 공(空)이고 공이 색인데 그 가운데 움죽거림이 없다, 고정됨이 없어서.' 이랬죠. 여러분은 지금 한시도,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움죽거립니다. 눈을 깜박거리십니다. 눈 하나 깜박거리는 것도 용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살아 있지 않다면 눈도 깜박거릴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살아 있는 자체가 그대로 용입니다. 그래서 용신(龍神)은 모습이 용으로 생겨서 용신이 아니라, 우리가 움죽거리고 찰나에 바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까닭에 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일일이 따지려고 든다면 이 공부는 천하없어도 못 합니다. 모두 우주와 더불어 인간의 근본 이 생명, 생명이 없으면 아니 되는 까닭에 생명의 근본이 있습니다, 또. 근본은 불성이라고도 하죠. 불성의 에너지는 이 우주를 덮고도 남습니다. 이거는 혼자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주와 더불어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주의 에너지와도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하고도 모두 가설이 돼 있는 거와 같아서….



그림 · 최주현

왜 이런 게 있죠? 내가 그 소리를 가끔 하죠. 전력 하나를 가지고 수만 개로 화해서 나투면서 돌아간다. 진화되고 바뀌고 말입니다. 또는 그 불성이라는 에너지 때문에 공기력으로 수많은 것을 발전해 낸다 이겁니다. 비도 눈도 바람도 모든 절차를 거기에서 다 발전을 해냅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만 내가 자유스럽게 발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공부를 우리가 서로 도반으로서 같이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시에 그렇게 가르치셨죠? 어떠한 걸 따지고 이렇게 하려면, 일일이 따지다 보면 하나도 건질 게 없다. 그런데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또는 천수경이나 뭐, 또 다른 경들이 다 합쳐진 것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 내기 이전에 낸 것이 금강경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걸 일일이, 한마음에서 일일이 생활이 나오는 거를 요거는 요렇고 저거는 저렇고, 아버지 노릇 할 때는 어떻고 남편 노릇 할 때는 어떻고 형제 노릇 할 때는 어떻고, 요걸 일일이 따진다면 이 마음 법은 언제 배웁니까? 한마음에서 모두가 찰나찰나 바뀌면서 돌아가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구성돼서 부처라고 내놓은 것이 마음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부처인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처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듣기 때문에 부처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응신이 돼서 나투기 때문에 부처인 것입니다. 수없이 진화되는 그 나툼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묘한가. 여러분이 연기법 연기법 하지만 진짜로 실천을 해 보지 못한 분들은 연기법이라는 이름만 들었지 한 번도 관여해서 실천해 보지 못한다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가 본래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못 믿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즉 말하자면 콩 싹이 콩씨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콩 싹은 머지않아서 싹이 없어질 텐데도 불구하고 콩씨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콩씨라는 것은 아주 영원한 것입니다. 콩씨라고 했다고 해서 또 콩씨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근본 종자를 말하는 것이니깐요. 그것을 콩씨로 비교한 건데 콩씨 하나 가지고 이 세상만사를 다, 일체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콩씨 하나가 되남더라 이런 말입니다. 어때요? 틀립니까? 심어서 먹이고, 다 먹고 나면 또 심어서 또 먹이고 영원토록 그 콩씨는 남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불성의 에너지는 영원한 것이지 늘고 줄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그 불성의 에너지는 그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만, 즉 말하자면 하천세계의 모든 중생들의 생명만 생명이 아니라 이 전체가 생명입니다. 바람도 생명이요 비도 생명이요 물도 생명이요 눈도 생명이요, 이 공기력이 어디로부터 이렇게 광대하게 나오며 어디로부터 이렇게 광대하게 생명들을 살리며, 어디로부터 광대하게 이렇게 천차만별로 화해서 바뀌지면서 찬란하게 꿈을 키우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업보가 많고, 뭐가 많고 뭐가 많아서, 나는 빌어야만 되고, 기도해야만 되고, 백팔배 해야만 되고, 삼천배 해야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막아지는 겁니다. 다 막아지죠. 자기 마음이 자기를 막아 놓고 자기가 뛰려고 그러면 뛰어집니까?

우리가 이 공부는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공부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거를 알라 했습니다. 그 도리를 알라. 인간이 그런 도리를 모른다면 하(下)의 동물하고 고등 동물하고 무엇이 다를 게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이차적으로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또 어떻게 해야 발전을 시키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움죽거리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빛이 되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네 집이 비어서 주인이 없다면, 이 마음이 부처인데 내 심안에 진짜 주처를 두지 않고 바깥으로 끄달리고 이렇게 돌아간다면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집이 (가슴을 짚으시며) 빈 거라고 말입니다. 집이 빈 거와 같은데 만약에 댁이 사는 집들을 싹 비워 놓아 보세요. 집 없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치우지도 않고 건사하지도 않아서 그냥 거미줄도 슬고 벌레도 생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를 막아놓고 뛰려면 뛰어집니까?

☞ 19면에서 계속

기고, 좀도 슬고 뭐, 이만저만 야단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집은 썩어서 허물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내 주처에, 내면세계에, 이것도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내면세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면세계! 여기도 발전을 하면은 무지하게 발전이 되고 집을 비워 놔서 막 녹이 슬게 하고 그렇게 된다면, 뭇 생명들이, 악종의 생명들이 알을 까서 수만 개로 만들어서 그 집은 없어지고, 그 집 모습을 악종의 집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거짓말로 알지 마세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것을 내가 되놓으라고 그러는 것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된 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있는 거다. 그건 다스리는 선장이 있는 거다. 그래서 몸속에 있는 모든 의식들을 다스리는 주인이 있어서 나의 의식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억제하고 또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모든 상황을 봐서 '이럭하면 안 되지.' 한다면 그것이 바로 다스리는 겁니다. 강력하게 다스리는 그런 주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주인이 없다면 애들만 있는 집에 애들이 친구들이라고 막 끌어들여서 집을 수라장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런 게 있죠. 두꺼비가 말입니다, 큰 구렁이한테 가서 너불너불 약을 올립니다. 약을 올리면은 안 먹으려고 애를 쓰다가, 자꾸 그냥 입을 치고 쫓아다니며 약을 올리고 그러니까 부아가 나서 나중에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덥석 물어서 삼킵니다. 그러면 자기가 구렁이라는 위치를 그냥 망각하고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뼈 마디마디마다 두꺼비로 나오니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시겠죠? 내 집 속에 세균이라든가 모든 악종의 세균이, 자꾸 바깥에서 끌어들이기도 하고, 안에서 일어나게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히는 척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자기 거를 부화를 시킨단 말입니다. 이거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쁜 거를 잡아먹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군사들한테 가서 집적거려서는 그 군사한테 먹힙니다. 예를 들어 말을 하자니깐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어서 이럽니다. 먹혀 가지고 거기서 자기 알로 부화를 크게 해 가지고 그게 커지면 백혈병이니 뭐니, 병원에서도 참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형성되는 거죠. 이게 좀처럼 해서 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서운 도립니다, 이게. 악성으로 돼 있으니까, 벌써 그게 생기려면 발끝과 손끝에서부터 생깁니다.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그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것이 좋지 않다는 거는 내가 말로 하면 또 그렇게만 알아들으실까 봐 말은 못하겠지만, 그게 좋을 법한 일입니까? 자기 분신을 싹 쳐 싸그리 그냥 없애 버리는 망종한 일들인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극히 어려우니라.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진짜 사람 되기가 극히 어려우니라. 진짜 사람이 됐다면 부처 되기가 그렇게 또 극히 어려우니라. 이런 겁니다.

우리는 '시대가 이렇게 지금 신세대로서 발전이 되고 그랬는데 그까짓 게 다 뭐야.' 하면은 자기가, 자기 몸뚱이가 자기 근본 종자를 무시하는 것밖에는 안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콩 싹이 콩씨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내가 나의 고깃덩어리를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부처님의 형상을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을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허공을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이끌어 가는 자부처 불성(佛性)을, 진짜 종자를 믿으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믿다 보면은 이 부처님의 형상이 달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죽거리고 보고 듣고 이렇게 무쌍하게 발전하는 거기에 있고 여러분이 그 역할을, 앉아서도 천리만리를 다 뛰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 내 종자부터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자를 심어서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자 난자를 빌려서 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종자가 있다면. 이건 밭이니까. 그래서 그 콩씨를 하나 심으려면 흙과 수분이 필요하죠. 수분 없는 흙에서는 나오지 않으니깐요. 또 수분만 있고 흙이 없어도 아니 되니깐요. 그래서 싹이 나왔는데 여러분은 과거로 돌아가서 콩 종자를 찾으려고 애를 쓰니 어디 가서 찾습니까? 콩 종자는 벌써 자기 싹으로 화했는데. 그거 아십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깐 없다' 하는 뜻이 그런 뜻에서 있는 겁니다. 콩이 콩 싹으로 화해서 네가 됐으니 현재에 있는 거지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저보다도 더 잘 배우시고, 여러분은 저보다도 더 넉넉하시고, 또 지혜롭고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정말이지 숭배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배우질 못했으니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내 스승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이그, 내가 그까짓 불법, 부처님 법이라면 내가 위로 꿰고 옆으로 꿰고 가로 꿰고 해도 다 알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를 보고 느끼고, 하나를 보고 잘못된 거를 알고, 하나를 보고 잘된 거를 알고, '내가 이럭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럭하면 되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대성 원리가 나로 인해서 생긴 거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해도 난 그렇게 배운 게 유창하지 못해서, 말하자면 지금 현실의 용어를 적당하게 둘러댈 줄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그저 이걸로 끌어 대고 저걸로 끌어 대고 이렇게 해서 근근이 해 갑니다. 그러나 방편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진실한 문제입니다.

아까 여러분한테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바깥에서 들어오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어떻게 대치해 나가면서, 어떻게 굴리면서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느냐는 얘기를 했죠? 생각하면 아주 겁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한 번도 그런 데 대해선 생각해 본 일도 없이 가는 분들도 많은 반면에, 나는 될 수 있으면 어떡하든지 이것을 알게 해서 자기가 대치해 나갈 수 있게끔 만들려고 무지 애쓰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땐 눈시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잣대를 대려고 하지 말고, 남의 마음의 잣대를 대서 둥글게 항상 자비스럽게, 몰라도 깔보지 말고 알아도 높이 보지 말고, 항상 둥글게 해 나가십시오. 우리가 내 한마음을 쓰는 대로 이 안의 의식들은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생각 하기가 극히 그렇게 어렵죠.

많은 분들이 그러죠. 자기가 여기서 다닐 때는 그걸 몰랐는데 외국에 나와서 외롭다 보니깐 스님을 자주 찾게 되고 아,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아주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학교 칠판에 써 놓은 걸, 말도 잘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스님을 부르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간절히 그렇게 하고 가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게 남보다 떨어지지 않고 그냥 대처해 나가겠더라 이러는 겁니다.

어느 때는 자기가 방을 얻어 가지고 있는데 그 안집에 도둑이 들어서 자기 방에까지 왔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가긍한 시 한 수를 책상 위에다 써 놨는데 그거를 봤나 보더래요. 펴진 대로 그냥 있더래요. 그 시 한 수 읊어 놓은 걸 보고는 거기다가 돈을 천 불을 놓고 갔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눈물 어린 그걸 시로 그냥 읊었는데 그걸 보고 천 불을 그냥 책상 위에다 놓고 갔더랍니다. 이런 예가 있다는 것을 편지로 해서 나한테 전달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너무 불 밑에 있으면 불빛이 어떤지 몰라도 불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 밝은 줄을 압니다.

그렇듯이 자기와 자기 콩씨가, 콩씨하고 콩 싹하고 너무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자기 콩씨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너무도 좋은데, 시시각각으로. 그래서 이 공부가 웬만큼 돼서 감응이 되면, 어떤 사람은 바깥에서 단전을 하고 그냥 귀로 뭐가 들리고, 그냥 머리로 나오고, 온통 야단법석이 난다는데 이렇게 관하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귀로 들리거나 그런 법도 없어요. 마음으로 발전이 돼서 자꾸자꾸 스스로 알아지고 스스로 느껴지고, 스스로 봐지고 스스로 해지고 그러는 거지. 또 삼차적으로 한마디 하겠어요. 이 공부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은 아마 생각조차도 못 할 겁니다.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우주 전체, 행성이라든가 혹성이라든가 별성, 그 모든 자체가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수명이 짧지만 또 우리 인생보다도 더 짧은 생명들이 많죠? 우린 그거보다도 수명이 좀 긴데, 수명이 아주 긴 별성들도 그렇고, 혹성들도 다 하나하나의 세계가 있고, 하나하나의 작용이 있고, 하나하나의 수명이 있단 얘깁니다. 우리가 우주와 직결이 돼 있다는 것은 그 에너지가, 즉 불성과 불성끼리 하나로 돌아가는 에너지가 너무 광대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부에 정말이지 마음을 기울여야 될 이치가 있는 것은, 가만히 보니깐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봐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내 콩 싹이 콩씨를 찾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어요. 없어요. 전부 기도하고, 전부 상대를 믿고 기도하고 모두 달라는 거지, 직접 자기 콩 싹이 콩씨를 근중하게 생각하고 내면세계를 발전시키고, 내면세계에서 발전해서 그 중심에서 중용으로써 가차 없이 대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하는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생각할 땐 여러분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공부라는 건 이름이에요. 아무것도 아네요. 상대가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는 거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 호에 계속)



여러분의 마음의 잣대를 대려 하지 말고
남의 마음의 잣대를 대서 둥글게, 항상 자비스럽게
몰라도 깔보지 말고 알아도 높이 보지 말고
항상 둥글게 해나가십시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5년 7월 16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⑱ 급식 및 섭식장애

벗어나야 할 인정욕, 갈애의 원인

미연(가명·20세)씨는 깡마른 몸이 위태해 보였다. 탈모가 왔는지 머리카락은 듬성 빠져 있었고 목소리는 가늘고 힘이 없었다.

"선생님, 그래도 저 오늘은 비타민도 챙겨먹었고, 닭가슴살도 먹었어요."

그녀의 말에 한숨이 나왔다. 그나마 먹었다는 양이 너무 부족해 보였고 지나칠 정도로 운동을 해서 거의 탈진 상태로 보였다.

그녀는 늘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했고 절식과 폭식이 오가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다.

중학교 때 그녀는 얼굴에 난 여드름을 보며 자신을 흉물스럽게 생각했다. 자신과 달리 너무나 이뻤던 언니는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비교대상이 되었다. 조금이라도 예뻐지고 인정받고 싶어 미연씨는 살을 빼기 시작했다. 다이어트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이 되었고 먹고 토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미연씨는 섭식장애였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SM-5)'에 따르면 급식 및 섭식장애하위유형은 먹지 못할 것을 먹는 이식증, 음식물을 토하거나 되씹는 행동을 반복하는 되새김장애, 심각한 체중 저하에도 음식 섭취에 관심이 없거나 회피하는 회피적 음식섭취장애 등 섭식 장애의 양상은 다양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식증(신경성 식욕부진)과 신경성 폭식증, 폭식장애도 섭식장애의 하위유형에 포함된다.

섭식장애는 다양한 원인으로 시작된다. 현대의 경우 날씬한 몸매와 외모로 상대를 평가하는 문화와 불규칙적으로 먹고 마시는 식생활, 먹방 방송 등 자극적인 미디어의 부추김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느 상담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섭식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을 묻자 '살찌는 것'이란 답이 80%가 넘었다고 한다. 초등학생 10세의 아이들의 답이다. 어린 시절부터 학습된 외모 평가와 몸매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끼치고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성인(부모)들은 아이들의 다이어트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강한 자기관리는 바로 자신에 대한 인식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또 정말 심각한 경우에 거식증은 그저 살을 빼는 병이 아니라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무엇보다 자기관리라는 측면으로 생각하고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행위에만 집중한다. 사실 섭식장애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이다. 더 깊숙이 살펴보면 심리적 원인이 대다수다.

상담실을 방문한 미연씨도 섭식장애라는 증상 아래에는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깊은 욕구가 깔려 있었다. 무가치하다는 평가가 낮은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강박적 마음
'닙바나', 자유의 가르침 되새겨야

자존감의 원인이 되었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한 집착이 강박적으로 나타나 음식을 조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섭식장애의 경우 대다수가 느끼는 감정은 불안, 수치심, 죄책감, 우울, 무기력 등이다. 특히 우울은 서로 영향을 주며 강화 원인이 되어 악순환이 된다.

흔히 심리장애는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두 가지 방법으로 주로 접근하지만 섭식장애는 식사치료가 반드시 포함된다. 먹고 토하고, 절식하고 폭식하는 행동을 교정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식사에 대한 일기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록지도 쓰면 좋다.

〈법구경〉에 보면 음식을 절제하지 못한 빠세나디 왕이 나온다. 그는 폭식증에 가까운 행동을 보였다. 과식으로 인해 식곤증이 몰려왔고 피곤해 했다. 그에게 부처님은 "언제나 마음을 챙겨서 음식을 절제하라"고 하셨다. 부처님께서는 "건강이 가장 큰 이익"이라고 강조하셨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챙기는 것이다. 일지를 적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바로 마음을 챙기는 일 가운데 하나이며 실천방법이다.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서 이익이 되도록 자신을 돌이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부처님은 빠세나디 왕이 가르침을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 곁에 서 있는 조카 수닷사나 왕자에게 게송을 식사시간 때마다 외우도록 했다. 그리고 점차 식사량을 조절하도록 도왔다. 섭식장애 환자들은 스스로 알아차림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친구의 도움도 필요하다.

부처님은 몸이 건강해지고 전쟁을 끝내고 화평을 이룬 빠세나디 왕에게 말했다.

"대왕이여, 건강이 가장 큰 이익입니다. 어떤 것을 받더라도 만족하는 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신뢰가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러나 닙바나에 견줄 만한 행복이 없습니다."

이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자 한다면 스스로에 만족하고 불안감을 해소해 마음의 쉼을 얻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라 생각한다.

섭식장애 환자는 먹거나 토하거나 먹지 않거나, 이런 행동으로 자신을 학대하고 있다. 이 모든 행동은 불안과 불만족, 사람 관계 속에서 해소 못 할 인정욕구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해소하지 못할 갈망에서 비롯된다. 타인에게 얻고자 하는 끝없는 인정욕이 멈추지 못할 탐욕이 되어 타오르는 갈애가 된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닙바나에 견줄만한 행복이 없다"고 하셨다. "닙바나는 갈애가 없다"는 의미이다. 완전한 자유의 길이며 끝없이 타오르는 마음의 욕구, 갈애가 소멸하는 길이다.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홍재화의
걷기삼매경

⑫ 걷기, 흔들거림의 역학

균형 유지로 효율적 보행 가능

장력통합성

제임스 얼스는 그의 저서 〈보행 운동학〉에서 사람의 움직임을 딱딱한 요소인 뼈와 탄력적 요소인 근육, 근막의 통합체로 재구성했다. 이러한 시스템을 완전성과 긴장력의 조합어인 장력통합성이라 한다.

장력통합성 구조의 특징 중 하나는 그 구조의 전체에 걸쳐 긴장력에서 변화 또는 스트레스를 분산시키는 능력이다. 지나치게 과한 긴장력은 경직도의 증가로 이어져 구조체가 붕괴될 수 있다. 또한 긴장력의 지나친 감소는 그 구조 자체의 완전성, 즉 온몸의 힘과 속도의 반응 약화로 이어진다. 장력통합성의 두 번째 특징은 구조체에 적용된 힘이 전체를 통해 분산되며, 일단 긴장이 제거되면 구조체는 정상적인 안정의 균형으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력통합성의 기본 구조는 삼각형이다. 기하학에서 삼각형은 가장 안정적인 구조이고, 외부의 힘을 받았을 때 힘을 분산시키고 회복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의 구조 역시 삼각형을 기본으로 하면서 수많은 삼각형은 서로 연결돼 있다.

고무줄과 뼈로 된 인체 모형이 뛰거나 걷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모형 전체는 고무줄과 막대가 위아래로 출렁이고 좌우로 휘청거리며 앞으로 나갈 것이다. 매 걸음마다 발가락 끝부터 머리끝까지 긴장과 이완을 거듭하며 직진하는 힘, 체중에 해당하는 지구 중력, 그리고 땅의 반발력을 온몸으로 받아들인다.

매 걸음마다 몸을 이루는 삼각형들은 내부의 힘과 외부의 충격을 분산시키며 전진한다. 막대기로 이뤄진 구조체, 즉 뼈는 누르는 힘인 압축력을 받고, 케이블에 대항하는 근육은 당기는 힘인 인장력을 받는다. 이 두 힘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장력통합성의 장점

그렇다면 인체는 왜 이런 장력통합성 구조를 갖게 됐을까? 장력통합성의 구조를 보면 속이 꽉 찬 대부분의 구조에 비해 기둥이나 재료의 수를 줄일 수 있게 되면서 가볍고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가볍다고 해서 절대 약하지 않다. 장력통합성 구조는 가볍지만 굉장히 튼튼하고 안정된 구조를 이룬다.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경제적인 구조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관절과 뼈 구조가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이뤄졌다고 상상해 보자. 만일 인체가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다면 걷기는커녕 기어 다니지도 못하고, 몸무게는 수백㎏이 돼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가벼운 근막, 근육, 그리고 속이 텅 빈 뼈가 지탱해 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벼워질 수 있다.

인체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유지하면서 역동적 움직임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지탱하는 핵심은 바로 근막이다. 근육은 뼈가 자기 자리를 유지하도록 받쳐주고 섬세하게 조율할 뿐, 신체의 근막성 조직이야말로 필요할 때 온몸의 긴장력을 더하거나 빼준다. 근막은 콜라겐, 엘라스틴 그리고 다양한 단백질과 당분으로 이뤄져, 인체의 운동 역학적인 구조를 유지하게 하면서 화학적인 변화로부터 보호한다. 특히 근막에 들어있는 섬유성 요소는 힘의 전달을 통해 걸을 때 회복력 높은 스프링 역할을 한다.

장력통합적 걷기

발가락이 땅을 박차는 순간 그 힘, 속도, 그리고 방향에 대한 정보가 뼈로는 충격을 통해서, 신경으로는 뉴런을 통해서 그리고 근막으로는 출렁임이 온몸과 두뇌로 전달된다. 그런 출렁임 속에서도 꼭대기에 있는 머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걷기란 단순히 발을 들었다 놨다 하는 행동의 반복이 아니라, 물렁거리고 탄력성 있는 물체들의 출렁임이다. 이 출렁임은 머리로 도달하는 비틀림의 양을 줄여줘, 두뇌가 덜컹거리며 흔들리는 것을 막아준다.

이처럼 안정과 불안정의 연속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인체는 어느 동물보다도 에너지 효율적인 보행이 가능하다. 운동량, 중력 그리고 온몸의 조직을 긴장시키는 땅의 반발 작용을 이용하면서, 걷고 뛰는 동안 머리, 팔, 심장, 위장 등 각 부분의 위치와 중심축이 한 순간의 쉼도 없이 변화한다. 이처럼 걷는 시스템은 뼈, 근육 그리고 근막이 부분적이면서 전체적이고 즉각적이면서 영구적으로 대응해, 그 반응의 결과가 누적된다.

발가락 끝에서 전달되는 진동과 정보는 시간이 흘러도 남는다. 그러면서 장력통합성은 서서히 손상된다. 그 증상은 단순히 뼈로 된 발이나 물렁조직에만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심장, 신장, 위장이나 간과 같이 뼈에 매달려서 달리는 동안 흔들거리며 제자리를 유지해야 하는 내장 기관에서 증상을 먼저 나타낼 수도 있다.

거꾸로 인간이 잘 걷고 달린다면 인체의 모든 기관은 시간이 지나가도 장력통합성을 유지하면서, 내장 기관은 갈비뼈에 잘 매달려 오랜 시간 그 기능을 훌륭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잘 쓰려면 잘 걸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비바미(Viva!me) 대표〉



전법 일기

“입술의 3초, 가슴에 30년” 관계는 사소함서 무너진다

어느 날 한 보살님이 찾아오셔서 “스님 절에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했다. 이유를 들어보니, 신도들 간의 관계가 문제였다. 상담을 마치고 다음 날부터 면밀히 신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살피는 중, 몇몇 신도들의 말투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인간관계는 늘 어렵다고 한다. 그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 중 하나가 한마디 말에 찔려 아파하는 아주 찰나의 감정이다.

부처님께서도 십선계경에서 신구의(身口意) 삼업 중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비록 입에 향수를 뿌리더라도 죽은 시체와 같이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악한 말을 좋아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시 같고 칼, 오물과 같아진다. 향기 가운데는 아름다운 말보다 더한 것이 없고, 악취 가운데는 악한 말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상대가 툭 던진 단 한마디의 말이 나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를 잘 알면서도 실상, 삶의 현실에서는 많은 분들이 실수를 반복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여기서 아이러니 한 것은 나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말로 상대만 아파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 순간 나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의미 없는 말로 무심코 한 말이지만, 상대는 뇌리 속에 박혀서 비~잉빙 맴돌고, 자꾸 되뇌이면서 그 상황을 다시 떠올리고, 그동안 지내왔던 시간들마저 다시 곱씹게 되면서, 앞으로의 관계까지도 다시 생각하게 할 만큼 괴로워하게 된다는 것이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라는 말이 있듯이 단 3초의 한 마디에 가슴에 피멍이 든 것이다. 내가 하는 한 마디에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무심코 던진 한 마디가 그냥 한 마디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기억해 보면, 나의 말 한마디로 함께 하시는 신도님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 일들이 생각난다. 절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없는 시간을 만들어 오신 신도에게 “일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하며 자존감에 상처를 준 일이다. 일이 바쁘고 힘드니깐,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당사자는 얼마나 부끄럽고 속상해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도 내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하다. 그 당시에도 참회를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참회를 올린다.

관계는 아주 사소함에서 무너진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뉘우치고 앞으로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의 말을 건네는 일에 대해 용기를 내어서 가능한 빠른 시간에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그 용기의 시간은 우리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엮어줄 것이다.

“아무에게도 거친 말을 하지 말라. 받은자가 그대에게 돌려보낼 것이다. 격정적인 말은 고통을 야기하니 되돌아온 매가 그대를 때리리라.” 〈법구경〉



설문 스님
통도사 대전포교원 용수사 주지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⑥ 알레르기와 사회병리현상

사회적 알레르기 현상, 결국 욕망의 문제

생명에 대한 기술 즉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지향점은 의료현실에서 활용된다. 생명기술의 정점은 최종적으로 무병과 장수를 약속하며 의학과 진료 분야에서 꽃피우는 것이 상례이다. 생명기술은 과학기술과 상보적으로 발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으나 그 바탕은 생명의 속성을 검토하고 있다.

티끌이 하나 일어나니 모든 대지를 거둬들이고, 꽃 한 송이가 피니 온 세계가 열린다.(一塵　大地收 一花開世界起)
–〈벽암록〉 T48, 159a11

불교는 색법보다 심법에 집중하듯, 생명을 중심에 두고 있는 바이오 분야는 기술로 단순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우주라는 꽃 한 송이 피어나는 것은 절 집(寺)의 언어(言)인 시(詩)로 노래하기에는 벅찬 일이다. 들판의 꽃 한 송이는 과학기술의 분석 대상 그 이상일 수 밖에! 하지만 티끌 하나조차 일어나지 않고 꽃 한 송이도 피지 않을 때, 그때에는 어찌할 것인가? 은산철벽의 도래! 그때가 지금인 것만 같으니 이 질문은 더욱 절실하다.

우리 시대의 기묘한 도착 증세인 알레르기(allergy)는 속도와 관련이 있다. 악보에서 알레그로(allegro)는 ‘빠르게’를 지칭한다. 알레그로에서 파생된 알레르기는 생체적 반응이 일찍 활성화되어 일어나는 병리적 징후를 말한다. 이는 정상적 반응보다 빠르게 준동하는 것이므로 과민증상을 의미한다. 즉 조급성 또는 과민성 증후군에 속하는 것들이다.

현재 알레르기 현상, 속도와 관련
성급한 산아 정책, 저출산에 영향
욕망 관련 인지부조화를 살펴보라

알레르기 증상들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리는 풀의 생태와 비슷하다. 또 자라를 보고 놀란 사람이 솥뚜껑을 보고 놀라는 일처럼, 어둠 속의 썩은 새끼줄은 두려움으로 작동하여 공포스럽게 독사처럼 다가온다. 그러나 원인물질(allergen)이 직접 작용하기도 전에 요동치는 것은 병리적 인지부조화에 기인한 불안반응이며 두려움 때문에 작동하는 인식론적 오류이다.

일련의 알레르기적 증상들은 개체적 속성을 넘어서 온갖 사회적 병리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단면 가운데 인구의 감소와 관련된 일화들은 알레르기 증상의 대표적 예이다. 얼마 전까지 정관수술을 하면 진급에서 유리한 평점을 주고 예비군 훈련면제 등의 포상이 주어졌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구호는 둘도 많다며 보건 당국이 호들갑을 떨었다. 인구조절의 효과가 긍정되는 듯하다가 이제는 지방 도시들의 소멸 위기가 거론되고 있다.

알레르기적 반응 저변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욕망 그 자체이다. 욕망의 그림자는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한다. 욕망을 구조화한 자본주의적 체제는 구성원들의 상호 경쟁을 바탕으로 비교의식과 자의식이 과잉되도록 조장하고 있다.

순금의 진가를 알려면 단련하는 용광로 속을 살펴야 한다.(要識眞金火裏看)
–〈선문염송설화〉 H76, 10a20

욕망으로 불타오르는 용광로는 욕망 자체를 불사르며 불성의 실체를 연단하는 수행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티끌 하나, 꽃 한 송이의 과제로서 온 우주의 일에 속하게 된다. 숨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은 사바세계를 짊어지는 삶이 된다. 욕망과 관련된 인지부조화, 그 알레르기 증상들을 돌아보아 석존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며 마음의 눈을 열어두어야 한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원각사 재건 불사, 시대정신 담아내길

불사(佛事)는 불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총칭한다.

근래에 불사는 사찰을 중창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불교와 관련된 모든 일이 불사지만 사찰을 세우고 전각을 짓는 것이 불사의 근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유산 국보인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인근에서 30년간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원각이 원각사 재건 불사에 나섰다. 더욱 쾌적한 공간에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공은 물론 잃어버린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다.

사회복지원각 대표 원경 스님의 간절한 염원에서 시작된 원각사 재건 불사는 본래 자리는 아니지만 부처님 가르침과 시대정신이 담겨 있기에 더욱 의미 있다. 원경 스님은 1994년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무료급식 명맥이 2015년 끊어질 위기에 놓이자 급식소를 인계를 받아 9년째 이끌고 있다. 주변 상권에서 환영받는 공간도 아닐뿐더러 임대로 인한 불안한 상황서도 더 많은 취약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서원 하나로 지금까지 왔다.

그리고 최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손을 보태온 봉사자들과 십시일반 함께 한 후원자 덕분에 작은 터전을 계약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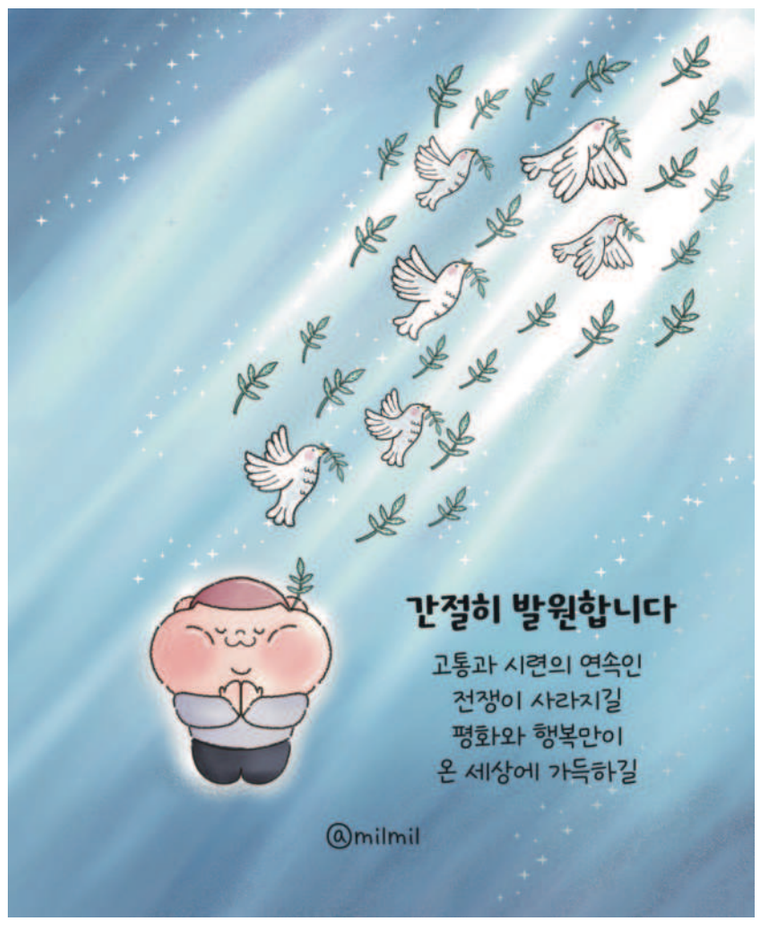
새로운 터전은 종로구의 정비사업에 따라 향후 원각사지 십층석탑을 바라볼 수도 있는 위치다. 문화재와 국가공원 등으로 원각사지에 불사는 불가능하지만, 향후 새로 마련한 법당에서 탑신을 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지본처의 시절 인연을 이뤄낸 기분이라는 게 원경 스님의 표현이다. 스님은 새로운 터전을 무료급식소와 법당, 음식박물관 등으로 구성된 불교, 복지, 문화 복합 공간으로 변모시켜 누구나 부처님 가르침과 불교문화를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불사란 부처님 일이고, 부처님 일이란 중생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있다. 원각사가 부처님 가르침과 시대정신을 담아낸 불사가 되길 기대한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아내 살리려고 집까지 팔았지만 커지는 병원비에 ‘한숨’

네팔 이주민 무큰다씨, 뇌종양 아내 치료비 2억원
5년 이상 장기치료 필요…재발가능성 여전히 높아
빚만 4천만원, 통원치료비 300만원 감당 어려워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문서포교’에 대한 단상

현불논단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2달 전 〈법구경〉 사상이 담긴 책을 출간했는데, 〈법구경 마음공부〉이다. 〈법구경〉을 읽다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뵙고 법문 듣는 느낌이다. 게다가 당시 승가의 상황이나 스님들의 마음가짐, 수행에 대한 열정, 고대 인도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필자에게 이 경전은 애정이 깊다. 출간 이후 책과 관련해 여러 일을 겪으면서 문서포교에 사유가 깊어졌다.

대승불교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은 ‘탑(Stupa)’이다. 이 탑을 중심으로 진보된 사고를 갖는 출가보살과 재가 보살이 대승불교 운동을 펼쳤다. 그런데 이 대승불교 또한 점차 다른 양상으로 발전되어 갔다. 즉 탑 내부에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지 않아도 경전을 모셔놓으면,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것과 똑같다는 사상으로 전개되었다. 즉 경전에 대한 숭배의식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서 〈금강경〉 〈법화경〉 〈유마경〉 등에 수지·독·송·해설·사경 5종 수행을 강조하면서 어떤 수행보다 경전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곧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가 곧 법신인 경전이므로 경전을 숭배함은 부처님께 예배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솔직히 필자는 대승불교 경전에 마음이 꽂혀 있다. 상불경 보살이 다른 정진은 하지 않고, 오롯이 사부대중에게 예경하는 것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았듯이 필자는 수십 년간 여러 책을 출간하며, 특히 경전에 집중하였다. 물론 그 만큼의 글쓰기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요, 공부가 함께 동행돼야 하는 법이다. 사찰을 운영하지 않아도 문서포교를 통해 승려로서 ‘밥값’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다.

입지 탄탄한 출판사와 출판 작업
견문 넓히는 계기…마케팅 돋보여
불교 교리 현대화 필요성 체감해

필자가 처음으로 출판했을 때가 2002년으로 기억된다. 이후 20여년 간 불교계 출판사에서 여러 분야의 책을 출간했다. 그러다 일반출판사로서는 입지가 있는 출판사로부터 출판 의뢰를 받았다. 출판사는 ‘인문학 에세이’라는 주제만을 던져주면서 불교의 깊이도 있으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이기를 원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 글 서두에 언급한 ‘법구경 마음공부’이다. 하여튼 필자가 이번 책을 통해 세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 출판사와 필자 사이를 오가며 원고 수정하는데, 출판사의 전문성이 돋보였다. 편집인들의 ‘꼰’다운 짜임새 있는 구성이었다. 책이 출간되고 나서도 일간 신문 광고, KBS라디오에 출연 섭외, 도서 유튜버와의 촬영 등 마케팅 분야에서 스케일이 컸다. 솔직히 이전에 책을 출판했을 때와 다른 경험이 나의 시야를 넓혀주는 계기였다.

둘째, 불자가 아닌 유튜버와의 인터뷰가 있었다. 이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해야 불안하지 않는가’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진짜 윤회는 있는가’ 등이었다. ‘어떻게 기도·수행하는가’ 등은 이들의 관심 밖이었다. 진정한 포교는 불교 용어를 쓰지 않고도 부처님 말씀을 전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수행도 좋지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감동적인 불교 진리여야 한다.

셋째, 경전 사상이나 불교 교리를 현대화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필자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부처님 재세시의 시대적인 사상을 그대로 독자들에게 노출할 수 없었다.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릇되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데 포커스를 두었다.

불교 관련 책 한권이 출판됨은 부처님이 한분 탄생하는 것과 같다. 전문성을 띤 수행 책도 필요하지만, 불자가 아닌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책이 출판됨은 포교요, 새로운 부처님이 한분 탄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극우 약진과 연기론적 정의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들이 대거 약진하면서 ‘부족주의의 회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부족주의 회귀의 현상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이 함께 겪고 있는 기후 환경 문제, 다문화 정책, 이민 문제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큰 장애로 등장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족주의의 회귀는 ‘다문화 사회’의 실패와 함께 등장한 용어이다. 다문화주의는 1970년대에 시작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언어적 불평등을 시정하는, 국가와 민족의 단위를 뛰어넘는 ‘지구촌’의 착한 이념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에 편입된 이민자들은 다문화적 공동체에 편입되지 못하고 고립되어 살았고, 동시에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서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집단 문화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부족주의의 회귀라 불렸다. 그런데 최근에 서구사회에서 등장한 부족주의는 주류 구성원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생존을 강조하며 등장한 강자의 이념이다. 폐쇄적 민족주의의 재등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유럽의회서 극우 정당들 대거 약진
전 세계 ‘부족주의 회귀’ 현상 뚜렷
연기론적 정의 바탕한 공동체 필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이 승리하자 자국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축구스타인 흑백 혼혈의 음바페는 “투표를 통해 극단적이고 분열적인 세력에 맞서야 한다”며 “모든 프랑스 청년들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투표를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그동안 프랑스는 가장 모범적인 다문화 사회의 모델로 칭송되어 왔다. 그런 프랑스에서 새로운 부족주의의 회귀 현상이 횡행하기 시작하였다. 세계 근현대사에서 폐쇄적 민족주의와 독선적 이념의 갈등으로 인류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어 왔던가.

새삼 붓다가 펼친 ‘연기법의 지혜’가 다가온다. 연기법의 핵심은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의존적 상호 발생’의 관계라는 것이다. 여기서 상호윤리(Mutual Ethics)가 생성된다. 상호윤리는 함께 만들어 가는 윤리로써 자비 실천의 디딤돌이다. 연기법의 지혜가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연기의 정의론’이라 할 수 있다. ‘연기의 정의론’은 자비 공동체 구현의 핵심 가치이다.

틱낫한 스님은 앞으로 오실 붓다는 ‘공동체’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현대사회의 복합적인 구조는 한 사람의 붓다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언은 현대불교가 나아갈 길에 많은 영감을 준다고 생각한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미움과 구별의 집단 광기가 팽배하고 있다. 이 지구별에 연기론적 정의에 바탕한 자비 공동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연꽃은 진흙탕 물에서 핀다고 하는데.

社 說

교육·조직화된 신도 양성 이끌어야

탈종교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듯하다. 시장조사기관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5월 13일~17일 나흘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5%가 ‘최근 저연령층을 중심으로 불교가 떠오르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20대 응답자 66.8%와 30대 응답자 70.4%가 불교의 인기가 ‘체감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 역시 불교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현재 종교를 갖지 않는 비종교인 62%가 ‘향후 믿어볼 의향이 있는 종교’로 불교를 꼽았다.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불교가 인기를 끄는 배경에는 ‘변화’가 있다. 그 중심에는 MZ세대로 대표되는 2030세대가 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던 것은 지난 4월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다. 박람회 개막 당일부터 인스타그램·X(트위터) 등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관람객이 점차 증가했으며, 불교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방문자도 전년대비 30배 증가하면서 한때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넥스트 스텝’이다. 불교에 대한 낮아진 허들을 넘어 어떻게 교단과 사찰로 유입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개종이 어려워진 사회다. 그렇기에 비종교인 62%가 “불교를 믿어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좋은 기회이다. 새로운 신도의 유입과 이를 유지시키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힘한 불교’에 취해서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송현광장은 ‘시민의 광장’이다

태고종 총무원이 송현공원 내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고 한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6월 19일 서울 종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상진 스님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 가장 많이 탄압을 당한 것이 현재의 태고종”이라며 “송현공원 내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절대 불가하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건립 추진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화유시로 조계종이 탄생했다고 하지만, 그 유시로 인해 한국불교계는 양분돼 발전 아닌 갈등에 오랜 시간 역량을 쏟을 수 밖에 없었다. 이승만은 대통령임에도 개인 의지를 정책에 반영시켰다. 정화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불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계기를 박탈한 것이 이승만 정권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태고종이 맹목적으로 이승만기념관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태고종 총본산 앞에 있는 송현광장에 세우지 말라는 것이다. 상진 스님은 “다른 곳에 건립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추진위는 왜 송현광장을 고집하려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종로의 얼굴을 바꾼 송현광장을 오롯이 시민의 곁에 있도록 해야 한다. 광장은 누구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우상화하는 장소는 더더욱 안된다. 송현광장은 ‘시민의 광장’이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6월 26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6월 26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6월 26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 성지순례 안내

– 열암곡 마애부처님 순례기도로 마음의 평화 · 행복의 길로 함께 갑시다 –

■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기도로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순례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모시는 길이며, 희망의 미래불교를 위한 초석을 놓는 불사입니다.

■ 매일 사시에 기도법사 스님이 천일기도 및 동참자 축원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스님과 불자들의 순례기도를 통해 불교중흥, 국운융창의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 **순례 안내** 사찰(단체)의 경우 미래본부로 미리 상담 또는 일정을 알려주셔요
- 열암곡 현장 기념품 지급 : 기도의례집, 개인방석, 생수, 홍보자료 등
- 필요한 경우 기도법사 또는 해설사가 동행안내 및 기도를 진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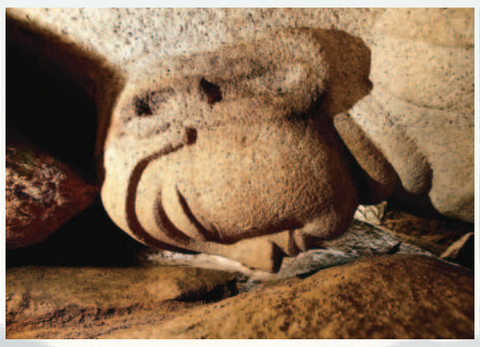
▶ **순례 문의** 02-730-0883 (조계종 미래본부)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기도접수 안내

- 천 일 기 도 : 2023. 4. 28(금) ~ 2026. 1. 21(수)
- 기 도 법 사 : 환풍스님·여진스님·선우스님
- 기 도 신 청 : 전국 사찰 종무소(수시접수) 또는 아름다운 동행
- 기도동참비 : 100일 10만원 / 1년 30만원 / 1000일 100만원 (선택)
- 문의 : 02-6273-0108 (아름다운 동행) / 팩스 : 02-737-9195 (아름다운 동행)

※ 열암곡 다라니 기도 : 매월 첫째주 토요일 사시에 교구본사 주지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다라니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7월은 13일(토) 오전 9시 30분에 진행합니다)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참기간 : 2023년 11월 ~ 2024년 5월)

[1억원 이상] 사찰 제3교구본사 신흥사 • 제9교구본사 동화사 • 봉은사(서울 강남) • 조계사(서울 종로) **스님** 성운스님(서울 삼각산 삼천사) **단체** 대한불교법연종 **[1,000만원 이상] 사찰** 제5교구본사 법주사 • 제7교구본사 수덕사 • 제13교구본사 쌍계사 • 제21교구본사 송광사 • 제23교구본사 관음사 • 군종특별교구 • 갑사(충남 공주) • 광제사(세종) • 국제선센터(서울 양천) • 금선암 신도회 (전북 전주) • 길상사(서울 성북) • 백양사(울산 함월산) • 법화사(제주) • 보광사(경기 파주) • 보리암(경남 남해) • 봉국사(경기 성남) • 봉국사(서울 성북) • 석굴암(경기 양주) • 승가사(서울 종로) • 약사사(서울 강서) • 영평사(세종) • 적석사(인천 강화) • 진관사(서울 은평) • 향일암(전남 여수) • 호압사(서울 금천) • 홍법사(부산) • 화계사(서울 강북) • 흥국사(경기 고양) • 흥천사(서울 성북) **스님** • 무관스님(전계대화상) • 성본스님(법계사) • 혜자스님(수락산 도안사) **단체** 광주불교연합회 • 금선암 신도회 • 대한불교조계종 계단위원회 •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삼사칠증 • 대한불교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 •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 사단법인 한국명상지도자협회 •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경북 청도) • 해봉문도회 **재가자** 공민주(자인월) · 영가 공영주 • 김성숙 • 이근표(충북지역단 포교사) • 이선월 • 황순희 • 황을숙 **【100만원 이상】 사찰** 제12교구본사 해인사 • 경국사(서울 성북) • 문수사(서울 종로) • 문수사(전북 익산) • 백련사(울산 울주) • 백련사(인천 강화) • 보은사(서울 양천) • 보현사(경남 김해) • 보현사(부산 부산진구) • 봉룡사(경북 봉화) • 봉정암(강원 인제) • 서학사(경기 용인) • 성호사(충남 공주) • 연국사(전북 익산) • 원광사(충남 홍성) • 월명사(경북 예천) • 화계사(서울 강북) **스님** 도공스님 • 동천스님 • 동희스님(서울 청량사 비구니 어산종장) • 묘장스님(서울 연화사) • 법열스님 • 법현스님 • 정우스님 **단체** 국회 정각회 • 대한불교원융종 •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강원지역단 속초총괄팀 • 미륵사인연길 • 보덕사 신도회(칠곡) • 불교차인중앙회 • 불교합창단연합회 • 불토회 • 서응사 신도회(안성) •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 휴다인(이연희) **재가자** 강경선 · 최문자 • 강선이 • 강성욱 • 강영순 • 김경희 • 김기준 • 김옥선 • 김용숙 • 김정숙 • 김정심 • 김화순 • 김화순 다보행(도리사) • 맹춘자 • 박병조 • 박수정(서울) • 박승남 • 박영애 • 박지연 • 변란숙 • 신정은 • 심부자 • 양석모 • 우차출 • 윤현수 • 이묘숙 • 이민상 • 이수자 • 이옥 • 이정숙 • 이창연 • 임명배 • 정경애 • 정영선 • 조민경(천년을 세우다 예술위원) • 조은아(신우건드릴) • 차효일 • 최승용 • 최태선(조계사) • 하영희 • 하태광 **【100만원 미만] 사찰** 금용사(대구) • 내소사(전북 부안) • 달마사(경남 사천) • 묘견암(경북 상주) • 미륵사 • 백련사(울산 울주) • 법융사(서울 송파) • 보광사 • 보천사 • 소림사(서울 종로) • 은하사(경남 김해) • 인양사(경남 창녕) • 장금선원(부산 북구) • 죽림선원(충남 청양) • 해월암(경북 고령) • 호국사(경남 진주) **스님** 각운스님 • 경덕스님 • 구산스님 • 금오스님 • 남전스님 • 대경스님 • 덕림스님 • 덕운스님 • 도심스님 • 도은스님 • 도희스님 • 묘인스님 • 무일스님 • 문종스님 • 밀엄스님 • 범종스님 • 범하스님 • 법륜스님 • 법오스님 • 법정스님 • 법중스님 • 법진스님 • 법희스님 • 보명스님 • 보선스님 • 보운스님 • 보타스님 • 보현스님 • 상범스님 • 상준스님 • 서봉스님 • 서현스님 • 선공스님 • 선도스님 • 선보스님 • 선안스님 • 선일스님 • 선중스님 • 선호스님 • 선화스님 • 설경스님 • 설도스님 • 성민스님 • 성욱스님 • 성원스님(제주 보리왓) • 성주스님 • 성진스님 • 성춘스님(부산 세존사) • 성행스님 • 성화스님 • 수중스님 • 여여스님 • 여해스님(서울 운가사) • 영경스님 • 영조스님 • 용주스님 • 우관스님 • 우봉스님 • 우승스님 • 우하스님 • 우현스님 • 운봉스님 • 원각스님 • 원명스님 • 원정스님 • 원철스님(해인사문수암) • 일규스님 • 일묵스님 • 일오스님 • 일화스님 • 자경스님 • 자광스님 • 적조스님(금륜사) • 정관스님 • 정륜스님 • 정법스님 • 정안스님 • 정우스님 • 종인스님 • 지상스님 • 지선스님 • 지원스님 • 지원스님(죽림정사) • 지행스님 • 지현스님(관음사) • 진경스님 • 진경스님(서울법련사) • 진허스님 • 진효스님 • 철주스님 • 청목스님 • 초격스님 • 탄문스님 • 탄성스님 • 태연스님 • 해청스님 • 향림스님 • 현암스님 • 현우스님 • 혜공스님 • 혜문스님 • 혜안스님 • 호암스님 • 화평스님 **단체** (사)보혜사 • 거제시 건축과 • 기도공덕회 • 삼성중공업 • 상서기업 • 소망기업 • 지키다수 • 커피홀 부산 반여센텀점 • 한국문화연수원 • 한화오션 **재가자** 김미자 • 김신자 • 김영주 • 박영희 • 안봉선 • 안용진 • 이규자 • 이복순 • 임영자 • 정민옥 • 한경수 • 홍철호 • 간다미 • 강경미(구룡사) • 강경민 • 강경숙 • 강경순 • 강경태 • 강대순 • 강덕순 • 강도경 • 강만곤 • 강민정 • 강병엄 • 강복희 • 강석조 • 강성후 • 강수진 • 강숙화 • 강승연 • 강쌍순 • 강연일 • 강영미 • 강옥희 • 강용구 • 강원표 • 강윤석 • 강윤아 • 강인순 • 강정임 • 강정자 • 강종옥 • 강진영 • 강진희 • 강천사 친견 • 강태희 • 강형숙 • 강형임 • 강혜경 • 강혜숙 • 강화심 • 강효점 • 강희재웨삭 • 건상봉 • 고경옥 • 고귀월 • 고명석 • 고명순 • 고미화 • 고민진 • 고불심 • 고수민 • 고영범 • 고영석 • 고영옥 • 고옥자 • 고용환 • 고은숙 • 고정애 • 고종석 • 고학재 • 공승관 • 공태희 • 공형진 • 곽미길 • 곽순덕 • 곽용석 • 구태남 • 구태영 • 국경섭 • 국민주 • 국형호 • 권경라 • 권귀남 • 권기봉 • 권기성 • 권대식 • 권대자 • 권명숙 • 권명희 • 권문경 • 권미란 • 권수연 • 권순범 • 권순옥 • 권순탁 • 권순호 • 권승택 • 권오연 • 권오영 • 권옥 • 권유진 • 권윤철 • 권은영 • 권은하 • 권재우 • 권정애 • 권준섭 • 권지영 • 권지용 • 권지웅 • 권춘례 • 권태형 • 권향숙 • 권혁기 • 권현정 • 권효진 • 귀의삼보 • 글로벌이엔티홍준팀장 • 금덕종 • 금위야 • 금응종 • 금혜은 • 길춘재 • 김가람 • 김가연 · 김나연 • 김가영 • 김가현 • 김갑수 • 김갑순 • 김갑진 • 김건위 • 김건호 • 김경례 • 김경록 • 김경미 • 김경민 • 김경빈 • 김경수 • 김경숙 • 김경옥 • 김경자 • 김경화 • 김경환 • 김경희 • 김광래 • 김귀경 • 김귀남 • 김귀녀 • 김귀옥 • 김규영 • 김근식 • 김금선 • 김금성 • 김금임 • 김금자 • 김기병 • 김기옥 • 김길중 • 김나연 • 김나오미 • 김나현 • 김난순 • 김남국 • 김남순 • 김농호 • 김다나 • 김대균 • 김대년 • 김대성 • 김덕현 • 김도이 • 김도현 • 김도형 • 김동우 • 김동준 • 김동현 • 김동환 • 김두례 • 김만성 • 김말숙 • 김맹열 • 김명남 • 김명성 • 김명수 • 김명숙 • 김명순 • 김명애 • 김명애 · 이재환 · 이문호 · 이윤호 • 김명옥 (무별심) • 김명희 • 김문주 • 김미경 • 김미숙 • 김미애 • 김미현 • 김민경 • 김민규 • 김민서 • 김민선 • 김민섭 • 김민성 • 김민수 • 김민재 • 김민정 • 김민주 • 김민지 • 김민형 • 김민희 • 김민희(대성) • 김범권 • 김범수 • 김법등심 • 김법영 • 김병국 • 김병숙 • 김병오 • 김병윤 • 김병주 • 김병훈 • 김보람 • 김보배 • 김보선 • 김보섭 • 김보성 • 김복례 • 김복숙 • 김복희 • 김봉대 • 김봉환 • 김부자 • 김부훈 • 김사운 • 김삼배 • 김상기 • 김상덕 • 김상용 • 김상휘 • 김상희 • 김석남 • 김석선 • 김석원 • 김석임 • 김선규 • 김선균 • 김선두 • 김선례 • 김선봉 • 김선숙 • 김선순 • 김선임 • 김선희 • 김성룡 • 김성배 • 김성빈 • 김성숙 • 김성연 • 김성영 • 김성우 • 김성윤 • 김성임 • 김성자 • 김성준 • 김성진 • 김성호 • 김성희 • 김세엽 • 김세원 • 김세한 • 김소영 • 김소현 • 김수관 • 김수덕 • 김수미 • 김수언 • 김수은 • 김숙 • 김숙자 • 김숙종 • 김숙현 • 김숙희 • 김순열 • 김순영 • 김순옥 • 김순이 • 김순조 • 김순하 • 김순화 • 김순희 • 김술연 • 김승수 • 김시명 • 김시우 • 김시자 • 김시현 • 김시혼 • 김신우 • 김양례 • 김연분 • 김연순 • 김연아 • 김연자 • 김영각 • 김영광 • 김영래 • 김영록 • 김영롱 • 김영만 • 김영미 • 김영범 • 김영분 • 김영빈 • 김영산 • 김영서 • 김영선 • 김영숙 • 김영아 • 김영우 • 김영일 • 김영진 • 김영희 • 김영환 • 김영희 • 김예지 • 김옥자 • 김옥자(강릉) • 김옥희 • 김완철 • 김외숙 • 김용구 • 김용배 • 김용성 • 김용진 • 김용호 • 김우람 • 김원진 • 김유기 • 김유민 • 김유빈 • 김유철 • 김윤건 • 김윤경 • 김윤곤 • 김윤서 • 김윤후 • 김윤희 • 김은경 • 김은선 • 김은숙 • 김은옥 • 김은주 • 김은지 • 김은희 • 김응숙 • 김의순 • 김이한 • 김인숙 • 김인실 • 김장수 • 김재도 • 김재란 • 김재숙 • 김재연 • 김점옥 • 김정곤 • 김정남 • 김정숙 • 김정순 • 김정애 • 김정연 • 김정자 • 김정하 • 김정헌 • 김정호 • 김정희 • 김종구 • 김종국 • 김종규 (제석사) • 김종석 • 김종선 • 김종열 • 김종원 • 김종준 • 김종화(인천) • 김주원 • 김주환 • 김중현 • 김지민 • 김지선 • 김지연 • 김지온 • 김지원 • 김지윤 • 김지현 • 김지환 • 김진기 • 김진석 • 김진성 • 김진숙 • 김진순 • 김진영 • 김진희 • 김찬형 • 김창숙 • 김채옥 • 김천순 • 김천연 • 김천옥 (제석사) • 김초해 • 김치선 • 김태섭 • 김태순 • 김태윤 • 김태하 • 김태한 • 김태현 • 김태환 • 김평례 • 김하륜 • 김하영 • 김학규 • 김한일 • 김해원 • 김해자 • 김현숙 • 김현순 • 김현일 • 김현정 • 김현조 • 김현주 • 김현주 · 이정훈 • 김현지 • 김현철 • 김현태 • 김현희 • 김형권 • 김형규 • 김형석 • 김형임 • 김형자 • 김혜경 • 김혜선 • 김혜순 • 김혜옥 • 김혜정 • 김혜진 • 김호철 • 김홍문 • 김홍석 · 손미정 • 김화자 • 김효순 • 김효주 • 김희수 • 김희연 • 김희은 • 김희자 • 김희진 • 나수영 • 나순우 • 나정옥 • 나창주 • 나채형 • 남 민 • 남가연 • 남경순 • 남미경 • 남성우 · 최병수 · 최형수 • 남수연 • 남연주 • 남원아 • 남인우 • 남주형 • 남주희 • 남진영 • 남창순 • 남효정 • 남효창 • 노기순 • 노기형 • 노도형 • 노명재 • 노범석 • 노보현 • 노석태 • 노진래 • 노태익 • 노학래 • 노효림 • 노훈 • 노희승 • 늘천사들과함께 • 담낙뜨락교회 • 대월심 • 도영호 • 동명한의원 백진구 • 동영화 • 라경도 • 라구자 • 류계선 • 류소윤 • 류소해 • 류승현 • 류외운 • 류용열 • 류운숙 • 류지영 • 류창무 • 류하성 • 류환범 • 마기영 • 마순남 • 만법행 • 명성의 • 명희자 • 모동규 • 모미숙 • 모지희 • 모춘배 • 문건호 • 문경아 • 문경정아름 • 문관순 • 문광식 • 문규리 • 문금향 • 문기운 • 문기호 • 문도철(허쾌조) • 문석환 • 문선자 • 문소영 • 문수진 • 문순옥 • 문순희 • 문승대 • 문안자 • 문영주 • 문유은 • 문정란 • 문정순 • 문정심 • 문정자 • 문창유 • 문필순 • 문현순 • 문현균 • 문호진 • 문효성 • 문효정 • 민병열 • 민소연 • 민소은 • 민순의 • 민은지 • 박경단 • 박경신 • 박경애 • 박경희 • 박관우 • 박광규 • 박기영 • 박노자 • 박대희 • 박덕규 • 박덕자 • 박동범 • 박록자 • 박명숙 • 박명호 • 박미경 • 박미경(쥬얼리본) • 박미자 • 박미혜 • 박민자 • 박병록 • 박병숙 • 박봉숙 • 박봉순 • 박봉영 • 박봉희 • 박부영 • 박분현 • 박상구 • 박상구 · 이관순 • 박상수 • 박상숙(부산) • 박상웅 • 박선애 • 박선향 • 박성인 • 박성태 • 박성화 • 박성희 • 박세진 • 박소녀 • 박소은 • 박소정 • 박소현 • 박수빈 • 박숙근 • 박숙현 • 박순자 • 박순주 • 박순천 • 박승호 • 박연순 • 박영숙 • 박영실 • 박영애 • 박옥녀 • 박옥선 • 박옥신 • 박왕희 • 박용남 • 박용순 • 박운용 • 박유민 • 박윤경 • 박윤래 • 박은경 • 박은란 • 박은례 • 박은미 • 박은아 • 박은정 • 박은진 • 박을선 • 박을출 • 박의진 • 박인순 • 박일용 • 박재우 • 박정동 • 박정숙 • 박정우 • 박정자 • 박정주 • 박정택 • 박정희 • 박종걸 • 박종선 • 박종수 • 박종임 • 박종진 • 박종학 • 박종현 • 박종호 • 박종화 • 박주연 • 박주영 • 박주원 • 박주현 • 박준선 • 박준희 • 박지안 • 박지우 • 박찬미 • 박처호 • 박춘열 • 박춘자 • 박춘자(대구) • 박춘현 • 박춘화 • 박태언 • 박태은 • 박해숙 • 박현우 • 박효상 • 박흥규 • 반진구 • 방승훈 • 방장수 • 방창선 • 배봉수 • 배부남 • 배선혜 • 배수정 • 배시영 • 배옥순 • 배옥연 • 배윤례 • 배은순 • 배정은 • 배종숙 • 배주한 • 배진숙 • 백대진 • 백미경 • 백상훈 • 백숙자 • 백승구 • 백승대 • 백지희 • 백진구(동명한의원) • 변명숙 • 변병태 • 변창식 • 변희상 • 산업 민소은 • 삼계열(길상사) • 상서조진숙 • 상서지일성 • 서광원 • 서동분 • 서동훈 • 서문옥 • 서미교 • 서미정 • 서범석 • 서봉교 • 서상훈 • 서성식 • 서성원 • 서수원 • 서순서 • 서승재 • 서여화 • 서영 • 서예진 • 서옥규 • 서원희 • 서윤희 • 서은화 • 서을선 • 서정순 • 서정호 • 서지민 • 서창용 • 서현홍 • 서현순 • 석영홍 • 선순화 • 선장원 • 설경자 • 설복임 • 성만제 • 성수원 • 성점둘 • 성주용 • 소옥만 • 소지환 • 소혜신 • 손기준 • 손남희 • 손동민 • 손동석 • 손득규 • 손말순 • 손민경 • 손민혁 • 손승연 • 손승희 • 손영선 • 손영환 • 손영희 • 손은희 • 손의화 • 손준우 • 손준웅 • 손준웅 · 양영숙 · 손영환 · 손영선 • 손충호 • 손효진 • 손희경 • 송경희 • 송남정 • 송도근 • 송령호 • 송명란 • 송선문 • 송성애 • 송영환 • 송유민 • 송인숙 • 송정심 • 송죽자 • 송지희 • 송하섭 • 송현섭 • 송현주 • 송혜경 • 송혜정 • 신경근 • 신경민 • 신경숙 • 신경식 • 신금자 • 신문수 • 신미경 • 신선아 • 신수자 • 신수현 • 신순옥 • 신승애 • 신승헌 • 신승호 • 신연희 • 신영숙 • 신용삼 • 신용직 • 신용훈 • 신원령 • 신원숙 • 신유림 • 신유철 • 신은진 • 신인겸 • 신인선 • 신재원 • 신정숙 • 신주미 • 신주원 • 신지원 • 신춘섭 • 신춘호 • 신현옥 • 신혜윤 • 신혜정 • 신호갑 • 신희순 • 심성남 • 심성식 • 심수정 • 심영미 • 심우림 • 심윤보 • 심이현 • 심재순 • 심정섭 • 심종한 • 심춘자 • 심혜영 • 심훈보 • 안강김도균 • 안계선 • 안기영 • 안다미로의일상이야기 • 안미정 • 안병욱 • 안병준 • 안상원 • 안상준 • 안순득 • 안순애 • 안연희 • 안영길(해인사) • 안위숙 • 안은도 • 안재은 • 안정민 • 안종은 • 안칠옥 • 안형근 • 안호삼 • 안호종 • 안홍규 • 양경미 • 양도암 • 양동석 • 양동윤 • 양만석 • 양명자 • 양미라 • 양석희 • 양성우 • 양영선 • 양영숙 • 양윤숙 • 양은진 • 양정심 • 양태현 • 어현경 • 엄경자 • 엄보섭 • 엄옥자 • 엄정숙 • 여래심 • 여병은 • 여연김혜숙 • 여연배미혜 • 여의주 • 여정옥 • 여홍배미혜 • 염성현 • 오나연 • 오대겸 • 오미숙 • 오병만 • 오선자 • 오성옥 • 오순복 • 오옥희 • 오유준 • 오은철 • 오재원 • 오점미 • 오정환 • 오태주 • 옥포교회 • 우순자 • 우진숙 • 원말금 • 원준수 • 원진영 • 원호강 • 원호성 • 원호준 • 유갑열 • 유경숙 • 유기순 • 유남경 • 유도근 • 유명철 • 유무화 • 유미 • 유배남 • 유병순 • 유보덕 • 유상호 • 유석근 • 유성민 • 유소현 • 유수진 • 유순희 • 유승직 • 유영근 • 유영희 • 유용숙 • 유은경 • 유인혜 • 유정심 • 유정애 • 유준상 • 유지영 • 유지은 • 유해순 • 유행자 • 유현숙 • 윤광일 • 윤국자 • 윤남희 • 윤대오 • 윤동주 • 윤명희 • 윤미숙 • 윤미옥 • 윤서연 • 윤선자 • 윤성민 • 윤세연 • 윤수영 • 윤수혁 • 윤언연 • 윤영숙 • 윤영윤 • 윤영일 • 윤영희 • 윤장숙 • 윤정애 • 윤종기 • 윤종순 • 윤주자 • 윤준성 • 윤지양 • 윤지원(법운각) • 윤진식 • 윤태여 • 윤태환 • 윤필혜 • 윤하경 • 윤학수 • 윤현곤 • 윤희원 • 윤희현 • 이감복 • 이강운 • 이건수 • 이건영 • 이경미 • 이경민 • 이경술 • 이경심 • 이경애 • 이경재 • 이경진 • 이계자 • 이계화 • 이계희 • 이고은 • 이관심 • 이광현 • 이교나 • 이교범 • 이귀성 • 이규성 • 이근임 • 이금 • 이금옥 • 이금자 • 이기성 • 이기업 • 이기출 • 이길선 • 이남이 • 이덕순 • 이덕희 • 이동길 • 이동례 • 이동만 • 이동순 • 이동연 • 이동주 • 이만섭 • 이만옥 • 이명숙 • 이명월 • 이명자 • 이명학 • 이무건 • 이문순 • 이문희 • 이미경 • 이미영 • 이미옥 • 이미자 • 이민남 • 이민우 • 이민혜 • 이민희 • 이법명등 • 이병연 • 이병일 • 이병학 • 이복례 • 이복현 • 이봉현 • 이부돌 • 이분구 • 이분희 • 이삼순 • 이상대 • 이상봉 • 이상순 • 이상욱 • 이상임 • 이상진 • 이상태 • 이상효 • 이서윤 • 이서정 • 이석규 • 이석자 • 이선명 • 이선화 • 이선희 · 김춘식 • 이성규 • 이성남 • 이성수 • 이성우 • 이성진 • 이성훈 • 이세레나 • 이소연 • 이수아 • 이수영 • 이수자 • 이수정 • 이순금 • 이순길 • 이순님 • 이순덕 • 이순옥 • 이순우 • 이순이 • 이순자 • 이순희 • 이슬기 • 이승연 • 이승엽 • 이승운 • 이승훈 • 이승희 • 이십규 · 조대윤 · 조주연 · 조성우 • 이신용 • 이양심 • 이연순 • 이연옥 • 이연호 • 이영란 • 이영미 • 이영숙 • 이영순 • 이영식 • 이영의 • 이영재 • 이영희 • 이예림 • 이예슬 • 이옥순 • 이옥희 • 이용석 • 이용옥 • 이용왕 • 이용자 • 이용주 • 이용진 • 이용희 • 이운종 • 이원경 • 이월민 • 이월순 • 이유미 • 이유순 • 이유준 • 이유희 • 이윤범 • 이윤상(허쾌조) • 이윤주 • 이윤호 • 이윤희 • 이은남 • 이은목 • 이은선 • 이은숙 • 이은아 • 이은주 • 이을호 • 이인화 • 이인희 • 이일수 • 이일주 • 이자열 • 이재민 • 이재연 • 이재원 • 이재준 • 이재탁 • 이재협 • 이재형 • 이재화 • 이재훈 • 이정님 • 이정미 • 이정민 • 이정숙 • 이정순 • 이정옥 • 이정의 • 이정조 • 이정현 • 이정환 • 이정훈 • 이존기 • 이종복 • 이종직 • 이종찬 • 이종환 • 이주미 • 이주선 • 이주영 • 이주완 • 이준민 • 이준희 • 이지원 • 이지현 • 이지효 • 이진상 • 이진아 • 이진옥 • 이진우 • 이진이 • 이진희 • 이찬호 • 이철문 • 이철민 • 이춘연 • 이춘열 • 이춘옥 • 이타순 • 이태영 • 이태주 • 이태형 • 이판순 • 이필임 • 이항미 • 이해선 • 이해종 • 이해주 • 이해청 • 이향미 • 이향옥 • 이헌로 • 이현오 • 이현우 • 이현주 • 이혜영 • 이혜정 • 이호걸 • 이호득 • 이호상 • 이화성 • 이화제 • 이화형 • 이환세 • 이회건 • 이효구 • 이효진 • 이희순 • 이희영 • 임강신 • 임경희 • 임금숙 • 임동선 • 임묘택 • 임복순 • 임복희 • 임부진 • 임서영 • 임성희 · 임막래 • 임쇼희 • 임수성 • 임수희 • 임숙자 • 임양화 • 임영경 • 임영민 • 임영숙 • 임영진 • 임인규 • 임점순 • 임정수 • 임정원 • 임정원 • 임종덕 • 임종필 • 임창수(해강) • 임창주 • 임현숙 • 입춘 • 자월신동범 • 장경미 • 장기문 • 장기환 • 장남기 • 장대해 • 장례덕 • 장무환 • 장미영 • 장민호 • 장병숙 • 장병하 • 장서영 • 장석기 • 장석대 • 장석순 • 장세기 • 장수빈 • 장수정 • 장수환 • 장숙희 • 장순남 • 장순녀 • 장승익 • 장영희 • 장용기 • 장용민 • 장용환 • 장욱수 • 장원옥 • 장월순 • 장윤영 • 장윤익 • 장윤환 • 장은기 • 장인희 • 장지혜 • 장지호 • 장채기 • 장채원 • 장춘선 • 장한빛 • 장한수 • 장현귀 • 장현수 • 장형칠 • 장혜경 • 장혜숙 • 장혜정 • 전강채 • 전경자 • 전광배 • 전근식 • 전만권 • 전민경 • 전병준 • 전선희 • 전소연 • 전수연 • 전순이 • 전시우 • 전신자 • 전애숙 • 전영숙 • 전영준 • 전요한 • 전용학 • 전은화 • 전인동 • 전정선 • 전정원 • 전지은 • 전창훈 • 전현탁 • 전혜린 • 정경덕 • 정경록 • 정계숙 • 정계영 • 정규홍 • 정금숙 • 정동원 • 정명선 • 정명혜 • 정명희 • 정미숙 • 정미자 • 정민경 • 정병준 • 정봉교 • 정봉임 • 정봉자 • 정상훈 • 정서우 • 정서정 • 정석규 • 정석진 • 정선주 • 정성욱 • 정세령 • 정수연 • 정숙연 • 정숙자 • 정순금 • 정순연 • 정순점(크레파스샵) • 정승철 • 정승희 • 정신호 • 정애경 • 정연명 • 정연수 • 정연숙 • 정연학 • 정연화 • 정연희 • 정영란 • 정영숙 • 정영심 • 정영준 • 정예원 • 정예진 • 정옥순 • 정옥현 • 정웅채 • 정원석 • 정원선 • 정원영 • 정월득 • 정유정 • 정유탁 • 정은순 • 정은영 • 정은정 • 정은진 • 정은희 • 정이선 • 정인선 • 정재엽 • 정정숙 • 정종모 • 정종숙 • 정종현 • 정지연 • 정지은 • 정진우 • 정진희 • 정창원 • 정한일 • 정향진 • 정현숙 • 정현정 • 정현주 • 정현희 • 정혜순 • 정화자 • 정효선 • 정희윤 • 정희은 • 제갈희 • 제지현 • 조경란 • 조경숙 • 조경희 • 조규환 • 조기근 • 조남선 • 조남순 • 조말순 • 조명숙 • 조문경 • 조미영 • 조미옥 • 조방희 • 조분순 • 조석영 • 조수기 • 조수연 • 조시환 • 조신환 • 조안순 • 조연수 • 조연우 • 조옥래 • 조용주 • 조용희 • 조은정 • 조은희 • 조인영 • 조지종 • 조찬우 • 조찬호 • 조춘식 • 조태숙 • 조항석 • 조향숙 • 조현숙 • 조현우 • 조현주 • 조형근 • 조형원 • 조혜정 • 조희명 • 조희임 • 주경선 • 주경수 • 주덕순 • 주민경 • 주민정 • 주연화 • 주영미 • 주영희 • 주한일 • 주호영 • 주효석 • 지경식 • 지승민 • 지우재 • 지일성 • 지정도 • 지정학 • 진선미 • 진송자 • 진승현 • 진영주 • 진영훈 • 진재범 • 진홍순 • 차경자 • 차선영 • 차숙지 • 차유연 • 차은희 • 차중협 • 차진영 • 채민정 • 채선자 • 채영순 • 천무선 • 천복선 • 천용희 • 천은환 • 철주 • 청담고교(이헌로) • 최경남 • 최경화 • 최경희 • 최금자 • 최금호 • 최기석 • 최기화 • 최남수 • 최다연 • 최단애 • 최두용 • 최명민 • 최명자 • 최명희 • 최문영 • 최미랑 • 최미혜 • 최배현 • 최병도 • 최병태 • 최복순 • 최봉광 • 최산 • 최선미 • 최성근 • 최성민 • 최성혜 • 최솔비 • 최수경 • 최수복 • 최순교 • 최순옥 • 최승준 • 최승호 • 최양옥 • 최엄단 • 최여정 • 최연교 • 최연우 • 최연주 • 최영국 • 최영덕 • 최영일 • 최영자 • 최영주 • 최예라 • 최옥순 • 최용분우현 • 최용석 • 최용자 • 최용찬 • 최우진 • 최윤덕 • 최윤례 • 최윤선 • 최윤희 • 최은숙 • 최이현 • 최인숙 • 최인화 • 최임수 • 최장우 • 최재규 • 최재근 • 최재순 • 최재은 • 최재원 • 최재천 • 최정숙 • 최정안 • 최정원 • 최정재 • 최종안 • 최종옥 • 최종원 • 최종인 • 최준희 • 최지선 • 최지연 • 최지영 • 최지원 • 최지은 • 최진영 • 최춘옥 • 최태경 • 최태용 • 최현규 • 최형수 • 최형찬 • 최호승 • 최화실 • 최황웅 • 최희섭 • 탁막달 • 편보영 • 편수장 • 표옥경 • 표외숙 • 표점례 • 하상용 • 하영숙 • 하유근 • 하정아 • 하정은 • 하종화 • 하진호 • 하향덕 • 하형근 • 하희진 • 한경희 • 한귀연 • 한규빈 • 한도희 • 한미선 • 한미숙 • 한반도평화통일(문석환) • 한상원 • 한상희 • 한서연 • 한숙이 • 한여래심 • 한영남 • 한영주 • 한옥단 • 한용희 • 한월자 • 한유림 • 한은자 • 한재영 • 한정춘 • 한정화 • 한지선 • 한진경 • 한채원 • 한추영 • 한충희 • 함근녕 • 함선애 • 함준호 • 허경임 • 허명옥 • 허수길 • 허영숙 • 허원식 • 허윤호 • 허정길 • 허정화 • 허종국 • 허종균 • 허지연 • 허지이 • 허태영 • 현문수 • 현민수 • 현애순 • 현혜수 • 홍경희 • 홍다영 • 홍서윤 • 홍석일 • 홍선 • 홍성미 • 홍성완 • 홍영기 • 홍외자 • 홍우자 • 홍을늠 • 홍점녀 • 홍정표 • 홍천애 • 홍춘자 • 홍태준 • 황경미 • 황경하 • 황려래 • 황수정 • 황용호 • 황윤음 • 황윤호 • 황은숙 • 황인수 • 황인순 • 황임연 • 황창윤 • 황해연 • 황해정 • 황현재 • 황혜숙 • 황혜연 • 황호영 • 휴다인 (이연희) • 구찌(반려견) • 영가 김용연 • 영가 옥찬영 • 영가 윤택권 • 영가 주금주 • 영가 주종환 • 영가 홍종숙 • 영가 온양 방영순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총 무 원 장 **진 우**